

국립국어원 2023-01-3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64-01

#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연구책임자  
정 희 창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1월

2023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정희창(성균관대학교)

연구 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희창

공동연구원: 김지혜, 곽유석, 민지원, 이성우, 김강은, 조남호, 박선영, 한용운, 유하라, 강범일, 김영덕, 노석은, 박재희, 방영심, 손지은, 안혜지, 이수연, 황지현, 봉미경, 박현순, 고대영, 신유리, 이선웅, 이준환, 이지하, 황호덕, 김한샘, 도원영, 윤천탁, 이지수, 최형용, 강남욱, 박지순

연구보조원: 김지윤, 김종희, 이준희, 정량량, 조교현, 김정원, 박도리, 신현규, 이소미, 한예림, 윤시현, 윤지솔, 홍상기, 진예솔, 구지선, 박우진

##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정비한다. 기존 표제어 중 유지 표제어와 제외 표제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목록을 확정한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화한다.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계열어를 찾아 수정하고 용례의 보완이 필요한 표제어에 최신 용례를 추가한다. 셋째, 표준국어대사전에 참고 정보를 보충한다.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규범 정보를 보완 및 집필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9가지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의 언어공동체의 직관에 부합하며 언어 문화 자산으로서의 사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제어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에 수행되었던 표제어 전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표제어를 ‘제외 확정,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의 4단계로 유형을 나눈 뒤 제외할 표제어 10만 개와 유지할 표제어 약 30만 개의 목록을 확정하였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추가할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원고를 집필하였다. 추가 표제어 선정을 위하여 여러 사전들을 두루 조사하였고, 국어정보학적 최신 기법도 도입하여 대규모 언어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할 표제어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우리말샘에 등록할 신어 500개 이상을 발굴하였으며, 각 사전의 집필 지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였다.

셋째,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미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계열어를 정비하였다. 조사나 어미, 의성·의태어, 낮춤말·높임말, 준말,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말,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하는 말 등과 같이 일관된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표제어를 계열어라고 한다. 여기서는 1만 개의 표제어를 검토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열어를 추출하여 목록화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뜻풀이, 관련어, 전문 영역, 문법 정보 등이 일관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하는 계열어 정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전의 미시 정보를 수정하였다.

넷째, 용례의 현행화가 필요한 표제어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1970년 이전의 용례만 제시되어 있는 표제어에 대해 최신 용례를 선정하여 추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말뭉치를 활용하였으며, 소통성이 높고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최신의 용례 중에서 정제된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546개의 한자어 표제어의 원어 표기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판정하고 이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176개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 표제어가 한자 원어 독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122건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370개의 한자 원어가 동일한 쌍을 대상으로 원어와 표제어가 정확한지를 검토하여 165건을 수정하였다.

여섯째, 향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의 형태 정보를 전면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사전 편찬 지침을 참고하여 형태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5천여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여 이들의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였다.

일곱째, 사전의 참고 정보로서 표제어와 관련된 규범 정보를 구축하고 보완하였다. 2022년에 정비한 규범 정보 원고 1,599개를 지침 및 형식 기준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구축한 규범 정보에서 사전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항목으로 1,500개를 선정하여 규범 정보를 보완하였다.

여덟째,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 위원은 국어학자, (한)국어교육학자, 사전 편찬 전문가, 어문규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제어의 등급화 작업 기준, 계열어 정비 작업 방식,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 방식 등에 대한 주제로 자문 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아홉째,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다. 교육, 행정, 언론, 법률 등의 각 분야 전문가 52명 및 일반 사전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 어떻게 인용·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사전과 어문 규범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어사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미 언어생활의 준거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은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거시 정보, 미시 정보를 수정·보완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이 소통성이 높고 체계적이고 현행화된 사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표제어 제외, 표제어 추가, 계열어, 용례, 용례 현행화, 한자어, 형태 분석 정보, 규범 정보,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 <Abstract>

# 2023 Revis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This study has three main objectives. First, to revise the headings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e will establish criteria for selecting retained and excluded headings among existing headings and finalize the list. Second, to ensure consistency and modernize the dictionary. Find and correct family words that need consistent treatment, and add up-to-date usage to heading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Third, supplement the dictionary with reference information. Establish morphological analysis information of headings, and supplement and compile normative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has carried out the following nine tasks.

First, based on the compilation guidelines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e established criteria for selecting headings that meet the intuition of the current language community and fulfill the role of the dictionary as a linguistic and cultural ass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ull review of headings conducted in 2022, we categorized the headings into four levels: confirmed exclusion, pending exclusion, pending retention, and confirmed retention, and finalized a list of more than 100,000 headings to be excluded and 300,000 headings to be retained.

Second, we selected the headings to be added to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the Open-type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wrote the manuscript. To select additional headings, we researched various dictionaries and introduced the latest techniques in language informatics to extensively analyze large-scale language data. As a result, we selected more than 500 headings to be added to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discovered more than 500 new words to be registered in Open-type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wrote the manuscript according to the writing guidelines of each dictionary.

Third,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dictionary and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micro-information, the family words were overhauled. Family words are headings that require consistent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particles or ending words, onomatopoeia, lowering words, raising words, abbreviations, words that share certain forms, words that belong to certain semantic categories, etc. In this article, we reviewed 10,000 headings and extracted and cataloged family words according to certain criteria. We also prepared detailed guidelines for the maintenance of family words to ensure that their definitions, related words, specialized areas, and grammatical information are described in a consistent manner, and modified the dictionary information accordingly.

Fourth, we identified headings that needed to be updated with examples. For those headings that do not have a usage or only have a usage before 1970, we selected the latest usage and added it. For this purpose, we utilized the corpus buil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adopted the most recent usage that is highly communicative and refined in content and format to reflect linguistic reality.

Fifth, we reviewed the original language notations of 546 Sino-Korean headings provided by th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o determine what needed to be improved and revised them. For 176 headings, we reviewed whether the dictionary headings accurately reflected the original reading of the Sino-Korean and made 122 corrections. In addition, for 370 pairs of headings with the same original Chinese characters, we reviewed whether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s and the headings were accurate and corrected 165 cases.

Sixth, we established morphological analysis information as a basis for future standardized language dictionaries to fully present the morphological information of headings. For this purpose, we created a guideline for morphological analysis by referring to existing dictionary compilation guidelines, and selected about 5,000 headings to build morphological analysis information for them.

Seventh, we built and supplemented normative information related to headings as reference information for the dictionary. The 1,599 manuscripts of normative information maintained in 2022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format standards. In addition, 1,500 items were selected from the normative information established in 2014 to be prioritized for inclusion in the dictionary.

Eighth, we held an expert advisory committee on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The advisory committee consisted of linguists, Korean language educators, dictionary compilers, and language norms experts. Two advisory meetings were held on the topics of grading criteria for headings, methods of maintaining family words, and methods of building morphological analysis information, and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research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Ninth,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social utilization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e surveyed 52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administration, media, and law, as well as 100 general dictionary users to find out how they cite and utilize the dictionary. From this, we dre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language norms, and identified policy issues for promoting and raising social awareness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is already widely accepted as a guide to language lif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commodate and reflect changing linguistic realities, and in practice, dictionary is constantly being revised and supplemented. As part of this work, this study has carried out a number of tasks to ensure that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is a systematic and qualitatively superior dictionary. Through this, we hope to establish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s a highly communicative, systematic, and current dictionary.

Key words: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headings, exclusion of headings, addition of headings, family word, usage, usage update, Sino-Korean word, morphological information, normative information, social usage survey

# 차례

제1장 과업 개요 .....	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	4
3. 연구의 의의 .....	8
3.1. 개편의 근거로서 사전학적 방법론 연구 개발 .....	8
3.2. 국가 주도 사전 운영과 정비의 모범 사례 제시 .....	9
3.3. 학계, 교육계 등에 정제된 연구재로서 《표준국어대사전》 제공 .....	9
3.4. 사전 편찬 후속 세대 양성 .....	10
4.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11
제2장 표제어 정비 .....	13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제외 기준 정립 .....	13
1.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제외 기준 정교화 .....	13
1.1.1. 특수어의 제외 기준 정교화 .....	13
1.1.2. 고유명의 제외 기준 정교화 .....	15
1.1.3. 전문어의 제외 기준 .....	20
1.2. 제외 후보 표제어의 전수 검토 .....	22
1.2.1. 제외 후보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및 방법 .....	22
1.2.2. 제외 후보 표제어의 전수 검토 결과 .....	27
2.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원고 집필 .....	30
2.1.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및 원고 보완 .....	30
2.1.1. 등재 후보 선정 .....	30
2.1.2. 사전 원고 보완 .....	32
2.2. 《우리말샘》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원고 집필 .....	34
2.2.1. 《우리말샘》 추가 표제어 선정 .....	34
2.2.2. 《우리말샘》 추가 표제어 집필 .....	36

# 차 례

제3장 사전 정보 일관성 확보 및 현행화 .....	38
1. 계열어 정비 .....	38
1.1. 계열어 정비 대상 선정 .....	38
1.1.1. 정비 대상 유형 및 추출 방법 .....	38
1.1.2. 정비 대상 선정 및 분배 .....	41
1.2. 계열어 정보 수정 .....	46
1.2.1. 정비 작업 내용 및 방법 .....	46
1.2.2. 정비 작업 결과 .....	56
2. 사전 용례 현행화 .....	62
2.1. 사전 용례 현행화 작업 절차 및 방법 .....	62
2.1.1. 문제 유형 분류 .....	62
2.1.2. 작업 대상 선정 .....	62
2.1.3. 용례 추가 및 수정 .....	65
2.1.4. 교차 검토 및 완성 .....	70
2.1.5. 작업 일정 .....	70
3. 한자어 원어 검토 .....	71
3.1. 한자 원어 검토 개요 .....	71
3.1.1. 한자 원어 검토의 세부 과업 .....	71
3.1.2. 한자 원어 검토 대상 .....	71
3.2. 한자 원어 검토 수행 .....	71
3.2.1. 대상 자료 수집 및 예비 가공(3~4월) .....	71
3.2.2. 검토 지침 마련(5월) .....	72
3.2.3. 검토 작업 및 교차 검토 실시(5~7월) .....	72
3.3. 한자 원어 검토 결과 .....	73
3.3.1. 한자 표기 검토 .....	73
3.3.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	75
3.3.3. 한자 원어 검토 결과 종합 .....	76



# 차 례

제4장 형태 분석 정보, 규범 정보 구축 .....	79
1.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79
1.1. 과업 개요 .....	79
1.1.1. 과업의 목표 .....	79
1.1.2. 과업의 필요성 .....	80
1.2. 과업 내용 .....	81
1.2.1. 과업 진행 절차 .....	81
1.2.2.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	81
1.2.3.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82
2. 규범 정보 보완 .....	84
2.1. 규범 정보 보완 대상 선정 .....	84
2.2. 규범 정보 보완 .....	85
2.2.1. 규범 정보 보완 작업 지침 .....	85
2.2.2.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	87
제5장 학술 발표회, 공동 워크숍, 자문 회의 개최 .....	89
1. 학술 발표회 개최 .....	89
1.1. 학술 발표회 개최의 목적 및 취지 .....	89
1.2. 학술 발표회 개최 내용 .....	89
1.3. 주요 논의 사항 .....	90
2. 공동 워크숍 개최 .....	95
2.1. 워크숍 개최의 목적 및 취지 .....	95
2.2. 워크숍 개최 내용 .....	95
2.3. 주요 논의 사항 .....	96
3.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98
3.1. 자문 위원 구성 및 자문 설계 .....	98
3.2. 자문 의견 .....	103

# 차 례

3.2.1. 1차 자문 .....	103
3.2.2. 2차 자문 .....	121

## 제6장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 139

1. 조사 목적 및 취지 .....	139
2.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	139
2.1. 조사 대상 .....	139
2.2. 조사 내용 .....	140
2.3. 조사 결과 .....	142

## 제7장 추후 사업 방향 제언 ..... 161

1. 계열어 정비 .....	161
1.1. 참고 어휘 상세 지침 필요 .....	161
1.2. 기타 《표준》 편찬 지침 수정 보완 : 웹사전의 동의어 처리 방식 변경과 관련된 문제 등 .....	161
1.3. 계열어 정비 후속 작업 방향 제언 .....	163
1.3.1. 계열어 유형별 성격의 상이에 따른 과업 분리 및 정비 범위 제한 ..	163
1.3.2. 후속 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계열어 정비 대상 .....	164
1.3.3. 의미형태 계열어의 목록 구축 : 장기적인 구축 필요 .....	164
2. 사전 용례 현행화 .....	165
2.1. 지침의 검토 및 보완 필요 .....	165
2.2. 현행화 사업의 범위 설정 필요 .....	166
2.3. 용례의 전체 검토 및 수정 필요 .....	166
3.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166
3.1.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지침의 수정·보완 .....	167
3.2. 형태 분석 정보의 지속적인 구축 .....	168
4. 규범 정보 보완 .....	169
4.1. 활용 정보 관련 규범 정보 보완 .....	169

# 차 례

4.2. 뜻풀이 관련 규범 정보 보완 .....	171
----------------------------	-----

참고 문헌 .....	173
-------------	-----

부 록 .....	177
-----------	-----

「부록 4」 계열어 정비 작업 지침 .....	178
---------------------------	-----

「부록 6」 한자 원어 검토 작업 지침 .....	189
-----------------------------	-----

「부록 7」 [23표준개편] 형태 정보 구축 지침 .....	191
-----------------------------------	-----

「부록 9」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설문지 .....	194
---	-----

## 표 차례

<표 1> 표제어 제외 등급 기준 .....	13
<표 2> ‘전 용어’ 제외 현황 .....	14
<표 3> ‘음역어’ 제외 현황 .....	14
<표 4> 은어 제외 현황 .....	15
<표 5> 표제어 분야별 현황 .....	23
<표 6>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	25
<표 7> 제외 후보 표제어의 판단 등급 기준 .....	25
<표 8> 제외 후보 표제어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 .....	26
<표 9>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원고 집필 일정 .....	33
<표 10> 계열어 정비 대상 유형 및 추출 방법 .....	39
<표 11> 유형별 계열어 정비 대상 개수 .....	44
<표 12> 유형별 분배 내역 .....	46
<표 13> 계열어 정비 작업 절차 .....	46
<표 14> 형태 계열어 세부 지침의 예시 .....	52
<표 15> 의성 의태어 세부 지침의 어휘군 표 예시 .....	54
<표 16> 유형별 계열어 정비 결과 .....	56
<표 17> 의미 관계 계열어 작업 상세 결과 .....	57
<표 18> 계열어 정비 사례 .....	57
<표 19>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의미 범주 계열어, 형태 계열어 세부 지침 항목 ..	59
<표 20> 유형별 표제어 추가 및 제외 제안 .....	60
<표 21> 문제 유형별 최종 추가 용례 수(뜻갈래 기준) .....	62
<표 22> 무용례 표제어의 분류 기준 .....	63
<표 23> 무용례 표제어의 분류 결과 .....	63
<표 24> 용례에 부적절한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표제어의 분류 결과 ·	64
<표 25> 용례 현행화 작업 일정 .....	70

## 표 차례

<표 26> 표제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우리말샘의 표제어 대표 목록 .....	73
<표 27> 원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우리말샘의 표제어 대표 목록 .....	74
<표 28> 원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대표 목록 ..	75
<표 29> 표제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대표 목록	76
<표 30> 한자 표기 오류에 따른 수정 필요 표제어 수 .....	76
<표 31>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결과 .....	82
<표 32> 형태 분석 정보 구축 결과 .....	83
<표 33>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	87
<표 34> 학술 발표회 개최 내용 .....	89
<표 35> 워크숍 개최 내용 .....	95
<표 36> 자문 위원 구성 .....	99
<표 37> 응답자 특성표 - 일반 국민 .....	140
<표 38> 응답자 특성표 - 전문가 .....	140
<표 39> 조사 설문 문항 - 일반 국민 .....	141
<표 40> 조사 설문 문항 - 전문가 .....	141
<표 41> 《표준국어대사전》이 일상에 도움 된 부분 .....	144
<표 42> 《표준국어대사전》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 부분 .....	144
<표 43>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	145
<표 44>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주관식) .....	147
<표 45>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이 도움 된 부분 .....	148
<표 46>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주된 목적 .....	149
<표 47>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	149
<표 48> “(가)보다 (나)의 신뢰성/정확성/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한 이유 .....	152
<표 49>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1) 기술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n=16) .....	155

## 표 차례

<표 50>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2) 규범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n=39) .....	155
<표 51>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3) 두 사전 모두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n=45) .....	155
<표 52>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1) 기술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n=8) .....	158
<표 53>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2) 규범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n=15) .....	158
<표 54>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3) 두 사전 모두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n=29) .....	159
<표 55> 현행 《표준》 참고 어휘 제시 현황 .....	161
<표 56> 현행 《표준》 동의어 풀이 제시 사례 .....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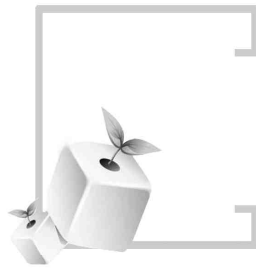
## 그림 차례

<그림 1> 과업의 개요 .....	2
<그림 2> 국립국어원의 사전 체계 .....	4
<그림 3>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	32
<그림 4> 유형별 계열어 정비 대상 .....	45
<그림 5> 계열어 정비 작업 개요 .....	49
<그림 6> 사전 정보 수정 작업 예시 .....	50
<그림 7> ‘용례 집필 양식’의 작성(용례 추가의 경우) .....	66
<그림 8> ‘대상 어휘 전체 목록’의 작성 .....	66
<그림 9> ‘용례 집필 양식’의 작성(수정이 필요한 용례의 경우) .....	69
<그림 10> ‘성형’의 용례 추가 예시 .....	69
<그림 11> ‘한자 표기 검토’ 작업 엑셀 제목 열 .....	72
<그림 1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작업 엑셀 제목 열 .....	72
<그림 13> 형태 분석 표기 예시 .....	79
<그림 14> 형태 단위 검색 제시 방안 .....	80
<그림 15> 형태 분석 과업 진행 절차 .....	81
<그림 16> 형태 분석 작업 예시 .....	83
<그림 17>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복수 응답) .....	143
<그림 18>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 ·	146
<그림 19>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객관식, 복수 응답) ...	147
<그림 20>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 ·	150
<그림 21>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인식 평가 .....	151
<그림 22>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및 내용 충실성 평가 .....	153
<그림 2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이 낮다고 생각 하는 부분(복수 응답) .....	153
<그림 24>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 .....	154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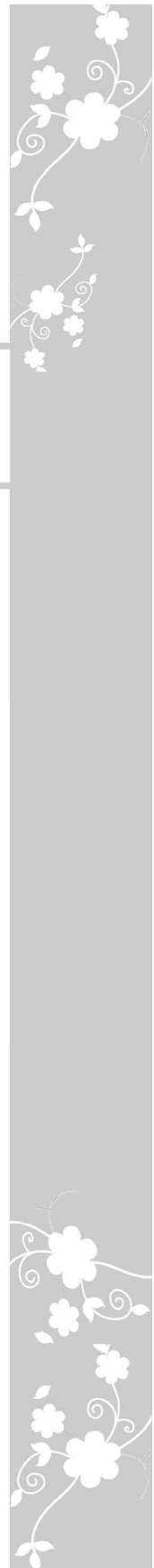
<그림 25>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 평가 .....	156
<그림 26>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 충실성 평가 .....	157
<그림 27>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편리성 평가 .....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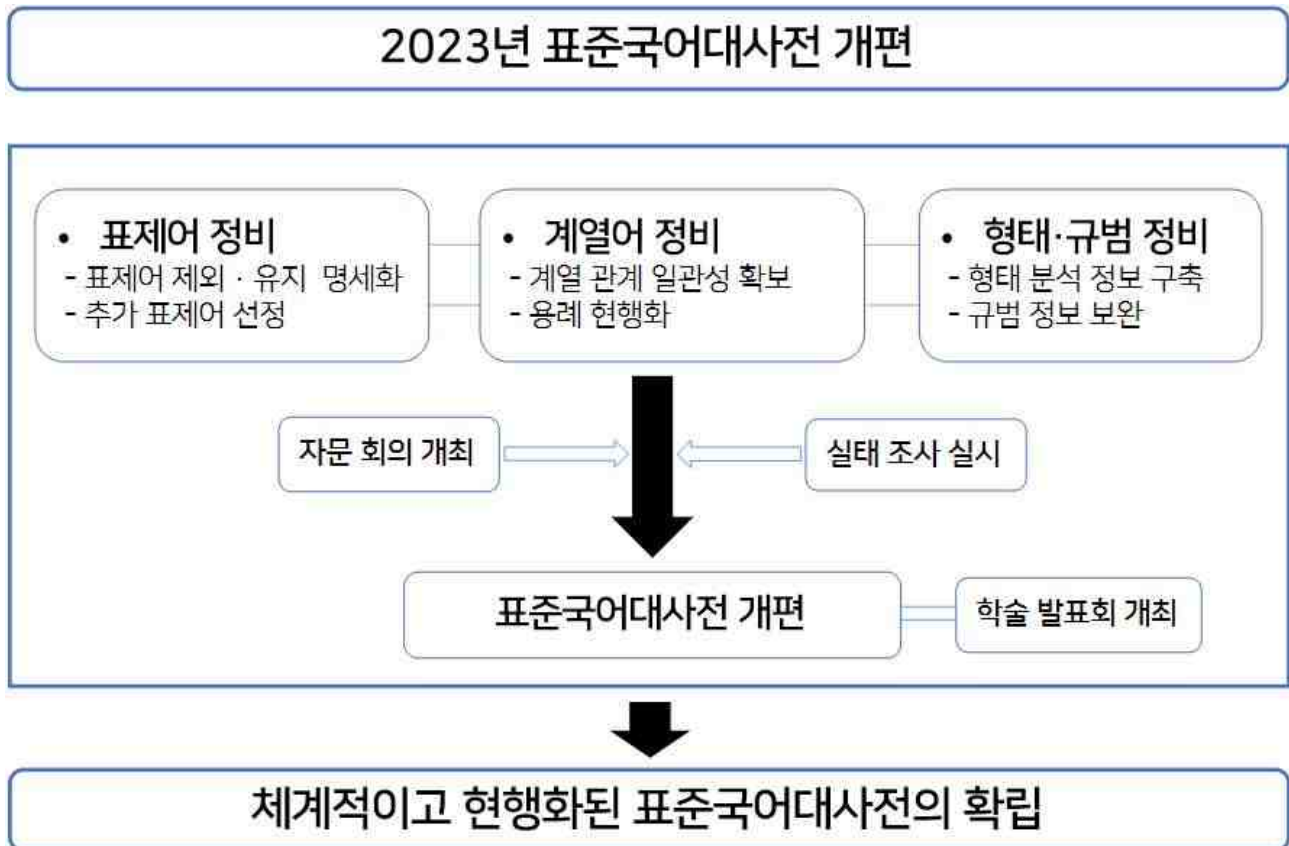
# 제 1 장

## 과업 개요



## 제1장 과업 개요

본 과업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업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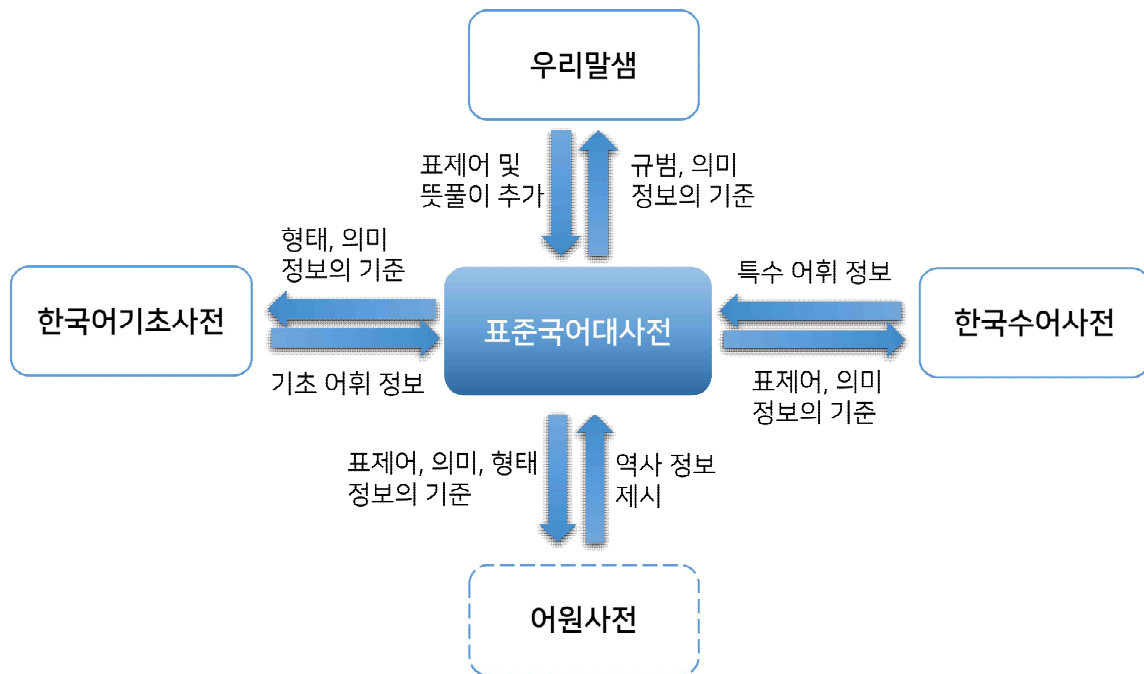
- 1)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은 언어생활의 준거로서 규범 사전이라는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각종 시험 출제, 교과서 집필, 단어 정의, 규범형 확인 등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공동체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고 1999년 편찬된 이후의 언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재의 언어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사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2)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국어 연구의 성과와 사전 편찬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사전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어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에 모두 작용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의 다양한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국립국어원 사전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어사전의 소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언어공동체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현행화

- 1) 기존 표제어 중에서 제외·유지할 표제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추가할 표제어를 발굴함으로써 표제어를 정비한다. 또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열어를 추출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처리되어 있는 사전 정보를 수정하고, 최신 용례를 추가하며, 사전의 미비 사항을 조사하여 수정함으로써 사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한편 《표준》에 새롭게 신설될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규범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언어공동체에서 보다 소통성 있는 사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
- 2) 사전을 체계적이고 현행화된 사전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립국어원 사전 플랫폼의 《우리말샘》(이하 ‘《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수어사전》, 추후 편찬될 《어원사전》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풍요롭고 정확한 언어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2> 국립국어원의 사전 체계

##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정비

#### 1) 표제어의 제외·유지 목록 확정 및 유형화

(1) 2022년 수행된 《표준》 표제어의 전수(42만 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 기준 마련

○ 《표준》의 편찬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의 언어공동체의 직관에 부합하며 한국어의 소통성, 언어 문화 자산으로서의 사전의 역할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표제어 선정 기준을 마련

(2) 제외할 표제어 약 10만 개와 유지할 표제어 약 30만 개의 목록을 확정

(3) ‘제외 확정,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의 4단계로 근거 제시

## 2)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원고 집필

(1) 《표준》에 추가할 표제어 500개 이상 선정과 《말샘》에 새롭게 등록할 신어 500개 이상 발굴

○ 표제어 추가 선정을 위해 《말샘》을 비롯한 여러 사전에 대한 조사 실시

○ 국어정보학적 연구 성과 활용 및 대규모 언어 자료 분석 등 추가 표제어 발굴을 위한 최신 기법을 폭넓게 활용

(2) 선정 및 발굴 어휘의 원고 집필

○ 《표준》의 집필 지침과 《말샘》의 집필 지침에 따라 원고 집필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성 확보 및 현행화

### 1) 계열어의 정비

(1)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열어를 체계적으로 추출·목록화

○ 대상: 조사, 어미, 의성·의태어, 낮춤말·높임말, 준말,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말,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하는 말 등 일관된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계열어

(2) 일관된 정보 처리를 위한 계열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전 정보 수정

○ 수정 대상: 1만 개 표제어. 일관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전 정보(뜻풀이, 관련어, 전문 영역, 문법 정보 등)

○ 이를 통해 《표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전의 미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편

### 2) 용례의 현행화

(1) 용례의 보완이나 추가가 필요한 표제어에 최신 용례 추가(5천 개)

○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1970년 이전의 용례만 제시된 표제어에 국립국어원의 구축 말뭉치를 활용하여 용례를 선정 및 추가

○ 소통성을 높여 주는 정제된 내용과 형식의 선택

○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최신의 용례 채택

### 3) 한자어 표제어 검토 및 수정

- (1)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546개의 한자 표기 자료를 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판정하고 근거 마련 및 수정
  - 한자 표기에 다른 독음 가능성이 있는 경우 176개
  - 한자 표기에 둘 이상의 표제어가 대응하는 경우 370개

## 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및 규범 정보 구축

### 1)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1) 형태 분석 정보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형태 분석 정보를 5천 개 이상 시범 구축
  - 향후 《표준》에서의 전면적인 형태 정보 제시의 근거 마련
- (2) 형태 분석을 통해 단어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현재 《표준》은 IC(직접구성성분) 분석만 표제어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단어의 내부 구조 파악이나 단어의 의미 파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
  - 형태 분석 정보란에서 복합어 형태 분석 정보의 입체적 제시

### 2) 규범 정보 보완

- (1) 2022년에 정비한 규범 정보 원고 1,599개를 지침 및 형식 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
- (2) 2014년 구축한 규범 정보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항목 1,500개를 선정 (2022년에 선정된 항목 제외)
- (3) 《표준》 집필 지침에 따라 규범 정보 보완
  - 규범 정보를 구성하는 하위 단계의 정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규범 정보 보완
  - 현재의 어문 규범에 부합하는 정확한 규범의 해석을 근거로 규범 정보를 정교화

## 라.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개편 성과 논의

### 1) 《표준》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 (1)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2회)

- 1차 자문 회의: 연구의 기틀을 구축하고 1차 작업이 진행된 시점에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 2차 자문 회의: 각 분과의 검토 작업이 진행된 이후의 시점에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국어사전과 관련된 정책 제언에 대한 의견 청취

#### (2) 사회적 수요 및 영향력 실태 조사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전 이용자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교육, 행정, 언론, 법률 등 각 분야에서의 인용과 활용 맥락을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표준》의 개편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통해 국어사전과 어문 규범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어사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

### 2) 《표준》 개편 성과 공유 및 학술적 논의

#### (1) 학술 발표회 개최

- 《표준》의 개편 방향뿐 아니라 국어사전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자유로운 논의를 위하여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공동 학술 발표회 개최
- 사업 진행 내용을 심화하는 발표들로 구성하여 학술 발표회를 기획

#### (2) 국어원과 연구진 공동 워크숍 개최

- 국립국어원과 연구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를 공동 워크숍의 형식으로 개최
- 공동 워크숍을 통해 《표준》의 체계화 방안과 사전의 개편 방향성 논의

### 3. 연구의 의의

#### 3.1. 개편의 근거로서 사전학적 방법론 연구 개발

이 연구는 《표준》 개편을 목적으로 표제어 정비, 계열어 정비, 형태·규범 정보 구축 및 보완을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현행화한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근거가 분명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제어 분과, 계열어 분과, 형태 분석 분과, 규범 분과는 개편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과 개정 지침을 숙지하였고 나아가 기존의 사전학적 연구 성과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표제어 분과에서는 《표준》의 검토 대상 표제어에 대해 제외 및 유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의 표제어 선정 기준과 전문어별 세부 지침을 검토한 뒤 단계별로 보류와 확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어 주요 표제어가 걸려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계열어 분과에서는 학술적 맥락에서 쓰여 온 ‘계열어’를 학술 용어로서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친 뒤 계열어의 유형을 나누고 이를 처리해 온 기존 논의를 검토한 뒤 유형별로 지침을 작성하였다. 또한 계열어 추출 방법론을 마련하여 실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표제어와 정보 기술로 나누어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형태 분과의 경우 복합어 표제어의 내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형태 분석 지침을 작성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5천여 개의 표제어에 대한 시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간 《표준》이 직접 성분 분석에 근거한 이분지 형태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보였던 것에 비해 복합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언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규범 분과에서는 《표준》의 집필 지침에 따라 규범 정보를 보완하였다. 특히 현재의 어문 규범과 해설에 부합하도록 규범 정보를 정교화하였다. 이는 《표준》이 규범 사전으로서의 성격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바, 오류가 없도록 처리하였다. 용례 현행화 분과에서는 《표준》에서 용례가 제시되지 않았던 표제어, 용례가 부족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표제어, 1970년대 이전의 용례만 제시되었던 표제어로 나누어 문제를 분석하고 정비할 내용을 지침화하였다. 《표



준》 초판을 편찬하였던 1990년대의 언어 의식이 반영된 용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차별과 혐오, 비하 등의 부적절한 예문을 확인하고 사전 용례로서의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사전학,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다룬 논점을 분석하여 용례 정비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분과별 작업 지침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발표되었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학술 논문으로 정합성을 가지게 되었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널리 공유된다면 《표준》의 개편 지침은 사전학적 방법론으로 정립되어 이후 사전학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3.2. 국가 주도 사전 운영과 정비의 모범 사례 제시

《표준》은 1999년 초판 출간부터 2008년 개정판 웹 서비스를 거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범 사전으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해 왔다. 교육, 언론, 출판, 정책, 학술 전 분야에서 우리말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은 언어생활을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영위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표준》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커진바, 표제어부터 부가 정보까지 사전의 전 구조와 항목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과 개편을 하게 되었다.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뒤 단계별로 절차와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특히 《표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개편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도출하였다. 이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표준》이 국민들의 언어 생활의 준거로서 공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국가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편 작업은 국가가 주도하여 사전을 보완 및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3. 학계, 교육계 등에 정제된 연구재로서 《표준국어대사전》 제공

국내 사전학은 1990년대 후반 출간된 《연세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

전», 2009년에 출간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국어학자로 구성된 편찬 팀은 사전에 대한 연구와 사전 편찬 방법에 대한 연구로 국어 사전학의 깊이와 넓이를 심화해 왔으며 이후 다양한 사전의 편찬을 견인해 왔다. 그중 《표준》은 규범 사전으로 학계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 무엇보다 《표준》 데이터의 공개는 여러 학계 연구자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관련 연구를 촉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제어의 불균형, 정보 기술의 비일관성 등은 사전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주요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학계에서 비판받아 온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단순 오류를 고치고 비일관성을 해결하며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언어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신뢰도 높은 우리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3.4. 사전 편찬 후속 세대 양성

이 연구는 《표준》 개편을 위해 국어학계, 사전학계의 주요 연구자와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은 국어사전 편찬 작업을 주도하였거나 집필 작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바, 《표준》 개편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선도로 개편의 각 분과에서 개편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전 편찬 경험이 적은 보조연구원들은 개편 지침을 숙지하고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실무 회의를 통해 이를 내재화함으로써 사전 편찬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개편과 관련된 실무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워크숍,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실무를 이론화하고 전문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은 참여 대학원생에게 학술적 자극을 주고 작업 결과에서 연구 쟁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실제 사전 편찬계에는 편찬의 이론과 실재를 제대로 경험한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참여한 젊은 연구원들은 앞으로 다양한 사전의 편찬을 수행할 작업자로서, 사전학, 국어학을 이끌어 갈 연구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사전 편찬 작업이 국립국어원 외 여러 기관에

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편찬 인재 양성은 거시적으로도 중요하다.

#### 4.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1) 《표준》의 규범 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제고한다.  
규범 정보를 보완하고 형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국어 사용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준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서 각종 시험 출제나 교과서 집필, 단어의 정의 및 규범형 확인 등의 영역에서 요청되는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2) 규범성과 현실성의 조화를 이루어 《표준》의 소통성을 높인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표제어 목록을 정비하고 정보가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신 용례를 추가하고 사전의 계열어 간의 일관성을 조사하여 수정한다. 이를 통해서 《표준》이 언어 공동체에서 보다 규범적이면서도 소통성이 있는 사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3) 《표준》이 국립국어원 사전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말샘》을 비롯하여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수어사전》 및 추후에 편찬될 《어원사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언어생활의 전반을 촘촘하게 포괄하는 질 높은 사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 2 장

### 표제어 정비



## 제2장 표제어 정비

###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제외 기준 정립

#### 1.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제외 기준 정교화

본 사업에서는 국립국어원(2021)과 국립국어원(2022)에 제시된 표제어 제외 기준을 보다 발전시켜 정교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2022)에서 제외 처리된 표제어들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외 후보 표제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 표제어 제외 등급 기준

판단 등급	세부 내용
제외 확정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휘 ② 말뭉치, 주요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서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 어휘
제외 보류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어휘 ②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 따라 등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 어휘 ③ 말뭉치에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어휘
유지 보류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어휘 ② 주요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 등재된 어휘 ③ 말뭉치에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어휘
유지 확정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어휘 ② 말뭉치, 주요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어휘 ③ 일반인에게 친숙한 어휘

위를 바탕으로 제외 후보 표제어에 대한 등급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분야별로 진행된 표제어 제외 작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1. 특수어의 제외 기준 정교화

- 1) ‘...의 전 용어’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전 용어’는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던 표제어를 새로운 형태로 대신함으로써, 기존 용어의 뜻풀이 기술에 사용하게 된 표현이다. 해당 전문어의 예전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쓰이지 않는 ‘전 용어’는 《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전 용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널리 쓰이던 말로 판정되거나 말뭉치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전 용어’에 대한 제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 용어’ 제외 현황

분야	제외 확정	제외 확정(일부)	제외 보류	총계
특수-전용어	1,919	17	1	1,937

‘전 용어’는 대부분 제외 확정 판단을 받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확정(일부) 혹은 제외 보류 판정을 내렸다.

- ‘제외 확정’이지만 다의어의 경우 해당 뜻풀이만 삭제: 제외 확정(일부)  
예) 연풍02(뜻풀이 [3]만 삭제), 오디오미터(뜻풀이 [1]만 삭제), 우각04(뜻풀이 [2]만 삭제) 등.
- 말뭉치의 출현 빈도가 1,000 미만인 표제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판단되면 제외 보류한다.  
예) 시세포

## 2) ‘...의 음역어’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음역어’는 대부분의 전문 영역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로마자가 익숙해지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국 고유명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음역어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표기가 널리 쓰인다면 해당 음역어는 제외할 수 있다. ‘음역어’에 대한 제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음역어’ 제외 현황

분야	제외 확정	제외 확정(일부)	제외 보류	총계
특수-음역어	283	1	3	287

- ‘제외 확정’이지만 다의어의 경우 해당 뜻풀이만 삭제: 제외 확정(일부)  
예) 선04(뜻풀이 [2]만 삭제)
- 말뭉치에서(모두의말뭉치, 기초어휘말뭉치) 출현 빈도가 1,000 이상인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제외 보류한다.  
예) 아세아, 이09, 임파선

### 3)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어휘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은어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만 쓰이는 말은 《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은어에 대한 제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은어 제외 현황

분야	제외 확정	제외 보류	총계
특수-은어	525	1	526

-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고 빈도도 있는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제외 보류한다.  
예) 대빵

#### 1.1.2. 고유명의 제외 기준 정교화

《표준》의 전문어 가운데 고유명(인명, 지명, 책명 등)은 제외 후보로 삼는다. 이는 국어사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명’, ‘지명’, ‘책명’ 외에 63개 전문 분야의 전문어에도 고유 명사(특히, 기구·조직명, 건물명, 그림명 등)적인 성격을 갖는 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제외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사업에서는 ‘고유명’의 제외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였다.

#### 1) 언어공동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고유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고유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예) 디즈니랜드, 문화의달, 아이누, 에펠탑, 인디언...
- 속담이 부표제어로 딸려 있는 고유명만 유지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예) ‘은진’: ‘은진은 강경으로 꾸러간다’라는 속담이 부표제어로 딸려 있으므로 유지
  - 예) ‘강경’: 딸려 있는 속담이 없으므로 제외 확정
- 단, 고빈도로 쓰이며, 수록 가치가 높은 표제어는 등재한다.
  - 예) 노벨상: 고빈도 고유명으로서 수록 가치가 있음.
  - 예) 헬러원: 고빈도 고유명으로서 수록 가치가 있음.
  - 예) 이누이트: 고빈도 고유명으로서 수록 가치가 있음.
- 동의어의 경우, 판단 등급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 인디언-아메리카인디언.
  - 예) 석탄일-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 종족명(OO+ -인(人)), 민족명(OO+ -족(族)) 등은 제외한다.
  - 예) 버마인, 비하르인, 세르비아인, 썸인, 소그드인, 소러시아인...
  - 예) 다우르족, 다코타족, 동슬라브족, 드라비다족, 문다족, 순다족...
- ‘OO의 날’로 풀이된 기념일은 제외한다. 다만 기념일이면서 공휴일인 것은 등재한다.
  - 예) 제외 확정: 강탄절, 경찰의 날, 과학의 날, 국제 적십자의 날, 노동절, 법의 날, 부부의 날...
  - 예) 유지 보류: 부처님 오신 날, 석가 탄신일, 석탄일, 어린이날...
- 공원 등 시설물 이름, 각종 단체명, 대회명, 회사명, 기업명 등은 제외한다.
  - 예) 디즈니랜드, 그린피스, 에펠 탑...
- 다른 나라의 상징물의 이름은 제외한다.
  - 예) 라 마르세예즈(프랑스 국가(國歌) 명칭), 유니언 잭(영국 국기 명칭), 오성 홍기...



2) 사전에 수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명’은 등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명칭은 등재한다.

(1) 공식적인 국가명과 널리 쓰이는 국가명은 등재한다.

예)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브루나이 다루살람/브루나이, 과테말라 공화국/과테말라, 노르웨이 왕국/노르웨이, 모나코 공국/모나코...

예) 미국,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명(공식 명칭이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므로 등재)

(2) 현재 연방제인 곳의 명칭(예: 아메리카합중국)은 등재한다.

(2-1) 이전에 있었으나 없어진 연방의 경우,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쓰임이 많은 것은 등재한다.

예) 소련, 소비에트, 소비에트 동맹,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연방, 소연방, 에이에스에스아르, 유에스에스아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동의어 관계인 이들 표제어 중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만 “유지 보류”로 둬.

(3)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통일된 나라의 예전 국명은 제외한다.

예)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 북예멘(예멘 아랍 공화국)

(3-1) 단,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독’, ‘동독’ 등은 등재한다.

(4) <000>과 <000+ 국>이 같은말일 경우 후자는 제외한다.

예) 일본-일본국, 몽골-몽골국 ☞ 일본국, 몽골국 삭제

(5) ‘전 이름’, ‘옛 이름’은 제외한다.

예) 그루지야(‘조지아’의 전 이름) ☞ 그루지야 삭제

(5-1) 단, ‘~의 다른 이름’으로 풀이되거나 다른 언어로 이르는 이름 등으로 풀이된 경우는 등재한다.

예) 안남(‘베트남’의 다른 이름), 홀란드(‘네덜란드’의 영어 이름)

- 수도명은 제외한다.

(1)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수도명은 제외한다.

예) 도쿄(일본의 수도), 런던03(영국의 수도) 등

(2) 없어진 왕조의 수도명 등은 제외한다.

(3) 현재 존재하는 수도명의 ‘전 이름’, ‘옛 이름’은 제외한다.

예) 콘스탄티노플, 아스타나...

(4) 수도가 바뀐 경우 이전의 수도명은 제외한다.

예) 취리히

- 국내 지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는 등재한다.

(1) 행정 구역명은 ‘도’ 단위와 일부 ‘시’ 단위는 등재하고, ‘군’ 이하 단위는 제외한다.

(1-1) 십사도에 해당하는 <00+ 도>와, 이와 같은 말로 자주 쓰는 2음절 약어는 등재한다.

예) 강원특별자치도1, 강원도2,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예) 강원, 경기, 경상, 경북, 경남, 전라, 전북, 전남, 제주, 충청, 충북, 충남, 평안, 평남, 평북, 함경, 함남, 함북, 황해, 해서

(1-2) 두 개 이상의 ‘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제시된 표제어는 등재한다.

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하삼도, 호남, 호서, 영남, 영서, 영동, 삼남, 영호남, 기호

(1-3) ‘시’ 단위는 다음의 8개 <00+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만 등재한다.

예)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2) ‘섬’[島]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큰 섬 5개는 등재한다.

예)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3) 주요 산과 강은 다음의 표제어만 등재한다. 산은 이름난 다섯 산(오악)과 높은 산 5개를, 강은 긴 강 5개를 등재한다.

예) 오악(五岳):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

예) 한반도의 높은 산(높이 5위까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예) 한반도의 주요 강(길이 5위까지):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4) 위에 제시된 부류 이외에도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표제어들은 등재한다.

예) 독도, 마라도, 울릉도, 천지, 백록담...

3) 널리 알려져 있고 국어사전에 등재할 가치가 높은 ‘책명’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책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재 가치가 높은 것은 등재한다.

- 속담이 부표제어로 딸려 있는 경우는 ‘유지 보류’로 처리하였다.

예) 천자문

- 동양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널리 쓰이는 것은 ‘유지 보류’ 한다.

예) 사서오경 : 논어, 맹자02, 대학02, 중용02, 시경02, 서경04, 주역02, 예기07, 춘추02<sup>1)</sup>

삼례 : 의례05, 예기07, 주례02

기타: 소학02, 본초강목

(1-1) 동의어가 여러 개인 경우 자주 쓰이는 것만 ‘유지 보류’로 두었다.

예) 서경(=상서, 서), 시경(=시), 주역(=역, 역경), 예기(=예)

- 서양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양서 가운데 널리 쓰이는 것은 “유지

---

1) <춘추>는 [일반]에 있음.

보류”로 처리하였다.

예) 기네스북, 아라비안나이트, 탈무드, 동방견문록, 군주론...

- 우리나라 고전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빈도와 <편수자료> 등을 참조하여 중학교 수준에서 알 만한 것들만 ‘유지 보류’ 처리한다.

예) ‘계백료서’, ‘계원필경’, ‘고금상정예문’, ‘과농소초’ 등

- 우리나라 고전서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은 ‘유지 보류’로 처리하였다.

예) 균여전, 금오신화, 명심보감,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 구체적인 책명이 아닌 것은 등재한다.

예) 만성보, 사화집, 앤솔러지, 초12...

#### 4)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별한 수록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인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인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간디, 갈릴레이, 강감찬, 견훤, 궁예, 대조영, 박혁거세, 세종02, 영조, 온조왕, 최린, 최인, 태종 등

- 주요 종교의 창시자는 ‘유지 보류’로 처리한다.

예)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 속담이 부표제어로 딸려 있는 인명은 ‘유지 보류’로 처리한다.

예) 공자02, 동방삭, 맹상군, 맹자01, 석승, 소진07, 엄천득, 유비03, 장비02, 조조04, 제갈공명, 제갈량, 진시황, 항우 등

### 1.1.3. 전문어의 제외 기준

본 사업의 제외 후보 표제어 가운데 전문어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120,618개 중 54,798개). 이들 용어에 대한 제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과거에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쓰이지 않는 표제어는 ‘제외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 ‘예전에’, ‘옛용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전문어는 ‘제외 확정’ 처리한다.

예) 가옥세, 검사공소, 경매법, 노동조합법, 병합죄, 과료 등

- 사용 정보를 찾기 힘든 표제어는 ‘제외 확정’ 처리한다.

예) 전의발, 정과리경, 함식, 혼정 등

## 2) 전문분야에 사용되는 고유명은 제외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 작품명, 인명, 지명, 건물명, 단체명, 기관명, 기구명, 로켓명, 언어명, 문자 이름, 상 이름 등 고유성을 지닌 전문어는 ‘제외 확정’ 처리한다.

예) 나비부인, 놀부타령, 도리화가, 마적02, 마술피리 등

예) ‘국제도로교통조약’, ‘해양투기규제조약’/ ‘세계저작권협약’, ‘유네스코조약’ ‘한미행정협정’ 등

예) ‘공익포장’, ‘근정포장’, ‘문화포장’, ‘보국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체육포장’, ‘건국훈장’, ‘과학기술훈장’, ‘무궁화대훈장’, ‘보국훈장’, ‘새마을훈장’, ‘체육훈장’ / ‘보통상이기장’, ‘특별상이기장’ 등

## 3) 뜻풀이에 제시된 정보가 부족하여 표제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표제어는 ‘제외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 순환적 뜻풀이, 뜻풀이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는 ‘제외 확정’ 처리한다.

예) 고교회도, 고본전, 물소독약, 복음합창 등

- 단, 표제어로서 수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판단 등급을 줄 수 있으며, “뜻풀이 보완 필요”라고 메모한다.

예) 자막화면, 행군나팔 등

## 4) 국어사전에 수록하기에는 세부적이면서 전문성이 지나치게 강한 표제어는 ‘제외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어 중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표제어는 ‘제외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예) 배형뉴, 백교통지, 백육재, 염기성아세트산납액, 합제비의이, 형이전적세계, 가상년 등

예) 가귀대귀, 경좌갑향, 길즉대홍, 삼동고리, 삼마누라 등

-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부적인 전문 내용을 담은 표제어도 ‘제외 확정’한다.

예) 타태죄, 나무모밭, 회퇴죄, 조차국 등

예) 속모, 속웃, 양사유, 옆쌍홍잡이

#### 5) '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확정' 처리한다.

- 해당 표제어가 '관형어+ 체언 구성'이면 '제외 확정' 처리한다.

예) 따낸돌, 묻힌니, 최근임무, 민그림, 벨나이 등

- 뜻을풀이를 고려했을 때, 해당 표제어가 '구 구성'으로 분석되면 '제외 확정'한다.

예) 부당판결, 사인위조, 새우그물, 소주방나인, 약분가능, 물감칼 등

전체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현황 및 판단 기준은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1.2. 제외 후보 표제어의 전수 검토

### 1.2.1. 제외 후보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및 방법

#### 가. 작업 방향 및 분배

##### □ 기본 방향

※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의 전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외 후보 표제어 선정: 총 120,618개

#### 1) 분야별 현황

분류	수정개수	분류	수정개수
분배-고대없음	14,181	분배-전문-불교	3,753
분배-빈도있음	99	분배-전문-사회 일반	298
분배-제외-고말뭉치	46	분배-전문-산업 일반	52
분배-제외-고조선	2	분배-전문-생명	907
분배-조선-동형	358	분배-전문-서비스업	30
분배-조선-저조선	1,389	분배-전문-수산업	126

분배-비표준	487	분배-전문-수의	347
분배-전문-고유명 일반	392	분배-전문-수학	646
분배-전문-인명	10,259	분배-전문-식물	2,386
분배-전문-지명	6,587	분배-전문-식품	52
분배-전문-책명	2,077	분배-전문-심리	368
분배-특수-은어	526	분배-전문-약학	608
분배-특수-음역어	287	분배-전문-언어	1,946
분배-특수-전용어	1937	분배-전문-역사1	4,024
분배-보류-말뭉치0	14,598	분배-전문-역사2	2,417
분배-보류-저빈도	12,577	분배-전문-연기	65
분배-전문-가톨릭	405	분배-전문-영상	405
분배-전문-건설	1,501	분배-전문-예체능 일반	230
분배-전문-경영	190	분배-전문-음악	1,712
분배-전문-경제	1,536	분배-전문-의학	1,083
분배-전문-공업	726	분배-전문-인문 일반	18
분배-전문-공예	815	분배-전문-일반어	18
분배-전문-공학 일반	42	분배-전문-임업	113
분배-전문-광업	1291	분배-전문-자연 일반	57
분배-전문-교육	317	분배-전문-재료	21
분배-전문-교통	749	분배-전문-전기·전자	2,379
분배-전문-군사	741	분배-전문-정보·통신	873
분배-전문-기계	1,298	분배-전문-정치	388
분배-전문-기독교	552	분배-전문-종교 일반	434
분배-전문-농업	742	분배-전문-지구	277
분배-전문-동물	3,404	분배-전문-지리	200
분배-전문-매체	152	분배-전문-천문	428
분배-전문-무용	172	분배-전문-천연자원	53
분배-전문-문학	1,676	분배-전문-철학	492
분배-전문-물리	1,574	분배-전문-체육	1,055
분배-전문-미술	330	분배-전문-한의	478
분배-전문-민속	1,109	분배-전문-해양	370
분배-전문-법률	4,859	분배-전문-행정	387
분배-전문-보건 일반	121	분배-전문-화학	772
분배-전문-복식	128	분배-전문-환경	48
분배-전문-복지	70		

## □ 분야에 대한 설명

### 1) 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가) 분배-고대없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한글 표기가 일치하는 표제어가 없는 표제어들로서 제외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 국립국어원(2022)에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총 15,133개 중 제외 후보 표제어로 14,181개를 선정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검토.
- 나) 분배-빈도있음: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_원어(한자)매칭’ 열에 빈도가 숫자로 표시된 표제어. 말뭉치에 근거한 빈도 조사이므로 빈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 국립국어원(2022)에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총 703개 중 제외 후보 표제어로 99개를 선정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검토.
- 다) 분배-제외-고말뭉치: 2억 어절 규모의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와 ‘기초어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는 3회 이상, 20억 어절 규모의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는 5회 이상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로서, 고빈도로 나타났으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국립국어원(2022)에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총 35,433개 중 제외 후보 표제어로 46개를 선정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검토.
- 라) 분배-제외-고조선: ‘조선일보.출현.한자빈도’ 열에서 6회 이상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빈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 국립국어원(2022)에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총 24,579개 중 제외 후보 표제어로 2개를 선정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검토.
- 마) 분배-조선-동형: ‘조선일보.출현.한자빈도’ 열에서 동형으로 나타나는 표제어. 국립국어원(2022)에서는 한자가 중복되는 표제어들이기 때문에 모두 용례 확인한 후 판단하였음. 국립국어원(2022)에서 2,326개의 표제어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358개의 표제어가 제외 후보 표제어로 선정되어 다시 검토.



바) 분배-조선-저조선: ‘조선일보.출현.한자빈도’ 열에서 5회 이하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빈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그러나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기사의 특성상 단순히 한자만 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립국어원(2022)를 통해 총 18,934개의 표제어 중 1,389개가 제외 후보로 선정되어 이번에 다시 검토됨.

사. 분배-보류-말뭉치0, 분배-보류-저말뭉치: 일반어 중에서 말뭉치 빈도가 없거나(분배-보류-말뭉치0), 기초어휘말뭉치의 빈도가 5이하인 표제어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2022년도에 표제어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이 팀을 이루어 검토.

## □ 전문 분야 검토 방법

### 1) 분담한 표제어 목록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 가) 고유명 일반, 인명, 지명, 책명은 예외적으로 남겨 두어야 할 표제어에 2023 판단란에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 표시
- 나) 다른 분야에서 국어사전에 수록하기에는 세부적인 정보라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2023 판단란에 ‘제외 확정’ 표시 후 2023 판단의견에 ‘삭제-세부정보’ 표시
- 다) 다른 분야에서 국어사전에 수록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표제어를 발견하면 2023 판단란에 ‘제외 확정’ 표시 후 2023 판단의견에 ‘삭제-부족정보’ 표시
- 라) 다른 분야에서 ‘고유성’을 지닌 표제어를 발견하면, 2023 판단란에 ‘제외 확정’ 표시 후 2023 판단의견에 ‘삭제-고유명’ 표시
- 마) 다른 분야에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표제어를 발견하면, 2023 판단란에 ‘제외 확정’ 표시 후 2023 판단의견에 ‘삭제-예전단어’ 표시
- 바) 다른 분야에서 구 구성의 표제어를 발견하면, 2023 판단란에 ‘제외 확정’ 표시 후 2023 판단의견에 ‘삭제-단순구’ 표시

- 2) 각 연구원은 검토한 분야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작성
- 가) 삭제 유형 등 검토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작성
- 나) 추가 논의 사항 및 질의 사항/특이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

## 나. 작업 절차 및 일정

- 《표준》의 제외 후보 표제어에 대한 검토 작업은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표 6>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작업 내용	해당 분과	일정
제외 후보 표제어 목록 자료 가공 및 각종 정보 기재	자료 분과	3~4월
제외 후보 표제어 검토 지침 제작	표제어 분과	4월
연구원 대상 검토 작업 교육	표제어 분과	4~5월
제외 후보 표제어 전수 검토(1차)	표제어 분과	5~8월
제외 후보 표제어 전수 검토(2차)	표제어 분과	9~11월
전수 표제어 최종 검토 및 최종 제외 어휘 선별	표제어 분과	11월

## □ 제외 후보 표제어 검토

- 제외 후보 표제어의 판단 등급

<표 7> 제외후보 표제어의 판단 등급 기준

등급	제외 확정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
등급 해설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휘 ② 말뭉치, 주요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서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 어휘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어휘 ②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 따라 등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 어휘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어휘 ② 주요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 등재된 어휘 ③ 말뭉치에서 확인	①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어휘 ② 말뭉치, 주요 참고 자료(네이버, 위키백과 등)에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③ 말뚝치에서 확인 이 잘 되지 않는 어 휘	이 잘 되지 않는 어 휘	확인되는 어휘 ③ 일반인들에게 친 숙한 어휘
대표 예시	가난타령(음악) 가리기그리드(물리) 소송절차의중단(법률) 소아거짓콜레라 (인문일반)	가공주(경제) 가영치(법률) 맵새(동물) 민족배타주의(사회일 반)	말뚝시간(해양) 살바씨름(체육) 자질문자(언어) 이큐01(교육)	명03(체육) 날개축 재심사되다 주급제

### 1.2.2. 제외 후보 표제어의 전수 검토 결과

- 제외 후보 표제어의 검토 과정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계량적 분석,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 수렴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휘를 최종 선별하였다.
- 120,618개의 제외 후보 표제어에 대한 전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 판정되었다.

<표 8> 제외 후보 표제어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

작업영역	판단 등급					작업개수
	제외 확정	제외 확정 (일부)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	
인명	10,241	1	3	14	0	10,259
서비스업	26	0	4	0	0	30
역사	6,397	1	43	0	0	6,441
지리	193	0	7	0	0	200
경영	178	0	12	0	0	190
교통	698	0	48	3	0	749
농업	705	0	37	0	0	742
미술	326	0	4	0	0	330
사회 일반	282	0	16	0	0	298
생명	856	0	51	0	0	907
예체능 일반	224	0	6	0	0	230

작업영역	판단 등급					작업개수
	제외 확정	제외 확정 (일부)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	
동물	1,978	3	1,423	0	0	3,404
체육	975	0	60	19	1	1,054
해양	363	0	4	3	0	370
행정	363	0	24	0	0	387
건설	908	1	592	0	0	1,501
공업	631	1	94	0	0	726
군사	657	0	70	14	0	741
복식	127	0	1	0	0	128
철학	481	0	11	0	0	492
매체	152	0	0	0	0	152
의학	1,081	0	2	0	0	1,083
정보통신	860	0	13	0	0	873
고유명 일반	362	2	19	9	0	392
수산업	123	0	3	0	0	126
재료	21	0	0	0	0	21
지명	6,019	8	560	0	0	6,587
책명	1,965	1	0	111	0	2,077
식물	2,300	0	86	0	0	2,386
천문	376	0	52	0	0	428
법률	4,082	12	765	0	0	4,859
산업 일반	51	0	1	0	0	52
언어	1,877	0	68	1	0	1,946
인문 일반	17	0	1	0	0	18
임업	107	0	6	0	0	113
가톨릭	401	0	3	1	0	405
기독교	548	0	4	0	0	552
불교	3,694	10	49	0	0	3,753
물리	1,553	0	21	0	0	1,574
음악	1,711	0	1	0	0	1,712
공예	812	0	3	0	0	815
공학 일반	41	0	1	0	0	42
광업	1,013	7	271	0	0	1,291
교육	299	0	17	1	0	317
기계	1,246	2	50	0	0	1,298
수의	339	0	8	0	0	347

작업영역	판단 등급					작업개수
	제외 확정	제외 확정 (일부)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	
식품	48	0	4	0	0	52
약학	594	0	14	0	0	608
자연 일반	57	0	0	0	0	57
전기전자	2,310	4	65	0	0	2,379
종교 일반	434	0	0	0	0	434
천연자원	52	0	1	0	0	53
환경	28	0	20	0	0	48
경제	1,450	0	86	0	0	1,536
수학	627	0	17	2	0	646
연기	65	0	0	0	0	65
한의	444	0	34	0	0	478
은어	525	0	1	0	0	526
음역어	283	1	0	3	0	287
전 용어	1,919	17	1	0	0	1,937
복지	65	0	5	0	0	70
영상	402	0	3	0	0	405
정치	374	0	14	0	0	388
지구	275	0	2	0	0	277
화학	619	1	152	0	0	772
무용	171	0	1	0	0	172
문학	1,668	0	8	0	0	1,676
민속	1,102	0	7	0	0	1,109
보건 일반	121	0	0	0	0	121
심리	353	0	15	0	0	368
저조선	1,284	8	97	0	0	1,389
고조선	2	0	0	0	0	2
조선-동형	349	0	8	1	0	358
고말뭉치	46	0	0	0	0	46
말뭉치 0	9,733	0	4,831	34	0	14,598
빈도있음	95	0	2	2	0	99
저빈도	6,576	0	5,982	19	0	12,577
고대없음	10,876	0	2,849	456	0	14,181
비표준어	487	0	0	0	0	487
일반어	18	0	0	0	0	18
합계	101,111	80	18,733	693	1	120,618

## 2.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사전 원고 집필

### 2.1.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및 원고 보완

#### 2.1.1. 등재 후보 선정

2023년 11월 현재 《표준》의 등재 어휘는 434,870개이고, 《말샘》의 등재 어휘는 1,155,870개로, 등재 어휘 수의 차이는 약 720,000개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표준》과 《말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샘》에는 《표준》에 등재할 만한 어휘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말샘》의 등재 어휘 중 《표준》에 추가할 어휘를 520개를 선정하여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말샘》과 《표준》의 표제어 목록을 비교하고 말뭉치 등의 언어 자료를 통해 출현 빈도와 쓰임을 확인하였다.

#### 가. 표준 미등재 우리말샘 표제어 목록(국립국어원 제공)을 대상으로 표제어 선정

- 《말샘》 등재어 중에서 《표준》에 실릴 등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10만여 개의 어휘가 담긴 엑셀 파일을 검토하였다.
-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에 등재할 만한 표제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항목을 검토하였다.
  - 전문용어 여부: 일반어 중심으로 선별
  - 용례 존재 여부
  - 구 구성이 아닌 단어 구성의 표제어 선정
  - 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수
  - 모두의말뭉치 빈도수

#### 나.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후보 선정

1) 자료 검토를 통한 등재 후보 1차 선정: 558개(뜻갈래 기준)

- 선정 기준

- (1) 기초어휘말뭉치 빈도 24 이상
- (2) 우리말샘에 용례가 제시된 표제어

- 배제 기준

- (1) 고유명(예: 인명, 지명, 학교명, 단체명 등)
- (2) 규범 표기 미확정 표제어(예: 뜻풀이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포함)
- (3) 2022년 사업에서 선정한 추가 표제어

2) 등재 후보 2차 선정: 520개(뜻갈래 기준)

- 선정 기준

- (1) 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순으로 520개 선별

- 배제 기준

- (1) 비표준어
- (2) 고유어, ‘-시키다, -당하다’ 파생어(예: 변화시키다, 박탈당하다)

3) 등재 후보 최종 선정: 520개

- 2)에서 선정된 등재 후보에 대한 표제어 분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등재에 부적절한 어휘 배제
- 자료상의 오류로 잘못 포함된 어휘 배제

⇒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일부(가나다순)

가개통, 가개통하다, 가건축물, 가결산, 가구업, 가구업체, 가대본, 가동그라지다, 가맹료, 가맹사, 가맹업, 가변형, 가부좌상, 가산액, 가산율.....
--

WORD_NO	어휘	품사	의미번호	뜻풀이	용례
1312418	표동 가-개통	명사	2	통신에서, 단말기 판매점 따위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전에 미리 제삼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는 일.	정통부는 또 업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실제 가입자를 부풀려 개통시키는 (가개통)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가개통) 일상은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장려금 회수와 대리점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세 제품과 다음달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중고 시장에서 최대 반값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이동 통신 대리점에서 (가개통) 후 약정 계약을 해지한 뒤 기기만 판매하는 경우다.
1312419	표동 가개통-하다	동사	2	통신에서, 단말기 판매점 따위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전에 미리 제삼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다.	○ 씨는 휴대폰을 (가개통해) 가입자 수를 늘린 다음 OO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왔다. 정통부는 이 밖에 저가 단말기의 확보를 목적으로 대리점들이 직원 등의 명의로 불법 (가개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1월 이후 업체들과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837982	표동 가-건축물	명사	1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는 3층 이상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나 견본 주택, 재해 복구용 (가건축물도) 일반 건축물처럼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청도군이 공유 재산으로 매입한 폐교 부지에 (가건축물)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폐교 활용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533195	표동 가-결산	명사	1	회계 기간이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을 가정하고 행하는 결산.	올해부터 분기별로 (가결산) 실적이 발표되는데 오는 15월 1/4 분기 실적이 처음 나온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 법인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통해 중간 예납 세액을 내거나 지난해 소득 기준 법인세의 5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95253	표동 가구-업	명사	1	가구를 만들고 파는 일과 관련된 일을 벌이는 사업.	아이엠에프(IMF) 사태 때 한국에서 (가구업) 하던 아버지를 따라 남아공에 온 그는 한국 원자재를 이용한 고급 액자 등 군돈을 벌고 있다.
728156	표동 가구-업체	명사	1	<sense_no>758771</sense_no>가구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품질은 우수하지만 해외 영업력이 취약한 (가구업체가) 협력, 선진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945613	표동 가-대본	명사	1	영화, 연극, 드라마 따위에서, 임시로 쓴 대본.	이들은 대회를 위해 수십 번의 아이디어 회의와 10여 개의 (가대본) 거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대본을 시작했었다. 며칠 전 최종회 (가대본) 나왔지만 작가와 제작사 모두 OOO의 생존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다.
533032	표동 가-동그라지다	동사	1	가다가 넘어져서 구르다.	토끼는 포수가 쓴 한 방에 그대로 (가동그라졌다).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가동그라진) 그는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가행-로	명사		동맹이나 연맹, 단체 따위에 들기 위해 지불하는 돈.	또한 신규 개원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가맹로) 수입 증가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혔다. 프로 야구팀을 인수하는 기업 측에 300억 원의 (가맹로) 면제와 같은 제도적 보장을 하면 적자 구단을 인수하

<그림 3>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 2.1.2. 사전 원고 보완

### 가. 사전 원고 보완 및 집필

○ 우리말샘 등재 어휘의 사전 원고 보완 작업은 다음의 내용과 절차에 따랐다.

- ‘표준 추가 표제어 후보’ 어휘 목록을 토대로 ‘집필원고’ 양식(엑셀)에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sup>2)</sup>에 따라 사전 원고 내용을 작성한다.
- 《말샘》의 미시구조(표제어 표기, 구성단위,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뜻풀이 등)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용례는 우리말샘의 용례를 토대로 1~2개의 예구 또는 예문의 작성례로 수정하여 입력한다.
- 작업자 간의 엑셀을 통합하는 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엑셀의 행열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행열의 ‘숨기기’는 할 수 있으나 제출 시에는 ‘숨기기 취소’를 반드시 한 후 제출한다.

○ ‘집필원고’(엑셀)의 1차 작성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엑셀 양식을 바탕으로 《말샘》의 미시구조(표제어 표기, 구성단위,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뜻풀이 등)를 그대로 입력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집필 지침」, 「편찬지침\_표준국어대사전(2022년 8월 버전)」을 가리킴.



- ② 용례는 우리말샘의 용례를 토대로 1~2개의 예구 또는 예문의 작성례로 수정하여 입력한다.

• 용례 작성 지침

- ① 용례는 ‘구 용례’와 ‘문장 용례’를 제시한다. 적당한 구 용례가 없을 경우 문장 용례만 1개 제시한다.
- ② 문장 용례는 《말샘》의 용례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 ③ 체언은 조사 결합형이 드러나도록 용례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 ④ 용언은 용언의 활용형이 드러나도록 용례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 ⑤ 성적인 표현/성차별적인 표현, 어려운 어휘는 순화하여 제시한다.
- ⑥ 고유명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정하여 제시한다.
- ⑦ 어려운 문장은 쉬운 문장으로 바꿔서 제시한다.
- ⑧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정하여 제시한다.

○ 원고 집필 일정

<표 9>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원고 집필 일정

	원고 개수	작업 기간
시범 집필 및 피드백	1인당 100-110개	9월
원고 집필	총 520개	9~10월
1차 검토 및 교열	총 520개	10~11월
2차 최종 검토	총 520개	11월

나. 원고 검토 및 최종 완성

○ 원고의 검토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1차 검토: 사전 편찬 경험이 많은 공동연구원 중심의 사전 원고 검토
- 2차 검토: 작업 내용 편차 조정 및 오류 및 오기 수정

○ ‘집필원고’(엑셀)의 1차 검토

- 사전 편찬 경험이 많은 공동연구원이 집필 원고 전수 검토
- 용례 중심의 검토
- 《표준》에 적합한 용례를 제시하도록 수정
- 검토 결과는 다시 사전 집필진에게 할당되어 수정

○ ‘집필원고’(엑셀)의 2차 검토

- ‘표제어 분과’의 분과장이 1차 검토 결과에 대한 재검토 실시
- 작업 내용 편차 조정 및 오기 최종 확인

○ 《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후보 어휘에 대하여 집필이 완료된 사전 원고는 엑셀 파일의 형태로 별도 제출한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 최종 선정된 어휘 520개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 2.2. 《우리말샘》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원고 집필

### 2.2.1. 《우리말샘》 추가 표제어 선정

#### 1) 표제어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추가 표제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어휘 자료를 활용하였다.

- 모두의말뭉치 분석 어휘
- 기초어휘말뭉치 분석 어휘
- 소설이나 어휘 사전 등의 자료에서 수집한 어휘(출전 자료 예시: 『삼대』(염상섭),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강판권) 등)
- 고전에서 수집한 어휘(출전 자료 예시: 『신학신설』(지석영), 『쌍천기봉』(낙선재분) 등)
- 1900년대 초반 신문 자료(출전 자료 예시: 1920년대 조선일보)

○ 《말샘》 미등재어 중 다음 어휘는 제외하였다.

- 2017년 표준국어대사전 정비 과제에서 원고 집필한 표제어
-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과제에서 원고 집필한 표제어

## 2) 표제어 선정 기준

○ 수집한 어휘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 모두의말뭉치 고빈도 출현 어휘, 기초어휘 고빈도 출현 어휘를 우선 선정하였다.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 말뭉치 출현 빈도가 높은 전문어는 표제어로 선정하였다.(예: 알츠하이머, 블루 오션)
- 기등재 표제어 또는 추가 표제어의 계열어, 준말이나 원어를 함께 선정하였다.(예: ‘보건부’를 선정한 후 ‘보건 사회부’ 추가 선정, ‘직영화’ 선정 후 ‘직영화되다, 직영화하다’ 추가 선정, ‘보관 문화 훈장’ 선정 후 ‘금관 문화 훈장’ 등 추가 선정)
- 약어, 혼종어, 방언은 말뭉치 출현 빈도가 높은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약어: 보훈처, 국보위 / 혼종어: 캐주얼하다, 스포티하다 / 방언: 기럭지)
- 비표준어는 말뭉치 출현 빈도가 높은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비표준어를 검색하여 표준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예: 돈까스, 짜라시)
- 일부 소설에 나타난 일본어 어원의 외래어는 배제하였으며 모두의 말뭉치 출현 빈도가 1,000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예: 이지메)
- ‘-시키다’형 동사는 배제하였다.

○ 《말샘》 추가 표제어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말뭉치 어휘 기반 선정: 원스톱, 캐주얼, 트러블, 탈북, 돈까스, 캐주얼하다, 보훈처, 상무부, 보톡스, 스포티하다, 교통부, 싱어송라이터, 디테일하다, 프리포즈, 알츠하이머, 칠리, 덕아웃, 수출용, 블루오션, 프로포즈, 짜라시, 경제부, 모더니티, 포크레인, 샐러리, 국무성, 홈리스, 레코딩(모두의말

뭉치 빈도순)

- 소설 어휘 자료 기반 선정: 생속, 서의학, 성기성기, 성지기, 소물소물, 수류화개, 승업다, 원길, 시끌썩하다, 짝둥머리, 알굴, 알뜰, 앙물다
- 고전 어휘 자료 기반 선정: 폐목언와(閉目偃臥), 적국(敵國), 건기(巾箕), 홀연하다, 풍융, 용정(龍庭), 소여(小餘)하다, 한설(閑說), 다천(多舛)하다, 노분(怒憤), 실성운절(失性殞絕), 연화양협(蓮花兩頰)

○ 《말샘》 추가 표제어 목록은 선정 근거 정보와 함께 별도로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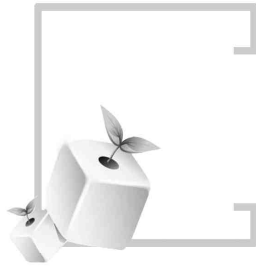
## 2.2.2. 《우리말샘》 추가 표제어 집필

### 1) 원고 집필

- 집필한 원고는 《말샘》 온라인 원고 집필 웹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며 《말샘》의 일러두기를 참고하여 다른 원고들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 《말샘》 온라인 웹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사전 편찬 메뉴의 ‘추가’에서 새 원고를 입력한 후에 1단계 검증 요청을 선택하여 완료한다.
- 비슷한말 등 관련 어휘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경우, ‘수정’을 선택한 후 ‘어휘 지도 편집’에서 어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한다.

### 2) 원고 교차 검토 및 최종 완성

- 표제어 선정 결과 및 작성 원고는 교차 검토를 통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 최종 원고는 온라인 《말샘》에 입력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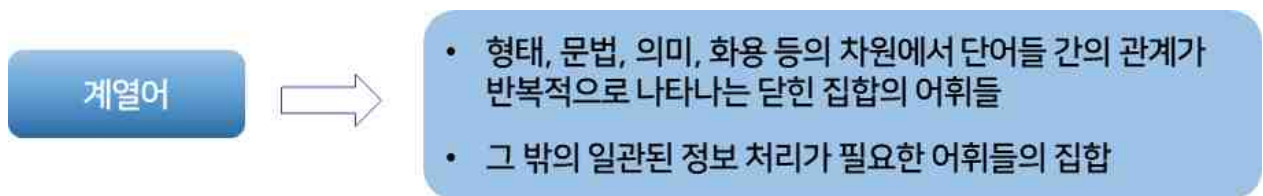
# 사전 정보 일관성 확보 및 현행화



## 제3장 사전 정보 일관성 확보 및 현행화

### 1. 계열어 정비

- 사전에서 ‘계열어’(interrelated words)란 표제어를 다루는 관점 혹은 방법의 하나임.
- 상호 참조적인 단어와 단어의 관계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관계들끼리 묶을 수 있음.
- 이러한 관계에 있는 표제어들의 일관된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계열어’ 단위의 검토가 필요함.



#### 1.1. 계열어 정비 대상 선정

##### 1.1.1. 정비 대상 유형 및 추출 방법

###### ○ 계열어 정비의 우선 검토 대상

-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계열 어휘’ 목록을 재정비 대상으로 삼음. 뜻풀이 형식이나 해당 표제어가 미제시된 경우 등 보완 필요
- 계열어로서의 인식 가능성과 일관성 요구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닫힌집합(십장생, 계이름 등)’을 우선하여 정비
- 자모음 교체에 따른 어감의 차이가 뜻풀이 변별에 중요한 의성·의태어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음.
- 형태 분석 등에서의 체계적 기술을 위해 조사, 어미, 접사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음.

- 다양한 계열어 유형을 추출 및 검토하기 위해, 우선 검토 대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열어 정비 대상 유형을 정하고 추출 방안 마련

<표 10> 계열어 정비 대상 유형 및 추출 방법

유형	추출 방법
(1) 기존 편찬 지침 목록	기존 《표준》 편찬 지침 검토
(2) 의미 범주 계열어	《표준》 DB 추출 기타 자료 검토 채집
(3) 의미 관계 계열어	《표준》 DB 추출 및 검토
(4) 동일 접사 파생어 및 구성성분 공유 합성어(형태 계열어)	《표준》 DB 추출 기타 자료 검토 채집
(5) 의성 의태어	《표준》 DB 추출 및 검토
(6) 문법 형태 (조사, 어미, 접사)	《표준》 DB 추출 및 검토

(1) 기존 편찬 지침 목록

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의 ‘I. 표제어 4-9 계열 어휘’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의 ‘Ⅶ. 뜻풀이 7-7. 계열 어휘’ 부분 목록화

예) “내(來)-’가 들어가는 말’(내일, 내주, 내달 등), ‘장기 짝’(마, 상, 차 등)

나. 추출 대상: 75개 범주

(2) 의미 범주 계열어

가.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하는 계열어를 발굴하여 미시 구조 항목 정비

예) ‘사신(四神)’(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감각점’(냉점, 한점2, 압점, 온점2, 통점, 통각기), ‘장난감’(굴렁쇠, 딸랑이, 바람개비1 등)

나. 추출 방법

ㄱ. 《표준》 DB에서 뜻풀이의 반복적 표현(‘X의 하나’) 검색하여 상위어들의 목록(‘X’)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하위어 추출

ㄴ. 분류사전 등 기존 사전류와 논문, 단행본 등을 검토하여 목록 확보

(3) 의미 관계 계열어

가. 《표준》 DB에서 관련 어휘 정보가 있는 단어를 추출, 계열어 관계를 중심으로 미시 구조의 정보 항목 정비

나. 추출 대상: 타 유형별 계열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관련 어휘 정보 중 다음과 같은 부류를 대상으로 정함.

높임말과 그 짝이 되는 예사말

낮춤말과 그 짝이 되는 예사말

본말과 그 짝이 되는 준말

준말과 그 짝이 되는 본딴말

다. 추출 방법

ㄱ. 뜻풀이 키워드 검색으로 1차 추출(자료 분과에 요청)

\* 키워드 검색: 뜻풀이에 ‘~의 준말’, ‘~의 본말’, ‘~의 높임말’, ‘~의 낮춤말’ 있는 표제어

ㄴ. 1차 목록 검토 후 자료 분과에 보완 요청, 2차 목록 추출

\* 본말, 준말 목록에서 의성 의태어 제외, 제외 단어는 별도 목록화

\* 각 단어의 짝이 되는 표제어를 목록에 보충

예) 꼬임수1: ‘뽕수’의 본말. ⇨ ‘뽕수’를 목록에 보충

(4) 동일 접사 파생어 및 구성성분 공유 합성어(형태 계열어)

가. 동일 접사에 의한 파생어나 구성성분 중 일부를 공유하는 합성어 등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계열어를 발굴하여 미시 구조 항목 정비

예) “-가16(街)’의 파생어’(식당가, 쇼핑가, 방송가 등), ‘<~만장자>’(백만장자, 억만장자, 천만장자), ‘<~만금>’(백만금, 억만금, 천만금 등)

나. 추출 방법

ㄱ. 분류사전 등 기존 사전류와 논문, 단행본 등을 검토하여 목록 확보

ㄴ. 《표준》 DB에서 동일 성분 검색 및 반복적 형태 검색하여 목록 추출



## (5) 의성 의태어

가. 《표준》 DB에서 의성·의태어를 추출 및 검토하여 미시 구조 항목 정비

나. 추출 방법

ㄱ. 뜻풀이 키워드 검색을 통한 1차 추출(자료 분과에 요청)

\* 키워드 검색: ‘~(느)ㄴ 모양.’, ‘~(느)ㄴ 소리.’, ‘(느)ㄴ 소리. 또는 그 모양.’, ‘~(느)ㄴ 상태.’, ‘~(느)ㄴ 느낌.’, ‘~(느)ㄴ 느낌을 준다.’, ‘~(느)ㄴ 느낌이 ... 들다’, ‘~(느)ㄴ 소리를 ... 내다’, ‘~(느)ㄴ 소리가 ... 나다.’ 등으로 뜻풀이가 끝나는 말, 그리고 이들과 어근을 공유하는 표제어 전체

ㄴ. 1차 목록 검토 후 자료 분과에 보완 요청, 2차 추출

\* 원어 확인 및 고유어가 아닌 것 삭제

표제어가 ‘○○소리’인 것, ‘○○풀’인 것 삭제

‘반복형 어근+ -하다’ 보충

부사가 아닌 ‘단독형 어근’을 어근으로 하는 단어 보충

‘○○거리다’, ‘○○대다’만 추출되어 있는 경우, ‘○○’과 그 반복형을 어근으로 하는 단어 모두 보충 등

ㄷ. ‘의미 관계 계열어-본말, 준말’에서 제외된 의성 의태어 검토 및 보충

다. 타 유형별 계열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의성 의태어(2만여 개 이상) 중 일부만 검토 고려

## (6) 문법 계열어

가. 《표준》 DB에서 문법 형태소인 ‘조사·어미·접사’ 전체를 추출하여 문법 정보, 뜻풀이 등 미시 구조 항목 정비

### 1.1.2. 정비 대상 선정 및 분배

#### 1) 정비 대상 선정

○ 일부 유형의 경우는 추출한 계열어에 대하여 유형별 선정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총 1만여 개를 본 과업의 최종 작업 대상으로 삼았다.

## ○ 유형별 선정 기준

### (1)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작업 대상 선정

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의 ‘I. 표제어 4-9 계열 어휘’와 편찬 지침 II의 ‘VII. 뜻풀이 7-7. 계열 어휘’ 부분에서 작업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을 선정

예) <지지(地支)+ 월(月)>

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없으나 이와 관련성이 높아 함께 작업해야 할 표제어(174개)의 목록을 추가로 발굴, 선정<sup>3)</sup>

예) <지지(地支)+ 해/-년(年)>, <지지(地支)+ 날/-일(日)>

### (2) 의미 범주 계열어 및 형태 계열어 작업 대상 선정

가. 제안서 및 착수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 어휘

나. 등급을 이루는 것이 분명한 어휘

예) ‘일/이/삼+○’, ‘상/중/하+○’ 등

다. 단힌 집합의 어휘

예) 육십갑자(六十甲子)에 속하는 60개의 어휘

라. 전문어일지라도 일반어에 가까워 삭제 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것

예) ‘개띠’(민속), ‘덧셈’(수학), ‘바이올린’(음악), ‘후각’(의학)

마. 형태 계열어의 경우: ‘뜻이 두 가지 이상인 접사’에 의한 파생어

예) ‘-가(街)’로 끝나는 말.(‘-가(街)’는 ‘거리’ 또는 ‘지역’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바.<2022년 표준국어대사전개편사업\_전문어검토보고서\_통합(221208)>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계열어

예) 윗놀이 관련어

사. ‘X의 하나’라는 뜻풀이 형식을 이용하여 상위어를 추출하고 해당하

3) 작업자 제공 시에는 ‘기존 편찬지침 목록(1-1 관련 추가)’이라 하여 별개 엑셀 파일로 분배하였지만, 정비 작업, 세부 지침 작성, 작업보고서 작성, 통계자료 등 계열어 정비의 모든 과정에서 ‘기존 편찬 지침 목록’에 포함하여 다룬다.

는 어휘의 목록을 만들되, ‘~X.’ 형식 등도 고려하여 목록 작성  
 예) ‘어린이 놀이의 하나.’, ‘~는 어린이 놀이.’, ‘아이들 놀이의 하나.’,  
 ‘~는 아이들 놀이.’

### (3) 의성 의태어 작업 대상 선정

가. 다음과 같은 조어상의 특징을 가진 말들을 의성 의태어로 다룬다.<sup>4)</sup>

ㄱ.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하여 어휘를 만들어 낸다.

ㄴ. 반복에 의하여 어휘를 만들어 낸다.

ㄷ.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가 붙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낸다.

나. 의성 의태어는 모두 고유어이다.

다. 다음과 같은 품사를 대상으로 한다.

ㄱ. 동사, 형용사, 부사, 어근(품사 없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들어간 품사통용어 포함)

ㄴ. 명사<sup>5)</sup>, 대명사, 의존명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 접사, 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의성 의태어 어근(반복형 포함)에 ‘-하다, -히(-이), -거리다, -대다, -이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도 작업 대상에 포함한다.

마. 의성 의태어 이외 ‘자모음 교체로 어감이나 의미가 달라지는 말’은 포함하지 않는다.<sup>6)</sup>

예) 게으르다/개으르다: 불포함

ㄱ. 단, 반복형 어근이 ‘~상태, ~느낌, ~모양, ~소리’로 풀이된 것과 이와 어근을 공유하는 말은 포함한다.

ㄴ. 유사 음상의 반복형으로서 ‘~상태, ~느낌, ~모양, ~소리’로 풀이되지만, 특정 어휘군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 가리산-지리산 「부사」 이야기나 일이 질서가 없어 갈피를 잡지

4)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Ⅱ, 445p 참조.

5) 단, <능청(01)>과 같이 명사이더라도 의성 의태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작업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들은 매우 소수이므로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자가 추가한다.

<예> 능청1 「명사」 속으로는 영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태도.

능청-능청2 「부사」 속으로는 영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자꾸 행동하는 모양.

6) 자모음 교체를 보이는 표제어란, 의성 의태어 이외에도 ‘간지럼, 근지럼’, ‘번정다리, 뽕정다리’, ‘아이코, 아이코, 어이코, 어이코’, ‘움켜잡다, 움켜잡다’와 같이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를 통해 어감의 차이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표제어들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Ⅱ, 446p). 이들은 추후에 별도로 유형화하여 계열어 정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못하는 모양 : 불포함

바. 비규범어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 깔딱3 「부사」 → 딸꾹.: <깔딱3> 불포함

사. 의성 의태어의 준말, 본말도 작업 대상에 포함시킨다.

예) 끼룩룩 「부사」 기러기나 갈매기 따위의 새가 우는 소리.: 포함

끼룩1 「부사」 ‘끼룩룩’의 준말.: 포함

아. 일부를 작업 대상으로 선정할 때는 ‘여린말-센말-거센말’을 이루는 자음 교체를 반드시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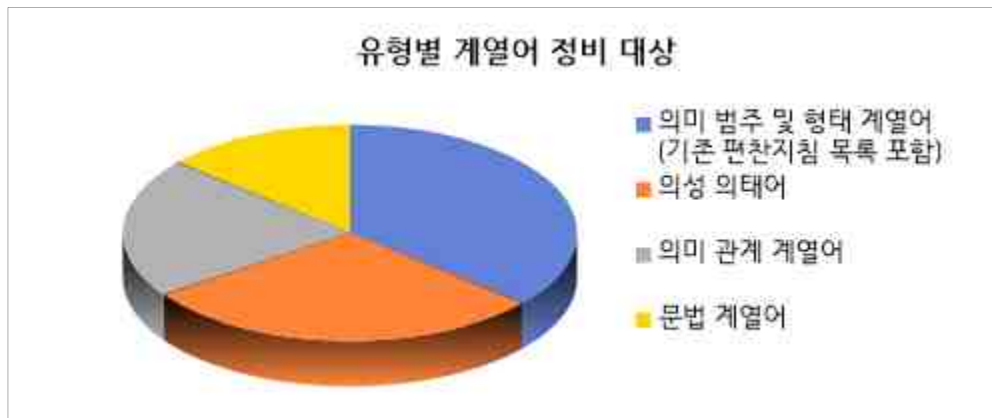
예) ‘ㄱ, ㄴ, ㄷ, ㄹ, ㅁ...’

▷ ‘ㄱ, ㄲ, ㅋ’, ‘ㄷ, ㅌ, ㅌ’, ‘ㅂ, ㅃ, ㅍ’, ‘ㅈ, ㅉ, ㅊ’, ‘ㅅ, ㅆ’은 각각 한 단위로 다루어 선정

○ 이상의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한 계열어 정비 대상의 유형별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11> 유형별 계열어 정비 대상 개수

유형		개수	비고
의미 및 형태 계열어	기존 편찬 지침 목록	1,127	해당 부류 전수 검토
	의미 범주 계열어	1,723	
	의미 관계 계열어	2,300	높임말, 낮춤말, 본말, 준말과 그 짝 전체
	동일 접사 파생어, 구성성분 공유 합성어 (형태 계열어)	937	
	의성 의태어	2,960	ㄱ, ㄲ, ㅋ, ㄴ 자모
문법 계열어	조사	180	해당 부류 전수 검토
	어미	797	해당 부류 전수 검토
	접사	531	해당 부류 전수 검토
총계		10,555	



<그림 4> 유형별 계열어 정비 대상

## ○ 계열어 정비 대상 확정 시 유의점

### ① 계열어 목록의 다양성과 균형성 고려

- 계열어 목록의 다양성 및 유형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개수 조정

### ② 《표준》 등재 여부 확인

- 본 과업의 계열어 정비 과정에서 발견하여 제안되는 표제어 추가·제외 의견은 엑셀에 메모

### ③ 표제어 선별 삭제 제외

-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개편 사업’의 ‘표제어 선별 작업 결과’와 대조하여 삭제/유지 확인, ‘삭제’인 것은 정비 대상 개수에서 제외

### ④ 표제어 ID 부과

- 체계적 목록 관리 및 타 분과와 결과물의 효율적 공유를 위해 ID 부과

## 2) 작업 분배

### ○ 하나의 유형은 되도록 한 명의 연구원에게 분배

- 세부 지침 작성 부담이 높고 전체 개수가 많은 유형(기존 편찬 지침 목록, 의미 범주 계열어)은 예외로 2인 분배

### ○ 참여율, 작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적절히 분담

## ○ 분배 내역

<표 12> 유형별 분배 내역

유형		개수
의미 및 형태 계열어	① 기존 편찬 지침 목록	685 442
	② 의미 범주 계열어	868 855
	③ 의미 관계 계열어	2,300
	④ 동일 접사 파생어, 구성성분 공유 합성어 (형태 계열어)	937
	⑤ 의성 의태어	2,960
문법 계열어	⑥ 조사 (180개), 어미 (797개)	977
	⑦ 접사	531
총계		10,555

## 3) 정비 절차 및 일정

○ 계열어 정비 작업은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표 13> 계열어 정비 작업 절차

작업 내용		일정
계열어 추출 및 목록화		4~5월
유형별 계열어 목록 확정		4~5월
계열어 정비 일반 원칙 및 작업 지침 마련		5월
연구원 대상 검토 작업 교육		6월
시범 작업 및 결과 검토		6월
사전 정보 수정	1차 정비	6~8월
	2차 정비	9~10월
최종 검토 및 정리		10~11월

## 1.2. 계열어 정보 수정

### 1.2.1. 정비 작업 내용 및 방법

○ 계열어 정비와 관련된 정비 지침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 계열어 정비 지침(일반 원칙): 계열어 정비 작업 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
- 계열어 정비 지침(작업 지침): 계열어 정비의 실제 작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작업 방식 및 작업 결과 기록 방식
- 계열어 정비 지침(세부 지침): 계열어 정비 시 사전 정보 수정과 동시에 작성되는 계열어 부류별 지침. 작업자가 작성하며, 계열어 유형에 따라 작성 유무와 형식이 다름

## 1) 일반 원칙

○ 계열어를 정비할 때 따라야 할 ‘계열어 정비 지침(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일반 원칙

1. 계열어 정비 지침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을 상위의 지침으로 둔다. 계열어 정비는 계열어의 단위로 표제어를 검토하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라 사전 정보를 수정한다.
2. 해당하는 표제어에서 계열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미시 항목을 정비 대상으로 한다.
  - ☞ 원어, 발음, 활용, 용례, 관용구 및 속담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문법 계열어는 문법 정보, 뜻풀이, 관련어 정보(이형태 등 참고어 포함)를 주요 정비 대상으로 한다.
  - ☞ 문법 계열어 이외의 계열어는 전문어 영역, 뜻풀이, 관련어 정보(참고어 포함)를 주요 정비 대상으로 한다.
3. 다의어의 경우, 여러 뜻풀이 중 계열어를 이루는 뜻풀이와 그와 관련된 미시 정보 항목을 정비 대상으로 한다.

<예> ‘돌아가다’ 「동사」 「1」 ~ 「8」 ((주로 ‘-시-’와 결합한 꼴로 쓰여)) ‘죽다’의 높임말.

  - ☞ ‘돌아가다’와 ‘죽다’는 의미 관계 계열어를 이루는데, 해당 계열 관계는 ‘돌아가다’의 여러 뜻풀이 중 「8」에만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만 정비 대상으로 한다.

4. 부표제어와 동의어를 계열어 목록에 포함한다.

☞ '딱지치기'가 계열어 목록에 있다면, 부표제어인 '딱지치기하다'도 목록에 포함한다.

☞ '추석(秋夕)'이 계열어 목록에 있다면, 동의어인 '추석날, 한가위, 한가윗날' 등도 목록에 포함한다.

5. 계열어 정비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되어야 할 표제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삭제되어 할 표제어를 확인하고 관련 분과에 전달한다.

<예> 갑년(甲年), 을년(乙年), 병년(丙年), 정년(丁年), 무년(戊年), 기년(己年), 경년(庚年), □, 임년(壬年), 계년(癸年)

☞ '신년(辛年)' 표제어 추가 필요

7. 계열어의 유형에 따라 계열어의 각 분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부 지침 작성: <형태 계열어(동일 접사 파생어 및 구성성분을 공유하는 말)>, <의미 범주 계열어>, <기존 편찬 지침 목록>의 경우 계열어의 각 부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한다. 단, 형태 계열어 중 <의성 의태어>는 어휘군을 모아 표만 보이는 방식으로 세부 지침을 작성한다.

☞ 세부 지침 미작성: 의미 관계 계열어, 문법 계열어는 세부 지침을 작성하지 않는다.

## 2) 작업 방법

○ 계열어를 정비할 때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과 '계열어 정비 지침(일반원칙)'에 따라 계열어를 정비하며,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계열어 정비 지침(작업 지침)'을 따른다. 여기서는 작업 지침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이 기록된 '계열어 정비 지침(작업 지침) 파일'(한글)은 별도로 제출한다.

7)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2000), 「편찬지침1, 2\_표준국어대사전(2023년 1월 버전)」을 가리킴.



## ○ 작업 개요



<그림 5> 계열어 정비 작업개요

- 작업자는 배분된 계열어 목록의 보완, 해당 계열어 부류의 세부 지침 마련(일부 유형), 《표준》의 해당 표제어 정보(뜻풀이 등) 수정을 동시에 수행. 또한 작업 과정에서 《표준》에 없는 표제어의 추가나 기존 표제어의 제외를 제안
- 정비 작업을 완료한 후에 완료 및 수정 항목 개수, 추가 및 제외 표제어 상세 목록, 정비 작업 중 문제가 된 점 등 작업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 결과물과 함께 제출

### (1) ‘작업결과’(엑셀)의 작성

#### ① 관련 작업: 계열어 목록 보완

- “계열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열: 해당 계열어 묶음의 분류 명칭 기록
- “해당 뜻갈래 번호” 열: 누락 시에만 보충 (해당 행의 모든 수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기 적은 뜻갈래에 대한 수정임.)
- “전문어 영역” 열: 누락 시에만 보충
- “목록 추가/제외/변경” 열
  - 작업 대상 아님 ⇨ 제외

- 동일 표제어 중복인 경우, 제외하는 행 ⇨ 제외(중복)
- 《표준》에서 제외 필요하므로 작업 대상에서도 제외 ⇨ 제외(삭)
- 《표준》에 있는 단어이나 제공 목록에 없고 작업 대상으로 판단  
⇨ 추가 \* 이 경우, 작업자가 엑셀에 직접 행 추가하여 작업
- 제공된 1차 목록의 대분류를 재분류하는 경우 ⇨ 변경

## ② 관련 작업: 유형별 계열어 정비<sup>8)</sup>

- “검토 완료” 열:
  - 검토 작업을 마친 표제어(목록 ‘추가’한 표제어 포함) ⇨ ○
  - 목록 ‘제외/제외(중복)/제외(삭)’,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가 ‘삭제’인 것 등 작업하지 않은 경우 ⇨ 빈칸으로 둬.
- “표제어 추가/삭제” 열:
  - 《표준》 미등재어이나 추가 제안 ⇨ (추가)○○○○
  - 《표준》 미등재어이나 추가 검토 제안 ⇨ (추검)○○○○
  - 《표준》의 기존 표제어 뜻갈래 추가 제안 ⇨ (뜻추)○○○○
  - 《표준》의 기존 표제어 뜻갈래 삭제 제안 ⇨ (뜻삭)○○○○ 「」
  - 《표준》의 기존 표제어 제외 제안 ⇨ (삭제)○○○○

계열어 대분류	계열어	소속	ID	성정보	동원	문어	영	뜻풀이	분과	검토	완료	가/제외	추가/삭	메모	사전 수정 항목	수정 내용(뜻)	수정 내용(전문)	수정 내용(관련)
악기명	국악기	삼현(三)	3018	가야-금	『음악』	우리나라 일반	○								뜻	전통 현악기의 하나. 삼현 가운데 하나로, 오동나무로 된 긴 공명판 위		
악기명	국악기		80975	단소(04)	『음악』	우리나라유지	○								뜻	전통 관악기의 하나. 오래된 대로 만들며 통소보다 짧고 가늘며 구멍		
오감(五感)			387017	평형^감각	『의학』	눈으로 보일반						제외						
날개			343455	짚신-딱	『1』	「1」 짚신의 날개	○					추가	(추가)날개	날짜'이 표	뜻	짚신의 날개.		
계절(季節)과	<한-+{사계절}		396527	한-가을		「1」한창	#N/A	○							뜻, 관련(비슷)	한창 무르익은 가을.		「비슷한말」삭제
계절(季節)과	<[사계절]+>		361025	춘추-북		봄철과 7	#N/A	○					(추검)봄가을					
한글 자모			1	ㄱ	『언어』	한글 자도 일반	○								뜻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기억'이라		
																이르며, '가'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놀이	어린이 놀이		205296	수부-희	『1』	『불교』 「1」음력 보름	○								뜻, 전문	어린이 놀이의 하나. 음력 사월 초	『민속』	
오대양			287195	인도-양	『지명』	오대양의 유지	○								전문	파일 관등절 때에 아이들이 못에,	『해양』	
가위바위보			126286	목찌빠		가위바위 #N/A	○					(추검)목, 찌, 빠						
우리나라 명조한식			397370	한식(02)		우리나라 #N/A	○								전문		『민속』	

<그림 6> 사전 정보 수정 작업 예시

- “사전 수정 항목” 열: 수정한 미시 항목명 기록
  - 뜻풀이 수정 ⇨ 뜻

8) 당초 예정이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상의 작업은 보류하고 엑셀 파일상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전문어 영역 수정 ⇨ 전문
- 관련어 정보 수정 ⇨ 관련(동의), 관련(준말), 관련(참고) 등
- 문법 정보 수정 ⇨ 문법
- 여러 가지 항목을 수정한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기록  
⇨ 뜻, 전문, 관련(참고) 등
- “수정 내용(뜻)” 열: 뜻풀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이후의 뜻풀이 전체 기입, 수정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 “수정 내용(전문)” 열: 수정 이후의 전문 영역 기입 ⇨ 『해양』 등
  - 전문어를 일반어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 일반
- “수정 내용(관련)” 열: 관련어 종류명과 함께 기입  
⇨ 「높임말」 도련님 등
-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 ⇨ 「비슷한말」 삭제
- “수정 내용(문법)” 열: 문법 정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이후의 문법 정보 전체 기입, 수정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 “메모”: 작업 시 메모 사항을 자유롭게 기록

### ③ ‘작업결과’(엑셀)의 작성 시 유의사항

- 색이 없는 열은 작업을 위한 참고 정보가 담긴 열임.
- 제목 줄이 녹색인 열만 작업자가 보완 및 작성하는 열임.
  - \* 해당 열: “계열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해당 뜻갈래 번호”(누락 시 보완), “전문어 영역”(누락 시 보완), “검토 완료”, “목록 추가/제외/변경”, “표제어 추가/삭제”, “메모”, “사전 수정 항목”, “수정 내용(뜻)”, “수정 내용(전문)”, “수정 내용(관련)”, “수정 내용(문법)”
- “계열어 작업 유형”, “ID”, “표제어(구성정보)+ 동형어번호” 열은 절대 수정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 열(형광색 열)을 필터링하여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표제어를 작업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예외로, ‘의성 의태어’는 필터링 없이 주어진 목록 전체를 작업.
  - “목록 추가/제외/변경” 열에 ‘목록 추가’ 시 “표제어분과 검토” 열

에서 삭제로 선별된 단어가 아닌지 확인 후 추가.

-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가 ‘삭제’이더라도 계열어 정비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단어라면 해당 열의 메모 등을 통해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가 ‘삭제’이더라도 해당 행에 유의미한 “메모”가 작성되었을 수 있음. “메모” 내용 검토 시 반드시 “표제어분과검토 결과” 열의 필터링을 없앤 후 확인.
- “목록 추가/제외/변경” 열과 “표제어 추가/삭제” 열의 구별에 유의.
  - “목록 추가/제외/변경” 열은 현재 작업하는 목록에 관한 것임. 《표준》 등재에 대한 것이 아님.
  - “표제어 추가/삭제” 열은 《표준》 등재에 관한 처리 의견임. 현재 작업 목록에 대한 것이 아님.

## (2) 계열어 세부 지침 (한글 파일)의 작성

세부 지침을 작성하는 계열어 유형은 아래와 같음. ‘의미 관계 계열어’와 ‘문법 계열어’는 각각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Ⅱ>의 ‘VI. 관련 어휘’ 부분과 ‘IV. 뜻풀이’의 ‘6-8. 문법 형태’, ‘6-10. 접사’ 등에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 지침을 작성하지 않음.

### ① 해당 작업 유형: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의미 범주 계열어, 형태 계열어

<표 14> 형태 계열어 세부 지침의 예시

#### ◎ <~중창(重唱)>

##### 1) 이/삼/사...+중창(重唱)

###### ① 형식 풀이

가) <○ 사람이 각각 다른 성부(聲部)를 맡아서 부르는 중창.>과 같이 풀이하고, 부가 설명을 제시한다.

나) 『음악』 전문어로 처리한다.

###### ② 대표 풀이: 이중-창(01)(二重唱) 「명사」 「1」 『음악』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성부(聲部)를 맡아서 부르는 중창. 「참고 어휘」 듀엣(duet).

\* 예외: 중창(03)(重唱) 「명사」 『음악』 몇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부(聲部)를 맡아 노래함. 또는 그런 노래. 이중창, 삼중창 따위가 있다.

###### ③ 해당 표제어: 이중-창(01)(二重唱)[이부^합창(二部合唱)] 「2」, 삼중-창(三重唱)[테르체

토], 사중-창(四重唱), 오중-창(五重唱), 육중-창(六重唱), 칠-중창(七重唱)<sup>9)</sup>, 중창(重唱).

- 대분류(◎), 중분류(1)), 소분류(1-1)) 등 층위에 따라 작성하되, 계열어를 이루는 특정 형태 범주나 특정 의미 범주 등의 부류별 명칭을 분류명으로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내(來)’로 시작하는 말, 육십갑자(六十甲子), <-가(街)>

- **형식 풀이**: 공통된 풀이를 형식화하여 보임.
  - 계열어의 정의항은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시 부가 설명을 정의항 다음에 제시
  - 유개념의 기술 방식은 여러 기술 방식을 검토하여 단일화하되, 단일화가 곤란한 경우 최소의 유형으로 제한하여 체계화함.
- **대표 풀이**: 형식 풀이를 대표 표제어에 적용한 예시를 보임.
  - 표제어, 동형어 번호, 원어, 품사, 뜻풀이 번호, 전문어 영역, 문법 정보, 뜻풀이, 관련어 정보를 보이고, 계열어와 관련된 항목이 더 있다면 추가로 보임.
- **해당 표제어**: 해당 계열어 부류에 속하는 표제어의 목록을 보임.
  - 자모순으로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순서를 이루는 계열어는 그에 따라 보임.
  - 표제어(구성정보), 동형어 번호, 원어, 뜻풀이 번호를 포함. 원어명(독일어, 라틴어 등)은 보이지 않음. 동의어는 [ ] 기호 안에 보임.
- 해당 계열어 부류에 속하지만 뜻풀이나 다른 정보 항목에서 같은 계열의 다른 단어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예외로 기술
- ‘기존 편찬지침 목록’ 유형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있는 풀이 형식을 반영하여 세부 지침을 작성
  - 표제어 목록만 있고 뜻풀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표제어를 검토하여 공통된 풀이 형식을 세부 지침으로 작성
  - 표제어 개별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계열어

9) 계열어 정비 과정에서 뜻풀이, 관련어 정보 등 주요 정비 대상이 되는 미시 항목 이외에 형태 분석, 원어 등의 미시 항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되면, 엑셀의 해당 표제어 열에 메모를 남기도록 한다. ‘이중-창’, ‘칠-중창’은 계열어 정비 작업을 통해 형태 분석의 일관성 검토가 제기된 유형이며, 이러한 예로는 ‘삼중-주’, ‘구-중주’, ‘다섯무-날’, ‘아홉-무날’ 등이 더 있다.

의 공통된 풀이 형식(형식 풀이)를 세부 지침에서 제안

- 기존에 제시된 풀이 형식도 재검토하여 더 나은 풀이 형식을 세부 지침에서 제안할 수 있음
- 해당 표제어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관련된 표제어 목록을 추가하여 보완

## ② 해당 작업 유형: 의성 의태어

- ‘의성 의태어’ 유형의 세부 지침에서는 자모음의 교체 양상을 정리하여 어휘군마다 하나의 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함. 이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자모순으로 떨어진 단어의 수록 여부 확인 용이
  - 어휘군을 한눈에 파악하여 뜻풀이 체계성 제고에 기여
  - 표제어 수정 시 동반 수정 대상 파악 용이

<표 15> 의성 의태어 세부 지침의 어휘군 표 예시

<강장(01)> 계열어 : 30개	작은말			큰말		
	여린말	센말	세고 거센말	여린말	센말	세고 거센말
어근 또는 부사	강장(01)	강짱	강창	경정	깁깁	깁청
어근+-거리다	강장거리다	강짱거리다	강창거리다	경정거리다	깁깁거리다	깁청거리다
(=어근+-대다)	강장대다	강짱대다	강창대다	경정대다	깁깁대다	깁청대다
반복형 어근 또는 부사	강장강장	강짱강짱	강창강창	경정경정	깁깁깁깁	깁청깁청
반복형 어근+-하다	강장강장하 다	강짱강짱하 다	강창강창하 다	경정경정하 다	깁깁깁깁하 다	깁청깁청하 다

- 의성 의태어의 대분류어는 작은말-여린말 중에서 자모순으로 가장 앞서는 어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 왼쪽 위 칸에 대분류어와 해당 계열어에 속하는 표제어의 개수를 함께 기입. 이때 대분류어는 동형어 번호와 뜻갈래 번호를 포함
- 해당 어휘군에 속하는 표제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 표의 항목은 표제어에 따라 변경이 가능
- 작업 시작 시 제공된 <작업대상목록>(엑셀 파일)은 가나다순임에 유

의. 참고어 정보 등을 더 이용하여 <작업대상목록>을 보충하고 세부 지침을 작성

- 세부 지침의 표에 속하는 표제어는 <작업대상목록>의 표제어와 일치해야 함.

### 3) 작업 결과의 수정·보완 및 최종 검토 중점 사항

#### (1) 작업 결과물의 형식 검토

- 작업 지침에 맞게 올바른 열에 올바른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참고용 열에 수정 사항 기입 시 수정할 것, “표제어 추가/삭제” 열에는 해당하는 표제어도 함께 기입할 것(삭제 → (삭제)복청선))
- “검토 완료” 열에 ‘○’을 기입하는 경우와 기입하지 않는 경우 구별(목록 ‘추가’한 단어들도 “검토 완료” 열 ‘○’ 기입, 목록 ‘제외/제외(삭)/제외(중복)’인 경우는 미기입)
- 목록 ‘추가’한 표제어의 경우 붙임표와 어깨번호의 괄호까지 정확히 기입(부정확 시 ID를 추가할 때 오류 발생함)
- 메모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는 동일한 형식으로 기술하여 남길 것(추후 검색 용이).
- 세부 지침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대표 풀이의 전문 영역 제시 여부, 해당 표제어 제시 순서 등), 형식 풀이와 그것이 적용된 대표 풀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수정할 것.
- 작업보고서에 《표준》 추가/제외를 제안한 표제어의 상세 목록 기재 요망

#### (2) 작업 결과물의 내용 검토

- 목록 ‘추가’한 표제어가 ‘표제어분과 선별 결과’ 삭제인 단어가 아닌지 확인할 것.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위배되는 부분 점검할 것.

- 뜻풀이에 포함된 단어를 관련 어휘로 다시 제시한 것 수정
- 표제어가 ‘준말’의 정의에 맞는지 확인(가래질꾼-가래꾼 등)
- 계열어 간 상호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한쪽에 누락된 경우 보충
- 세부 지침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완
- 세부 지침에서 하위 분류가 더 필요한 경우 보완

### (3) 최종 검토 사항

- 목록 ‘추가’된 표제어 ID 부과
- 배부된 엑셀 파일의 유형별 통합
- 작업 개수 재확인(엑셀 파일 - 보고서 대조)
- 세부 지침 형식 통일하여 정리
- 작업보고서 및 엑셀 파일 정리

## 1.2.2. 정비 작업 결과

### 1) 유형별 작업 결과

○ 총 10,972개 표제어의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2,493개의 표제어의 미시 항목을 수정하였다(수정 비율 23%). 작업 결과 파일(엑셀)과 세부 지침 작성 파일(한글), 유형별 작업보고서(한글)는 별도로 제출한다.

○ 유형별 계열어 정비 작업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유형별 계열어 정비 결과

작업유형	배분 개수	완료 개수	항목별 표제어 수정			수정 표제어 개수 <sup>10)</sup>	수정 비율 <sup>11)</sup>	메모 개수
			뜻	전문	관련			
기존 편찬 지침	1,127	1,192	639	51	121	704	62%	197
의미 범주	1,723	1,830	847	16	121	902	49%	141
의미 관계	2,300	2,308	40	6	63	102	4%	80



형태 <sup>12)</sup>	937	970	451	21	56	474	49%	102
의성 의태어	2,960	3,164	215	-	12	228	7%	114
문법	조사	180	180	17	문법 2	17	9%	20
	어미	797	797	21	문법 32	47	6%	35
	접사	531	531	7	문법 12	19	4%	22
총계	10,555	10,972	2,237	전문94 문법46	373	2,493	23%	711

- ‘의성 의태어’, ‘문법 계열어’는 집필 단계부터 해당 부류 상세 집필 지침 따라 기술된 유형이므로 수정 비율이 낮음.
- ‘의성 의태어’ 유형의 수정 비율은 7%이지만, <ㄱ, ㄴ, ㄷ, ㄹ>만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 의성 의태어(2만 개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면 남은 수정 대상 표제어의 수는 1,000여 개 이상으로 예상.
- ‘의미 관계 계열어’는 배분 개수의 절반이 ‘X’의 높임말/낮춤말/본말/준말’ 형식으로만 풀이되므로 정보량이 적어 수정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의미 범주 계열어’, ‘형태 계열어’ 유형의 수정 비율이 높은 이유는 ① 기존에 이들 단위별 검토의 미진행, ② 수정 가능성 높은 목록의 선정.

○ 의미 관계 계열어의 상세 작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의미 관계 계열어 작업 상세 결과

작업유형		배분 개수	완료 개수	항목별 표제어 수정			수정 표제어 개수	수정 비율	메모 개수
				뜻	전문	관련			
의미 관계	낮춤말	95	95	5	-	-	5	5%	9
	높임말	341	340	21	2	19	42	12%	22
	본말	145	146	2	-	5	6	4%	5
	준말	1,719	1,727	12	4	39	49	3%	44
총계		2,300	2,308	40	6	63	102	4%	80

○ 계열어 단위 검토를 통해 표제어의 미시 항목을 정비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유형별).

10) ‘수정 표제어 개수/완료 개수\*100’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11) ‘수정 표제어 개수’는 항목이 아닌 수정된 표제어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하나의 표제어에서 뜻, 전문어, 관련어의 세 미시 항목을 수정한 경우라도 1개로 세었다.

12) ‘동일 접사에 의한 파생어, 구성성분을 공유하는 합성어’를 표에서 편의상 ‘형태’로 표기하였다.

<표 18> 계열어 정비 사례

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동일 계열어 비교)
기존 편찬 지침 목록	<b>포2(包)「명사」</b> ‘包’ 자를 새긴 장기짜. 한 편에 둘씩 넷이 있고 다른 장기짜 하나를 넘 어 다닌다.	<b>포2(包)「명사」</b> 『체육』 ‘包’ 자를 새 긴 장기짜. 한 편에 둘씩 <u>모두</u> 넷이 있고 다른 장기짜 하나를 넘어 다닌 다.	
의미 범주 계열어	<b>영-의정(領議政)「명사」</b> 『역 사』 조선 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품계로 서 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b>좌-의정(左議政)「명사」</b> 『역 사』 조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 고 일반 정치 및 외교의 일 을 맡아 하던 정일품 벼슬. 우의정의 위, 영의정의 아래 이다  <b>우-의정(右議政)「명사」</b> 『역 사』 조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한 정일품 벼슬.	<b>영-의정(領議政)「명사」</b> 『역사』 조 선 시대에, 의정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u>정일품이며, 서정(庶政)을</u> <u>총괄하는 최고의 지위이다.</u> <u>삼정승</u> <u>(三政丞)의 하나로, 아래에 좌의정</u> <u>과 우의정을 두었다.</u>  <b>좌-의정(左議政)「명사」</b> 『역사』 조 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백관 (百官)을 통솔하고 <u>정치 및 외교</u> <u>등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u> 품계는 정일품이며 <u>삼정승(三政丞)의 하나</u> <u>로, 우의정의 위, 영의정의 아래이</u> <u>다.</u>  <b>우-의정(右議政)「명사」</b> 『역사』 조 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u>백관</u> <u>(百官)을 통솔하고 정치 및 법률</u> <u>등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u> 품계는 정일품이며 <u>삼정승(三政丞)의 하나</u> <u>로, 좌의정의 아래이다.</u> 「참고 어 휘」영의정.	
의미 관계 계열어	<b>외-할아버지(外할아버지)「명사」</b> 어머니의 <u>친정아버지</u> 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b>외-할아버지(外할아버지)「명사」</b> 어 머니의 <u>아버지</u> 를 이르는 말.	친-할아버지(親할아버지) 「명사」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형태 계열어	<b>해일^경보(海溢警報)「명사」</b> 『해양』 기상 경보의 하나. 해 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될 때 기상청에서 미리 경고 하는 일이다.	<b>해일^경보(海溢警報)「명사」</b> 『지구』 기상 경보의 하나. 해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u>때에 기상청에서</u> <u>미리 발표한다.</u> 「참고 어휘」해일 주의보.	호우^경보(豪雨警報)「명사」 『지구』 기상 경보의 하나.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에 기 상청어(→에서) 미리 발표

	<p>해일^주의보(海湓注意報)「명사」『해양』 기상 주의보의 하나. 해일의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미리 알리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다.</p>	<p>해일^주의보(海湓注意報)「명사」『지구』 기상 주의보의 하나. 해일의 피해가 예상될 때 <u>기상청에서 미리 발표한다.</u> 「참고 어휘」해일 경보.</p>	<p>한다. 「참고 어휘」호우 주의보. 호우^주의보(豪雨注意報)「명사」『지구』 기상 주의보의 하나. ~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에 기상청어(→에서) 미리 발표한다. 「참고 어휘」호우 경보.</p>
의성 의태어	<p>경동-경동「부사」 「1」 긴 다리로 계속해서 채신없이 가볍게 뛰는 모양. 경동-경동「부사」 「1」 조금 긴 다리로 가볍게 계속해서 뛰는 모양. ‘경동경동’보다 센 느낌을 준다.</p>	<p>경동-경동「부사」 「1」 긴 다리로 가볍게 계속해서 뛰는 모양. 경동-경동「부사」 「1」 <u>긴 다리로</u> 가볍게 계속해서 뛰는 모양. ‘경동경동’보다 센 느낌을 준다.</p>	<p>강동-강동「부사」 「1」 조금 짧은 다리로 가볍게 계속해서 뛰는 모양. 강동-강동「부사」 「1」 조금 짧은 다리로 가볍게 계속해서 뛰는 모양. ‘강동강동’보다 센 느낌을 준다.</p>
문법 계열어	<p>-사오리다「어미」 「1」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2」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의향이나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p>	<p>-사오리다「어미」 「1」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u>견양을 나타내는 어미 ‘-사오-05’에 종결 어미 ‘-리다’가 결합한 말이다.</u> 「2」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의향이나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u>견양을 나타내는 어미 ‘-사오-05’에 종결 어미 ‘-리다’가 결합한 말이다.</u></p>	<p>-사오리까「어미」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종결 어미. <u>견양을 나타내는 어미 ‘-사오-05’에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리까’가 결합한 말이다.</u></p>

- ‘의성 의태어’ 유형의 세부 지침에서는 자모음의 교체 양상을 정리하여 어휘군마다 하나의 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표의 개수는 345개이다.
-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의미 범주 계열어’, ‘형태 계열어’ 유형의 세부 지침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114항목이 작성되었는데, 상세 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19>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의미 범주 계열어, 형태 계열어 세부 지침 항목

기존 편찬지침목록(40항목)		의미 범주 계열어(39항목)		형태 계열어(35항목)	
‘내(來)-’가 들 어가는 말	십이궁(十二宮)	4대 문명 발상 지	삼정승(三政丞)	(초/극/초극)+ 소 / 중 / 대 + 형 (型)	< ○ ○ 공 + 탄 (炭)>
<갑/을/병/정/ 무>+야(夜)>	십이시, 이십사 시	가감승제	소방 공무원	<(○○)손가락/ 발가락>	<○차(次)+부등 식/방정식>
<갑/을/병/정+ 종(種)>	오륜	가위바위보	악기 분류	<(최)상/중/하+ 위(位)+-권(圈)>	<-가(街)>
<갑/을+번(番)>	오복(五服)	감각점	악기명	<(최)상/중/하+ 위(位)>	<-광(狂)>
<지지(地支)>	오성(五聲)	계이름	오감(五感)	<~고(庫)>	<-국(局)>
24절기	오십이위(五十 二位)	계 절 (季 節) 과 관련된 말	오대양	<~괘+식/형>	<-권(券)>
국경일	요일	군 병과	우리나라 명절	<~교+차>	<대 / 중 / 소 + 부 등>
국립공원	월명	군 부서	육대주	<~급(等)>(등급)	<일 / 이 / 삼 + 등 (等)>
기념일 중 공휴 일	육십갑자	군 편성 단위	육신(六神)	<~등(等)>(등급)	<일 / 이 / 삼 + 등 (等)+○>
노동 삼권	육십사괘(六十 四卦)	군인	육조판서	<~만+금(金)>	<한해/두해/여 러해+~>
도립공원	이십사방위	난방 장치	육주비전(六注 比塵)	<~만+장자>	국, 탕, 국물
등재하는 시 표 제어	이십팔수	날[日]	웃놀이	<~반구(半球)>	기상특보
방위(方位)	장기작	날개	음성 분류	<~오염>	누에
백제의 십육 관 등	천간(天干)	놀이	음이름	<~자(字)+집>	단(短)/장(長)+ 조
사서오경	칠조	무날	장난감	<~중주(重奏)>	사분기
삼권(三權)	팔괘(八卦)	문장 부호	중세 국어 성조	<~중창(重唱)>	
상생/상극	팔문(八門)	문장 성분	팔주비전	<~찌개>	
수, 우, 미, 양, 가	팔장신(八將神)	미세기	한글 자모	<~학생><~학+- 생>	
수영의 종류	행성	불규칙	한글 자모 이름	<~합주(合奏)>	
숫자	향약	사신(四神)		<~합창(合唱)>	

## 2) 유형별 표제어 추가 및 제외 제안

- 유형별 계열어 정비를 통해 《표준》에 누락된 표제어를 찾고 기존 등재 표제어 중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제안한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20> 유형별 표제어 추가 및 제외 제안

작업유형	표제어 추가	표제어 추가검토	표제어 뜻갈래추가	표제어 뜻갈래삭제	표제어 삭제	기존 선별 결과 재검토
기존 편찬 지침	24	12	27	20	46	13
의미 범주	20	16	2	5	27	12
의미 관계	23	2	5	3		
형태	36	10	3	1	2	17
의성 의태어	11	44				
문법 형태 (조사, 어미, 접사)	(어미) 1					
총계	115	84	37	29	75	42

- 추가 등재 필요 표제어: ‘신년(辛年)’, ‘중위권’, ‘홍수 주의보’, ‘까끌거리다’, ‘맘고생하다’, ‘-으세나’ 등 115개
- 추가 검토 필요 표제어: ‘월교차’, ‘여덟아홉째’, ‘개웃개웃하다’ 등 84개
- 제외 검토 필요 표제어: ‘부루나’, ‘냄새 감각’, ‘수괘(01)(萃卦)’ 등 75개
- 기존 선별 결과 재검토 필요 표제어: ‘왜(01)’, ‘외(02)’, ‘묘말(卯末)’, ‘사려(01)’, ‘안찌’ 등 42개

### 3) 후속 사업의 계열어 정비 대상 제안

- (1) 의성 의태어 (<ㄱ, ㄲ, ㅋ>, <ㄴ> 이외 자모)
- (2) 폐쇄 부류 품사들 (대명사, 수사, 의존명사 등)
- (3) ‘~높여/낮추어 이르는 말’(올해 작업한 낮춤말, 높임말 작업 관련)
- (4) ‘~의 줄어든 말.’, ‘~을 줄여 이르는 말.’ (올해 작업한 준말, 본말 작업 관련)
- (5) 상호 관련성이 있는 의미 관계 계열어 (반대말 정보가 있는 표제어, 비슷한말 정보가 있는 표제어, 참고어 정보가 있는 표제어, 그 밖의 참조적 뜻풀이가 있는 말들인 주동사와 사동사, 능동사와 피동사, 원말과 변한말 등)
- (6) 국립국어원 요청 범위인 ‘이/그/저’, ‘요/고/조’ 결합형
- (7) 친족 어휘 등

## 2. 사전 용례 현행화

### 2.1. 사전 용례 현행화 작업 절차 및 방법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전 용례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 1) 문제 유형 분류
- 2) 작업 대상 선정
- 3) 용례 추가 및 수정
- 4) 교차 검토

#### 2.1.1. 문제 유형 분류

○ 《표준》의 표제어를 검토하여 용례의 현행화가 필요한 표제어의 문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유형1 - 용례가 없는 표제어
- 2) 유형2 - 용례가 부족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표제어

○ 문제 유형별로 작업 대상을 선정한 뒤 어휘의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례의 추가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여 총 5,000개의 용례(뜻갈래 기준)를 추가·수정하였다.

<표 21> 문제 유형별 최종 추가 용례 수(뜻갈래 기준)

유형1 - 용례가 없는 표제어	3,876개
유형2 - 용례가 부족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표제어	1,124개
계	5,000개

#### 2.1.2. 작업 대상 선정

가. 유형1 - 용례가 없는 표제어

○ 《표준》의 표제어 중 전체 뜻갈래에 용례가 없거나, 일부 뜻갈래에만 용례가 있는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 추출한 표제어를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1) 전체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 일부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 2) 외래어 / 한자어 및 고유어
- 3) 빈도 1,000이상 / 빈도 1,000이하

<표 22> 무용례 표제어의 분류 기준

전체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일부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빈도 1,000 이상	빈도 1,000 이하	외래어		한자어 및 고유어	
		빈도 1,000 이상	빈도 1,000 이하	빈도 1,000 이상	빈도 1,000 이하

<표 23> 무용례 표제어의 분류 결과

유형		개수	분류 기호	
일부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sup>13)</sup>	빈도 1,000 이상	5352	AA1	
	빈도 1,000 이하	9860	AA2	
전체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외래어	빈도 1,000 이상	433	C1
		빈도 1,000 이하	1243	C2
	한자어/고유어	빈도 1,000 이상	3164	D1
		빈도 1,000 이하	115890	D2

○ 유형별로 분류 기호를 붙인 뒤, 연구원별로 각 유형을 분담하여 작업하였다. 모든 연구원이 고빈도 유형을 우선으로 작업하였다.

- 1) 연구원 1: AA1 작업(이후 유형 2 진행)
- 2) 연구원 2: C1 - D1 작업

## 나. 유형2 - 용례가 부족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표제어

○ 수정이 필요한 용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부적절한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용례

13) 유형2의 작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AA1과 AA2의 일부 표제어 용례에 부적절한 표현이 확인되어 이를 별도(AB1/AB2)로 분류하였다.

- 2) 《말샘》의 표제어 항목(구)이 포함된 용례
- 3) 어려운 단어가 포함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한 용례

○ 부적절한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용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표현을 기준으로 《표준》에 실린 전체 용례를 검토하였다.

- 비속한 표현

-새끼, (김)가 놈, -년, -놈, 영감태기, 할망구, 여편네, 마누라, 노친네, 과부, 계집, 외간 여자, 외간 남자, 땡추, 예수교, 중놈, 포주, 도적질, 깔보(다), 양코배기, 튀기, 검둥이, 오랑캐, 버러지, 바보, 병신, 병어리, 애꾸, 곰보, 사팔뜨기, 외눈, 절뚝, 절름, 젓가슴, 몸뚱이, 몸뚱아리, 주둥이, 대가리, 눈깔, 이빨, -팽이, -데기, -쟁이, -뱅이, -탱이

- 옛날 표현(주로 신분이 드러나는 호칭)

참봉, 주사, 마님, 첩지, 종놈, 망나니, 상놈, 머슴, 식모, 소실

○ 부적절한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이 용례에 포함된 표제어를 유형1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24> 용례에 부적절한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표제어의 분류 결과

유형		개수	분류 기호	
일부 뜻갈래에 용례가 없는 것	빈도 1,000 이상	214	AB1	
	빈도 1,000 이하	333	AB2	
전체 뜻갈래에 용례가 있는 것	외래어	빈도 1,000 이상	8	BB1
		빈도 1,000 이하	8	BB2
	한자어/고유어	빈도 1,000 이상	1214	BA1
		빈도 1,000 이하	2607	BA2

○ 유형별로 분류 기호를 붙인 뒤, 연구원별로 각 유형을 분담하여 작업하였다. 모든 연구원이 고빈도 유형을 우선으로 작업하였다.

- 1) 연구원 1: BA1-AB1 작업
- 2) 연구원 2: (유형1 작업)



- 《말샘》의 표제어 항목(구)이 포함된 용례와 어려운 단어가 포함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한 용례의 경우 판별을 위해 표제어의 용례를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유형의 경우 작업 대상을 미리 선정하지 않고 작업 중 문제 사항이 확인될 때마다 ‘E1’ 분류 기호를 붙인 뒤 개별적으로 작업하였다.

### 2.1.3. 용례 추가 및 수정

#### 가. 작업 방식

- 용례의 추가 및 수정은 다음의 내용과 절차에 따랐다.
  - 매월 ‘대상 어휘 전체 목록’(엑셀)에서 연구원이 담당한 어휘 유형에 속하는 어휘를 배분받아 ‘용례 집필 양식’(엑셀)에 용례를 작성한다. ‘용례 집필 양식’(엑셀)의 파일명은 “표준\_표제어\_분석\_용례\_조정\_마감일자\_작업자”로 한다.
  - 매월 20일경 작성한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한 뒤 ‘대상 어휘 전체 목록’에 표제어별 처리 결과를 반영한다.
- ‘용례 집필 양식’(엑셀)의 작성
  - 1) A열의 ID란에는 ‘전체 대상 어휘 목록’에서 해당 표제어에 부여되어 있는 ID번호를 기입한다.
  - 2) B열의 ‘표제어’란에는 표제어를 적는다.
  - 3) C열의 ‘항목 출처’란에는 해당 표제어가 속한 유형의 분류 기호를 적는다.
  - 4) D열의 ‘처리 결과’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용례의 처리 결과를 적는다.
    - 집필: 용례를 추가한 경우
    - 수정: 용례를 수정한 경우(기존 용례에 대한 검토 및 삭제 판별이 필요한 경우)
  - 5) E열의 ‘뜻갈래 번호’란에는 작성한 용례의 뜻갈래 번호를 적는다. 단어의 경우 0을 적는다.

6) F열의 ‘용례’란에는 용례를 작성한다.

7) 기타 뜻갈래 추가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I열의 ‘메모’란에 적는다.

	A	B	C	D	E	F	G	H	I
1	id	표제어	출처	결과	번호	용례 추가(나중에 일괄 바꾸기 할 수 있도록 부호 통일 바람) 인미 주석이 마무리된 것 일지언, 인본에서는 그(첫매기름) 위치마는 등	작성	검색	메모
975	100245	뒋-애기	D1	집필	2	이다.	안		
976	101103	들-소	D1	집필	0	초원에는 (들소)가 무리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원시인들은 등굴 벽에 (들소)를 그리며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977	101443	등가(03)	D1	집필	0	그의 소박한 방에 있는 가구라고는 작은 작상과 등잔을 둘러 들 록제 (등가)가 전부였다./등가) 위에 올려둔 등잔의 불빛이 일렁인다.	안		
978	103682	땀-집	D1	집필	1	사고로 자동차 전면 유리에 금이 갔지만 유리를 교체할 돈이 없어 (땀 집) 시공을 맡겼다./옛날에는 술이나 냄비에 구멍이 나면 (땀집) 하여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안		
979	103682	땀-집	D1	집필	2	구멍난 양말을 (땀집)로 감쪽같이 새 것처럼 만들었다./옷소매에 담뱃재가 붙어 생긴 구멍에 (땀집)을 했다.	안		
980	103682	땀-집	D1	집필	3	올해의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땀집)했지만, 내년 지원금을 마련할 발판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정부가 선거 때까지 (땀집) 버티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인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안		
981	106725	로마-자	D1	집필	3	간판과 안내문에 외국어가 남용되는 현상은 영어나 (로마자)를 모르는 사람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산본중의 성명란은 한글로 최대 19자, (로마자)로 최대 37자까지 기재가 가능하다.	안		
982	106796	로비-하다	D1	집필	0	수감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판사에게 (로비)해 주겠다고 사기를 쳐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되었다./여러 환경 단체에서 저열하게 (로비)한 끝에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폐수 처리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안		

<그림 7> ‘용례 집필 양식’의 작성(용례 추가의 경우)

## ○ ‘전체 대상 어휘 목록’(엑셀)의 표제어별 처리 결과 반영

1) C열의 ‘항목 출처’란에 적힌 분류 기호 옆에 용례 작성 여부 판별 및 처리에 따라 다음을 적는다.

- x: 말뭉치 검색 결과 해당 표제어의 쓰임을 확인할 수 없음
- 집필: 용례 추가를 완료함
- 수정: 용례 수정을 완료함(기존 용례 부적절)
- 추후: 추후 90년대 이후 자료를 활용한 말뭉치 추가가 필요함

	A	B	C	D	E	F
1	IDS22	표제어(원문)	항목	처리 사유	처리 상태	작성
0285	260281	왜건	C1집필		전체 완료	안
0655	260651	외계-인	BA1수정용례 수정		전체 완료	유
0704	260700	외교-가	D1집필		전체 완료	안
0720	260716	외교-부	F1집필		부분 완-전문O	안
0784	260780	외국-인	AA1집필용례 집필		전체 완-전문O	유
0981	260977	외려	BA1수정비속어	표현	전체 완료	유
0989	260985	외롭다	BA1수정비속어	표현	전체 완료	유
1210	261206	외산	D1집필		전체 완료	안
1269	261265	외성(03)	D1집필		전체 완료	안

<그림 8> ‘대상 어휘 전체 목록’의 작성

2) 기존 용례가 부적절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D열의 ‘처리 사유’란에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적는다.

3) E열의 ‘처리 상태’란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용례가 필요한 뜻갈래 전체를 집필했는지 여부를 적는다.

- 전체 완료: 일반어 뜻갈래 전체 집필
- 전체 완-전문O: 일반어 뜻갈래 전체 집필 + 전문어 뜻갈래 전체 집필
- 전체 완-전문 부: 일반어 뜻갈래 전체 집필 + 전문어 뜻갈래 일부 집필
- 전체 완-전문X: 일반어 뜻갈래 전체 집필 + 전문어 뜻갈래 집필 안 함
- 부분 완료: 일반어 뜻갈래 일부 집필
- 부분 완-전문O: 일반어 뜻갈래 일부 집필 + 전문어 뜻갈래 전체 집필
- 부분 완-전문 부: 일반어 뜻갈래 일부 집필 + 전문어 뜻갈래 일부 집필
- 부분 완-전문X: 일반어 뜻갈래 일부 집필 + 전문어 뜻갈래 집필 안 함

## 나. 작업 지침

○ 용례 집필의 지침은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sup>14)</sup>을 따른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말뭉치와 인터넷 포털을 검색하여 언어적 직관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작업한다.
- 2) 뜻갈래당 용례 2개 이상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 3) 《말샘》에 구 용례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전문어 구 표제어가 올라 있을 경우 삭제하고, 일반 구 표제어로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둔다.
- 4) 기존 지침에서는 전문어의 경우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어의 경우라도 사용 빈도가 높다면 용례를 집필한다.
- 5) 《표준》에서 ‘잘못 쓰인 것’으로 처리하여 풀이에서 적절한 순화어를 제시한 외래어의 경우 용례를 집필하지 않는다.

○ 사전 용례 현행화 작업의 일부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간보고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 중단된 작업과 관련한 지침은 아래와 같다.

- 1)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한 인용례 추가

14)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집필 지침」, 「편찬지침\_표준국어대사전(2022년 8월 버전)」을 가리킴.

- 현재는 잘 쓰이지 않으나 고전 매체에서 고빈도로 등장하는 한자어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여 적절한 인용례를 추가한 뒤 ‘용례 집필 양식’(엑셀) H열 ‘인용례 검색’란에 ‘인용례 추가’라고 기입한다.

⇒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한 용례 추가는 추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중간보고 논의), 중간보고 이전에 작업하였던 《조선왕조실록》 인용례를 결과물에서 삭제<sup>15)</sup>하고 작성례 위주의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 2) 최신 인용례 추가

- 최근 인용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빈도 표제어의 경우 ‘90년대 이후 소설 말뭉치’를 활용하여 적절한 인용례를 추가한 뒤 ‘용례 집필 양식’(엑셀) H열 ‘인용례 검색’란에 ‘O’로 표시한다.

⇒ 인용례의 출전에 대한 국어원의 전반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중간보고 논의), 중간보고 이전에 작업한 일부만을 결과물에 포함하고 중간보고 이후에는 해당 작업을 중단하였다.

## 3)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기존 용례의 처리

-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용례는 적절한 작성례나 인용례로 수정한다.

⇒ 비속어, 옛날 단어, 어려운 단어 등이 포함된 기존 용례의 삭제 여부를 국어원에서 추후 판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중간보고 논의). 이에 따라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기존 인용례에 작성례를 추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I열 ‘메모’란에 삭제 사유 및 인용례/작성례 추가 여부를 간략히 적는다.

- 인용례 삭제에 대한 국어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F열에 해당 용례를 남기되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J열 ‘사유’란에 사유를 적는다. 삭제 검토가 필요한 부적절성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속어 표현</li><li>- 어려운 단어</li><li>- 옛날 단어</li><li>- 차별적 표현</li></ul> |
|--|

15) 102개의 《조선왕조실록》 활용 인용례가 존재함.

- 수정 전 용례 체계와의 비교를 위해 K열에 작업 전 《표준》의 용례를 남겨 둔다.

	A	B	C	D	E	F	G	H	I	J	K	
					뜻갈래 번			인용례 검				
1	id	표제어	항목	출처	처리	호	용례	작성자	색	메모	이유	이전 용례
							「(거동이) 불편하다./거동이 수상하다./허리 수술 후 (거동이) 힘들다 보니 머리를 감기가 어렵다./지성은 그저 여안이 뽀뽀해서 아들 속에 말없이 작자의 (거동만) 지켜보고 있었다.<이청준, 중추는 사제>/그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그 열지 않은 눈이 땀 나다녀서 하는 (거동) 좀 보소.<박경리, 토지>/대문 저쪽의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거동들) 살피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한승원, 해일>	유		원 인용례 삭제 요망(비속어 표현)	비속어 표현	「1」거동이 불편하다./거동이 수상하다./지성은 그저 여안이 뽀뽀
93	013735	거동(03)	AB1	수정	「1」		「(재혼을) 결심하다./재혼을) 찬성하다./아이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남편이 (재혼을) 반대하고 있다./전인들은 예외지만 양반집에선 과부가 재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유주현, 대한 제국>	유		원 인용례 삭제 요망(자별적 표현)	자별적 표현	「1」전인들은 예외지만 양반집에선 과부가 재혼을 할 수 없었던 ?
96	304670	재혼	AB1	수정	「1」		「그는 40여 년 동안 구두 수선을 (전업으로) 하였다./회사 다닐 때에는 투자일이 부업이어서 부딪이 덜 했는데 (전업으로) 삼다 보니가 부담감이 상당하다./죽어야 할 일도 (전업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전 남 만 남이 본업이요 그런 일이 부업인지, 우편이 계집 기간이 (전업이요) 땅 중개가 부업인지 그것은 닥치는 대로니까 당차도 분간하기가 좀 어려우리라.<염상섭, 삼대>	유		원 인용례 삭제 요망(비속어 표현)	비속어 표현	「1」그는 40여 년 동안 구두 수선을 전업으로 하였다./전 남 만 남이 본업이요 그런 일이 부업인지, 우편이 계집 기간이 전업이요 땅 중개가 부업인지 그것은 닥치는 대로니까 당차도 분간하기가 좀 어려우리라.<염상섭, 삼대>
99	310311	전업(03)	AB1	수정	「1」		「과소비 (풍조)/사회 (풍조)/불신 (풍조)/외모 중시 (풍조)/과소비(풍조)가 생기다./과소비(풍조)가 유행하다./연세부터인가 대학생이 되면 배낭 여행을 가는 (풍조)가 유행처럼 번졌다./토만 중시하는 (풍조)를 따라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다./조선에선 조강지처를 아니 버린다는 불문을 때문에 부득이 소실 두는 풍조가 생긴 모양인데...<박경리, 토지>	유		원 인용례 삭제 요망(비속어 표현)	비속어 표현	「2」과소비(풍조)/불신(풍조)/조선에선 조강지처를 아니 버린다는
101	391758	풍조(02)	AB1	수정	「2」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청소 당번을 (배당하였다)./서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서대문 경찰서에 (배당했다)./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행사 한 사람당 도둑놈 몇 명씩을 배당해서 무조건 잡아들이라니 개나 걸이나 닥치는 대로 쫓을 수밖에 없었다.<황석영, 아들의 자식들>	유		원 인용례 삭제 요망(비속어 표현)	비속어 표현	「1」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청소 당번을 배당하였다./일정 기간을 ?
104	140957	배당-하다	AB1	수정	「1」							

<그림 9> ‘용례 집필 양식’의 작성(수정이 필요한 용례의 경우)

## 다. 작업 예시

### ○ ‘성형’

**성형<sup>1</sup>** (成形)

발음 [성형]

부표제어 성형-되다<sup>1</sup>, 성형-하다<sup>1</sup>

---

**「명사」**

**「1」** 일정한 형체를 만들.
 

\* 베이킹 **성형** 트레이.
 \* 도자기의 **성형** 과정.

**「2」** 「공업」 그릇의 형체를 만들.
 

\* 주물 **성형**.

**「3」** 「의학」 외과적(外科的) 수단으로 신체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만들.
 

\* 미모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성형**.
 \* 외모가 중시되면서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성형**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림 10> ‘성형’의 용례 추가 예시

#### 2.1.4. 교차 검토 및 완성

○ 집필한 용례에 대하여 두 종류의 교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매월 마감(20일)이 끝난 뒤 연구원 1과 연구원 2가 각자의 작업물을 간략히 교차검토하였으며, 5,000항목의 전체 집필이 완료된 후 연구원 3과 함께 보다 정밀한 수준의 교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완료 후 교차 검토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용례의 비문이나 오타자 교정
- 용례의 배열 순서 검토
- 기호 표기 검토: 해당 표제어가 아닌 부분에 {}기호가 표기된 경우
- 기타 용례의 적절성 검토

○ 집필이 완료된 5,000항목의 용례는 엑셀 형식으로 제출한다.

#### 2.1.5. 작업 일정

<표 25> 용례 현행화 작업 일정

	원고 개수	작업 기간
유형 분류 및 시범 작업	-	4월
원고 집필	5,000개	5월~9월
교차 검토	5,000개	10월~11월

### 3. 한자어 원어 검토

#### 3.1. 한자 원어 검토 개요

##### 3.1.1. 한자 원어 검토의 세부 과업

- 1) 한자 원어 검토 작업은 ‘한자 표기 검토’ 작업과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작업으로 나뉜.
  - (1) 한자 표기 검토: 사전의 표제어가 한자의 원어의 독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 (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사전에서 한자 원어가 동일한 표제어의 쌍을 대상으로 원어와 표제어가 정확한지 검토

##### 3.1.2. 한자 원어 검토 대상

- 1) 한자 표기 검토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란에 ‘▽’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한자어 중 국편의 『검색엔진용한자음가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한글 독음을 가진 표제어를 추출한 목록 176개
- 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동일한 한자 원어로 원어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표제어의 쌍을 추출한 목록 370개
- 3) 검토 대상 수: 총  $176 + 370 = 546$ 개

#### 3.2. 한자 원어 검토 수행

##### 3.2.1. 대상 자료 수집 및 예비 가공(3~4월)

- 1)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사전의 한자 표기와 관련한 민원 내용을 정리한 엑셀

## 파일 수령

- 2) 한자 원어 표기의 검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의 엑셀을 수정 및 보완
  - (1) 두 가지 과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개의 다른 엑셀 탭으로 분리하여 ‘한자 표기 검토’ 탭과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탭으로 구분
  - (2) ‘한자 표기 검토’ 엑셀 탭에는 작업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표제어 오류 유무, 수정 표제어, 원어 오류 유무, 수정 원어, 메모’란을 신설

원어	자동으로 달아 둔 한자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한글 독음	우리말샘 표제어	표제어 오류 유무	수정 표제어	원어 오류 유무	수정 원어	메모
----	-------------------------------	----------	-----------	--------	----------	-------	----

<그림 11> ‘한자 표기 검토’ 작업 엑셀 제목 열

- (3)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엑셀 탭에는 ‘원어 오류 유무, 수정 원어 1, 수정 원어 2, 표제어 오류 유무, 수정 표제어 1, 수정 표제어 2, 메모’란을 신설

원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어휘	원어 오류 유무	수정 원어	수정 원어	표제어 오류 유무	수정 표제어	수정 표제어	메모
----	----------------	----------	-------	-------	-----------	--------	--------	----

<그림 1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작업 엑셀 제목 열

### 3.2.2. 검토 지침 마련(5월)

- 1) 한자 원어 검토 작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작업 지침을 마련함.
- 2) 한자 원어 검토 작업의 지침은 「부록 3」와 같음.

### 3.2.3. 검토 작업 및 교차 검토 실시(5~7월)

- 1) 5~6월: 한자 전문가(고전번역교육원 교수) 연구원이 검토 작업 수행
- 2) 7월: (1)의 결과물에 대하여 2인이 교차 검토

#### (1) 한자 표기 검토

- ① ‘표제어 오류 유무’에 O 표된 항목의 우리말샘 표제어가 23년 7월 초 작업 수행 시기를 기준으로 실제로 오류의 표기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② ‘원어 오류 유무’에 O 표된 항목의 우리말샘 원어가 23년 7월 초 작업 수행 시기를 기준으로 실제로 오류의 표기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다. (가)와 (나)의 검토 결과 우리말샘의 표기가 오류가 아니거나, 이미 우리말샘에 수정이 완료되어 있다면 메모에 해당 내용을 작성

## ②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가. ‘원어 오류 유무’에 O 표된 항목의 표준국어대사전 원어가 23년 7월 초 작업 수행 시기를 기준으로 실제로 오류의 표기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나. ‘표제어 오류 유무’에 O 표된 항목의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가 23년 7월 초 작업 수행 시기를 기준으로 실제로 오류의 표기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다. (가)와 (나) 작업 결과 표준의 표기가 오류가 아니거나, 이미 표준에 수정이 완료되어 있다면 메모에 해당 내용 작성

## 3.3. 한자 원어 검토 결과

### 3.3.1. 한자 표기 검토

#### 1) 표제어 오류: 69건

(1) 우리말샘의 표제어 중 표제어의 표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같음.(전체 목록은 별도 제출)

<표 26> 표제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우리말샘의 표제어 대표 목록

우리말샘 표제어	원어	수정 표제어
건식윤활	乾式潤滑	건식윤활
건성암법	乾性罨法	건성엄법
아부한사단	亞富汗斯坦	아부한사탄
인구고용공간배분모형	人口雇用空間分配模型	인구고용공간분배모형
전근조립법	傳動造粒法	전동조립법

내친의	內襯衣	내친의
십규증	十痼症	십주증
남만청년동맹	南滿靑年聯盟	남만청년연맹
고렴리	古念里	고념리
단친의	單襯衣	단친의
나공	囉噴	나홍
고요수요예측	固有需要豫測	고유수요예측
토이기사단	土耳其斯坦	토이기사단
지구주회반향	地球周回反響	지구주회반향
평형철근	均衡鐵筋	균형철근

## 2) 원어 오류: 42건

- (1) 우리말샘의 표제어 중 원어의 표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같음.(전체 목록은 별도 제출)

<표 27> 원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우리말샘의 표제어 대표 목록

우리말샘 표제어	우리말샘 원어	수정 원어
이각효과	耳穀效果	耳郭效果
직무소양	職群素養	職務素養
탈황반응	脫硫反應	(脫黃反應)
샘종성낭성암종	腺終成狼星癌腫	腺腫性囊性癌腫
선뇌저	蒜腦諸	蒜腦薯
선대구	蒜臺灸	蒜薑灸
순지리	蓴池指	蓴池里
쌍사기	複糸期	複絲期
늘목	訥木	訥木里
적근섬유	赤筋纖維	赤筋纖維
농암리	農鶴里	農岩里
장석화해	醬石花醢	醬石花醢
안면백선	顏面白癬	顏面白癬
고지저산소증	高度低酸素症	高地低酸素症

## 3) 표제어와 원어 모두 오류: 11건

### 3.3.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 1) 원어 오류: 32건

-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원어의 표기가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는 표제어들 중 원어의 표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같음.(전체 목록은 별도 제출)

<표 28> 원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대표 목록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원어의 표기가 동일한 표제어 쌍	표준국어대사전 원어	수정 원어 1	수정 원어 2
공어 홍어	魮魚	魮魚	洪魚
불확정기간 불확정기한	不確定期間	不確定期間	不確定期限
수영봉덕사사원 수영봉성사사원	修營奉德寺使院	修營奉德寺使院	修營奉聖寺使院
면역제어 면역조절	免疫制御	免疫制御	免疫調節
내부거래 외부거래	內部去來	內部去來	外部去來
전방오류수정 전방오류정정	前方誤謬訂正	前方誤謬修正	前方誤謬訂正
수령선하증권 수령선화증권	受領船貨證券	受領船荷證券	受領船貨證券
지명설화 지명전설	地名說話	地名說話	地名傳說
외주업자 외주업체	外注業者	外注業者	外注業體
다년생초목 다년생초본	多年生草本	多年生草木	多年生草本
대회신 세계신	大會新	大會新	世界新
가정학계 간호학계	家政學界	家政學界	看護學界
축유 축투	廁廬	廁牖	廁牖
광고 광과	廣袴	廣袴	廣袴

#### 2) 표제어 오류: 129건

-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원어의 표기가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는 표제어들 중 표제어의 표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같음.(전체 목록은 별도 제출)

<표 29> 표제어 표기 수정이 필요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대표 목록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원어의 표기가 동일한 표제어 쌍	표준국어대사전 원어	수정 표제어 1	수정 표제어 2
일모다빈 일무다빈	一牡多牝		일모다빈
삼룡 삼용	三龍		삼룡
상룡리 상용리	上龍里		상룡리
불임성 불임성	不稔性	불임성	
부결견잠 불결견잠	不結繭蠶	불결견잠	
난포 난폭	亂暴		난포
오류 오유	五柳		오류
오류리 오유리	五柳里		오류리
복룡동 복용동	伏龍洞		복룡동
백낙 백락	伯樂		백락
사수 사주	使嗾	사주	
면신 문신	免身		면신
자살 척살	刺殺	척살	
반상 반향	半晌		반상
동렬돌연변이 동열돌연변이	同列突然變異		동렬돌연변이

3) 원어와 표제어 모두 오류: 4건

### 3.3.3. 한자 원어 검토 결과 종합

- 1) 전체 작업 결과물(엑셀 파일)은 별도로 제출함.
- 2)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한자 표기의 오류에 따라 표제어 또는 원어의 수정이 필요한 표제어의 수는 다음과 같음.

<표 30> 한자 표기 오류에 따른 수정 필요 표제어 수

한자 원어 검토 내용		수정 필요 표제어 수		
한자 표기 검토	① 표제어 오류	69	총오류 건수 (①+②-③)	100

	②원어 오류	42		
	③ 표제어, 원어 동시 오류	11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① 원어 오류	32	총오류 건수 (①+②-③)	157
	② 표제어 오류	129		
	③ 원어, 표제어 동시 오류	4		
총수정 필요 건수		257건		



## 제 4 장

형태 분석 정보,  
규범 정보 구축



## 제4장 형태 분석 정보, 규범 정보 구축

### 1.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1.1. 과업 개요

##### 1.1.1. 과업의 목표

- 1) 《표준》의 품질을 높이고 더욱 활용성 있는 사전으로 만들기 위한 참고 정보로서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함.
  - (1) 직접 성분 분석 정보만을 표제어에 표기하는 현행의 방식은 복합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함.
  - (2) 이에 ‘형태 분석 정보’란을 따로 두어 복합어 표제어에 대해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 본 과업의 목표는 두 가지임.
  - (1) 약 21만 개의 복합어 표제어 중 5천여 개를 선별하여 추출함.
  - (2) 추출된 복합어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형태를 분석하고, 분석된 요소의 의미를 고려하여 어깨번호를 붙임.



<그림 13> 형태 분석 표기 예시

### 1.1.2. 과업의 필요성

1) 복합어를 형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음.

(1) 직접 성분(IC) 분석이 불가능한 복합어에 대해 내부 구조 정보를 제시함.

잠1                    [자1+ ㄱ3]  
 올리다            [[오르+ 이29]+ 다6]  
 상중하            [상1+ 중2+ 하4]

(2) 사전에서 제시하는 정보들 사이의 비정합성을 발견함.

- ① ‘-연23(然)’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그 용례로 ‘학자연(學者然)’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자연(學者然)’에는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음.
- ② ‘-음직스럽-’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먹음직-스럽다’로 분석되어 있음.
- ③ ‘상판때기’는 ‘상판대기’의 비표준형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때기2’만 등재되어 있고 ‘-대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2) 참고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사전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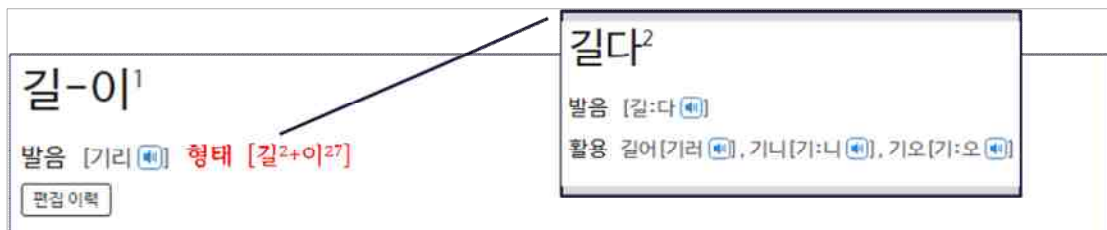
(1) 형태 정보와 규범 정보의 관계

- ① 형태 정보는 표제어의 표면형과 관련된 규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
- ② 일례로, ‘노래지다’에서 ‘노래’가 ‘[노랑+ 아10]’으로 분석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글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음.

(2) 형태 정보와 어원 정보의 관계

- ① 형태 정보를 통해서 어원 정보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② 일례로, ‘맷돌’은 ‘[매3+(入)+ 돌2]’로 분석되며 ‘入’이 무엇인지는 어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향후 형태 단위 검색을 구현하여 사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14> 형태 단위 검색 제시 방안



## 1.2. 과업 내용

### 1.2.1. 과업 진행 절차

3월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지침 초안 작성
4월	시험 분석(150개), 지침 수정·보완
5-7월	작업 대상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 구축
8월	중간 워크숍
9월	워크숍 및 자문의견을 반영한 최종 지침 작성
10-11월	지침 변경 사항 반영, 교차 검토

<그림 15> 형태 분석 과업 진행 절차

### 1.2.2.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 1)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원칙

(1) 가급적 전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복합어를 추출함.

① 분석 결과에 이견의 여지가 적은 표제어를 우선함.

② IC 분석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표제어를 우선함.

(2) 전체 표제어 중 다음의 것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① 고유어 및 전문어

② 무용례 표제어(저빈도어)

③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미등재어

④ 기초어휘말뭉치 빈도 0 표제어

⑤ 모두의말뭉치(구어, 메신저, 문어, 신문, 웹, 일상대화) 빈도 0 표제어

#### 2)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결과

(1) 전체 표제어 목록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64,723개를 간추림.

(2) 이를 다시 검토하여 최종 작업 표제어로 6,081개를 선정함.

<표 31> 작업 대상 표제어 추출 결과

작업자	검토 표제어	비고(ID표제어)
연구원A	15,223개	‘310510전우(03)’~‘422878형형-거리다’
연구원B	16,500개	‘000020-ㄴ 감’~‘103078딱-총’
연구원C	16,500개	‘103085딱콩-총’~‘208425수호(02)’
연구원D	16,500개	‘208427수호(04)’~‘310506전용-하다(04)’

### 1.2.3.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1)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원칙

(1) 표제어를 구성하고 있는 공시적인 형태소들을 밝혀 분석함.

- ① 국어 문법 체계의 한 단위가 아닌 요소라도 이것이 형태소와 결합하였다면 그 경계를 밝혀 분석함.

속눈썹                      [속1+ [눈1+ 썹\*]]  
 속절없이                [[속절\*+ 없]+ 이30]  
 구질구질하다          [[[구질\*+ 구질\*]+ 하2]+ 다6]

- ② 표면형에서 공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소리가 변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러지 않음.

찰쌀                      [찰2+ (ㅂ)+ 쌀]  
 씨암탉                  [씨1+ [암1+ (ㅎ)+ 닭]]  
 불러내다                [[[부르1+ 어6]+ 내2]+ 다6]  
 가갯집                   [가게+ (ㅅ)+ 집1]  
 나흔날                  [나흔+ 날1]

(2) 기존에 구축된 IC 분석의 결과를 따름.

- ①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를 밝힐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비인간-적, 비공개-적, 비공식-적, 비능률-적  
 비-계량적, 비-경제적, 비-과학적, 비-논리적

- ② 다만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라도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면

분석할 수 있음.

강산1(江山) [강1+ 산1]

뜨내기 [뜨3+ 내기5]

## 2)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 구축 결과

(1) 총 5,473개의 표제어에 대한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였음.

- ① 8월 중간 워크숍 전까지 1차 구축 작업을 완료함.
- ② 1차 구축을 완료한 후 작업자 간의 교차 검토를 실시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오류를 시정하여 형태 분석의 일관성을 높임.

<표 32> 형태 분석 정보 구축 결과

작업자	형태 분석	교차 검토
연구원A	1,010개	3,000개
연구원B	1,206개	2,000개
연구원C	1,693개	-
연구원D	1,564개	473개

ID	표제어(원본)	형태 정보	비고	형태 정보(검토)	검토 의견
000263	가가대소-하다	[[[가가+대소5]+하2]+다6]		[[[가가+대소3]+하2]+다6]	대소'의 어깨 번호를 수정함
000280	가간-사	[가간+사15]		[가간+사15]	
000331	가갸-집	[가갸+집1]		[가갸+ㅅ]+집1]	사이시옷
000459	가꼭-집	[가꼭1+집6]		[가꼭1+집6]	
000687	가나-오나	[[가1+나10]+[오+나10]]		[[가1+나10]+[오+나10]]	
000695	가난-살이	[가난+살1+이27]		[가난1+살1+이27]	가난'의 어깨 번호를 수정함접미사 '-살이'의 붙어오는 구분됨
000724	가내-사	[가내+사15]		[가내+사15]	
000767	가는귀-먹다	[[[가늘+는3]+귀1]+먹1]+다6]		[[[가1+는3]+귀1]+먹1]+다6]	가는귀'의 '가는'의 의미를 달리 파악함.
000833	가늘어-지다	[[[가늘+어6]+지]+다6]		[[[가늘+어6]+지4]+다6]	지'의 어깨 번호를 수정함
000883	가닥가닥-이	[[가닥+가닥]+이30]		[[가닥+가닥]+이30]	

<그림 16> 형태 분석 작업 예시

2) 형태 분석 작업의 기본 원칙, 주요 사례,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지침을 작성함.

- ① 150개의 표제어를 시범 분석하여 지침 초안을 작성함.
- ② 8월 중간 워크숍 논의 사항, 국어원의 검토 의견,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지침을 작성함.

## 2. 규범 정보 보완

### 2.1. 규범 정보 보완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기구축한 규범 정보 1,599개와 별도로 1,500개의 규범 정보를 신규 집필하였다. 사전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규범 정보는 사전 이용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자주 틀리는 어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어문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는 물론, 《표준》 이전 사전들에서 표제어가 일치하지 않았던 어휘나 《표준》에서 수정된 내역 또한 규범 정보의 집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에는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에 있는 어휘를 대상으로 규범 정보를 집필하였다면, 2023년에는 범주를 넓혀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 《표준》의 수정 내역, 《표준어 모음》(1990)에 수록된 어휘를 대상으로 규범 정보 집필 대상을 선정, 집필하였다.

규범 정보 집필 대상의 판단과 규범 정보의 집필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상세한 작업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작업 기간: 약 24주

- 작업 대상

(1)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의 어휘 2,490개

(\* 총 4,089개 중 규범 정보 기집필한 어휘 1,599개 제외)

(2) 2011년~2022년 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역’의 어휘 734개

(3) 《표준어 모음》(1990)의 어휘 635개

- 작업 내용

(1) 위의 ‘작업 대상’의 어휘를 중심으로 규범 정보 집필 대상을 판단

(2) 규범 정보 집필 대상으로 판정된 어휘에 대하여 2022년 구축된 규범 정보 원고, 《표준국어대사전》에 구축된 ‘한 걸음 더’를 토대로 규범 정보 원고 작성 및 보완

(3) 작업자 간 원고 교차 검토 및 수정·보완

## 2.2. 규범 정보 보완

### 2.2.1. 규범 정보 보완 작업 지침

규범 정보를 집필 및 보완하기 위한 지침은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완성하였다.

#### ■ 규범 정보 집필 지침

- 1) 표제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정확히 적는다. 붙임표나 샅갓 표시는 제외하고 앞말에 붙여 적는다. 구 단위인 경우(사전에서 한 칸 띄어 있는 어휘)는 띄어 쓴다.

다만 다음의 문법형태소는 붙임표를 함께 적는다.

- 접사(접두사, 접미사)                      예) 첫-, -산
- 어미(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예) -으시-, -을걸

- 2) 동형어 번호: 두 자리로 넘어갈 경우 정렬 순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자리 번호라도 '0'를 붙여 두 자리로 적는다. 예) 01, 02, 03...

#### 3) 규범 정보

- ① 정해진 틀에 맞추어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기술할 때에는 두음법칙 중 일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거가 되는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을 함께 기술한다.

‘당당히’는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IN>당당이</IN>’로 적지 않고 ‘당당히’로 적는다. (근거가 되는 규정 제시)

‘넬모레’는 ‘내일’이 줄어든 ‘넬’과 ‘모레’가 결합한 말이므로 ‘넬모레’로 적는다. (설명) 이는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3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가 되는 규정 제시)

- ② 학교 문법 용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 ③ 완결된 문장형으로 기술한다.
  - “~로 적어야 한다.” (O)    “~로 적어야 함.” (X)
- ④ 잘못 쓰이는 말에 대한 기술은 간단한 형식으로 한다.
  - ‘<IN>귀엣고리</IN>’는 비표준어이고 ‘귀고리’가 표준어이다.
- ⑤ 비표준어의 앞뒤에는 <IN>, </IN> 기호를 넣어 표기한다.
  - <IN>귀엣고리</IN>

⑥ 표제어가 다의어인 경우 규범 정보를 집필할 표제어의 뜻풀이를 함께 기술한다.

- ‘일을 꾸러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의 의미로 쓰이는 ‘<IN>봉족</IN>’은 비표준어이고 ‘봉죽’이 표준어이다. 이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8항)에 따른 것이다.

⑦ 같은 규범 내용이라면 표제어마다 중복 기술하되, 각 표제어에 맞추어 기술 내용을 조정한다.

- 표제어 “본받다”: ‘본받다’는 표준어이고 ‘<IN>법받다</IN>’가 비표준어이다.  
표제어 “법받다”: ‘<IN>법받다</IN>’는 비표준어이고 ‘본받다’가 표준어이다.
- 표제어 “이제껏”: ‘이제껏’과 ‘여태껏’, ‘입때껏’은 모두 표준어이다.  
표제어 “입때껏”: ‘입때껏’과 ‘여태껏’, ‘이제껏’은 모두 표준어이다.  
표제어 “여태껏”: ‘여태껏’과 ‘이제껏’, ‘입때껏’은 모두 표준어이다.

㉠ 두음 법칙에 대한 규범 내용은 다음의 기술 형식으로 통일한다.

‘금자란(錦紫蘭)’은 ‘<IN>금자란</IN>’으로 적지 않고 ‘금자란’으로 적는다. ‘蘭’이 한자어와 결합할 때는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은 ‘량’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독서량’, ‘폐활량’과 같이 한자어와 결합할 때는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량’으로 적는다. ‘먹이양’, ‘에너지양’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할 때는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한 ‘양’으로 적는다.

㉡ ‘-배기/-빼기’류 어휘에 대한 규범 내용은 다음의 기술 형식으로 통일한다.

‘억척빼기’는 ‘<IN>억척배기</IN>’로 적지 않고 ‘억척빼기’로 적는다.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인 경우,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배기’는 ‘<IN>학빼기</IN>’로 적지 않고 ‘학배기’로 적는다.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인 경우, 한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배기’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잘나다’, ‘못나다’, ‘잘생기다’, ‘못생기다’류 어휘에 대한 규범 내용은 다음의 기술 형식으로 통일한다.

‘못나다’는 품사가 동사이다. 이는 형용사에 ‘-었-’이 결합하면 ‘과거’를 표시하는데 비해 ‘못나다’는 ‘-었-’이 결합하면 ‘현재 상태’를 표시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잘생기다’는 품사가 동사이다. 이는 형용사에 ‘-었-’이 결합하면 ‘과거’를 표시하는데 비해 ‘잘생기다’는 ‘-었-’이 결합하면 ‘현재 상태’를 표시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㉔ ‘不’가 포함된 어휘에 대한 규범 내용은 다음의 기술 형식으로 통일한다.

‘부당(不當)’은 ‘<IN>불당</IN>’으로 적지 않고 ‘부당’으로 적는다. ‘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는 바뀐 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득이(不得已)’는 ‘<IN>불득이</IN>’로 적지 않고 ‘부득이’로 적는다. ‘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는 바뀐 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⑦ 여러 어문 규범과 관련한 표제어인 경우 기술 내용은 ‘맞춤법→표준어’의 순으로 기술한다.

## 2.2.2.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 《표준》의 수정 내역, 《표준어 모음》(1990)에 수록된 어휘를 대상으로 규범 정보 집필 대상을 판단한 결과 규범 정보의 집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휘는 총 1,540개였다. 최종 완성된 규범 정보 원고는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33>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규범 유형	집필 원고 개수	비고
한글 맞춤법	432	두음 법칙(53개) 포함
표준어 규정	1002	표준 발음법(38개) 포함
외래어 표기법	83	
기타	23	‘-배기/빼기’ 류 어휘, ‘잘나다’, ‘못나다’, ‘잘생기다’ 류 어휘, ‘不’가 포함된 어휘 등
합계	1,540	



## 제 5 장

학술 발표회,  
공동 워크숍,  
자문 회의 개최





## 제5장 학술 발표회, 공동 워크숍, 자문 회의 개최

### 1. 학술 발표회 개최

#### 1.1. 학술 발표회 개최의 목적 및 취지

본 연구에서는 《표준》 개편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토의하여 《표준》 개편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학술적인 관점 및 언어 정책적인 관점으로 사전 개편의 성과를 확인하며, 사업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의 공동 개최 학회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동 개최 학회: 반교어문학회
  - 연구 분야: 인문학 > 한국어와문학
  - 발간 학술지: 《반교어문연구》 KCI 등재지(연 3회 발행)
  - ISSN: 1598-2734

#### 1.2. 학술 발표회 개최 내용

- 1) 주제: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국어의 미래
- 2) 일시: 2023. 11. 17. (금) 10:20~17:00
- 3)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3503호, 33219호, 33504호
- 4) 주최: 국립국어원, 반교어문학회,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표 34> 학술 발표회 개최 내용

	시간	프로그램	사회
개회	10:10~10:20	인사말 - 정회원(국립국어원)	김강은 (광운대)
	10:20~10:30	개회사 - 정희창(성균관대)	
제1부	10:30~11:0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형태 분석	유하라

		- 발표: 박유석(성균관대) / 토론: 최형용(이화여대)	(성균관대)
	11:00~11:3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용례 현행화 - 발표: 안혜지(삼육대) / 토론: 한용운(동국대)	
	11:30~12:0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계열어 분석① - 발표: 민지원(성균관대) / 토론: 노석은(고려대)	
	12:00~12:3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계열어 분석② - 발표: 이수연(국민대) / 토론: 도원영(고려대)	
점심 시간(12:30~14:00)			
제2부	14:00~14:3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표제어 정보 - 발표: 이성우(한림대) / 토론: 이준환(전남대)	방영심 (상명대)
	14:30~15:00	국어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어사전의 영향력과 사전 개편의 시사점 - 발표: 윤천탁(한국교원대) / 토론: 강남옥(성균관대)	
	15:00~15:3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규범 정보 - 발표: 김종희(한성대) / 토론: 박지순(경희대)	
	15:30~16:00	《표준국어대사전》 문법 계열어의 분석과 검토 - 조사, 어미, 접사 표제어를 중심으로 - 발표: 김지혜(한신대) / 토론: 이금희(성균관대)	
폐회	16:00~16:10	폐회사	김강은 (광운대)

학술대회의 발표는 형태 정보 구축, 용례 현행화, 계열어 정비, 표제어 검토, 규범 정보 보완 등 본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맡아 중장기적 사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 1.3. 주요 논의 사항

#### 1) 형태 분석 정보 관련 논의

- 총 5,473개의 표제어에 대한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였고,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침 형식을 작성하였음. 형태 분석 작업의 기본 원칙, 주요 사례,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지침을 작성함.
- 사전은 대표적인 예들만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예들을 망라해야 한다는 특성상 ‘분석 결과에 이견의 여지가 많은 표제어’가 항상 문제가 됨. 또

한 이들에 대해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함.

- 형태 분석 원칙의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기존에 구축된 직접 성분(IC) 분석의 결과를 따름”에서 “특히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를 밝힐 때에는 이를 적극적 반영”하는 예로 제시된 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함.
- 형태소 분석의 실제 부분에서는 형태소 경계와 자소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2) 용례 현행화 관련 논의

- 선행 연구에서 용례의 기능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표준》 용례의 한계를 ‘무용례 표제어’와 ‘기존 용례가 부족한 표제어’로 나누었음.
- 무용례 표제어에 적절한 용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언어 자료를 살피고 용례의 사용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용례가 부적절한 표제어의 용례와 관련해서는 용례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어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례가 추가되어야 함.
- 인용례 중 원전의 맥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표준》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전의 맥락을 온전히 옮겨오기 위해 해당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 전체’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작성례 중 작업자 개인의 직관이 과도히 들어가 있는 문제를 작성례의 문제점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3) 계열어 정비 관련 논의

- 의성의태어, 관련 어휘 계열어, 문법 형태(조사, 어미, 접사), 동일 접사 파

생어 및 구성성분 공유 합성어/의미 범주 계열어 부분에서 계열어 정비 작업을 완료함.

- 계열어 정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 어휘에 대한 상세 지침 및 웹 사전의 동의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침 등 《표준》 편찬과 관련한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것임.
- 계열어의 누락: ‘검지 발가락, 집게 발가락, 두번째 발가락’, 교통수단 관련 어휘 중 사용 빈도의 차이에 따라 누락된 계열어, 사회 변화 및 인식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이 등장한 계열어 등.
- 사전 기술 방식의 단일화 기준 필요. 사전의 목적이나 사전 집필자의 성향에 따라 유사한 표제어의 뜻풀이라 하더라도 정보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전의 표제어를 추가,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 표준의 등재 기준과 계열적 등재 필요성이 맞지 않는 경우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지침상의 원칙과 계열적인 등재 필요성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 필요.
- ‘검지 발가락, 집게 발가락, 두번째 발가락’ 등의 어휘는 《말샘》에 등재한 뒤 용법이 고정된 후에 추이를 살펴 《표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4) 표제어 정비 관련 논의

- 사용 기록을 찾기 힘든 표제어의 경우, 해당 표제어가 예전에 쓰이던 어휘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말뭉치 및 사전 자료뿐만 아니라,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를 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함.
- 조금이라도 고유성이 있는 어휘라면 고유명으로 처리하여 삭제하였으며, 동의어 혹은 계열어로 판단될 경우 판단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함.
- 해당 언어의 표준적 어형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언중들의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는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표준》이 추구해야 할 표준적 어형이 지닌 성격 중 하나인 공신력이 곧

등재 가치와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가치’란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워 보임. 이런 점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해야 함.’과 같이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고유성이 있는 상품명 어휘는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고유성 어휘가 일반어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 어휘를 어기로 하여 파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관된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5) 국어 교육 관련 논의

- ‘한 걸음 더’에는 어문 규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언중들이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할 점도 언급되어 있음. ‘한 걸음 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언중의 언어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함.
- 관련어 정보는 어휘 교육에서 국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사방(四方)’은 “「1」 동, 서, 남, 북 네 방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고, 사방위, 사향.” 등의 뜻풀이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우(四隅)’ 등을 관련어 정보로 제시할 수 있음.
- 다른 사전들의 장점 중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의 학습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표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가령 한자어의 뜻풀이와 관련하여, 한자어의 뜻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사전이 지닌 장점 중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제 항목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임. 품사 정보가 수정된 것, 뜻풀이가 확연히 달라진 것, 표제어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된 것, 외래어 표기 등이 바뀐 것, 발음이 수정된 것, 접사 목록 등을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하면 국어 교사나 국어 교육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 교육 관계자들은 ‘정확한 정의’와 ‘알기 쉬운 정의’ 사이에서 사전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큰 편. 이에 대한 《표준》의 개선 방향을 정립해야 함. “비표준적”, “반표준적” 정보를 담고 근거와 기준을 들어 설명하는 것 또한 《표준》 제정의 과정이자 책무라 할 수 있지만, “표준”을 담보해야 하는 사전의 정체성을 생각해본다면 어려운 일이므로 그에 대한 부담과 문제

점을 살펴보아야 함.

- ‘사전의 교육적 기능’의 선(線)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6) 규범 정보 보완 관련 논의

- 규범 정보의 대다수는 사전 정보에 적용된 어문 규범에 대한 해설 내지는 부연의 기능을 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어문 규범에 근거하고 있음. 그러나 규범 정보는 특유의 유연함을 통하여 어문 규범에 명시되지 않은 각 표제어의 활용, 용법, 의미, 화용 정보, 더 나아가 표제어 간의 형태/의미 차이를 비교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종합해 보았을 때 《표준》의 규범성은 더더욱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관여하게 될 것이며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표준》이 《말샘》과의 분업을 통해 규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 《표준》의 규범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보완해야 함.
- 규범 정보인 ‘한 걸음 더’의 유형으로 보았을 때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관여하는 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관련하여 ‘한 걸음 더’의 정보는 표제어의 표준어 여부, 표기, 발음, 활용, 용례/용법, 의미, 화용 정보, 표제어 간의 형태/의미 차이 등 매우 다양한데 그중 의미, 유의 관계의 표제어에 대한 정보, 화용 정보를 규범 정보에 포함하는 것의 부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임.

#### 7) 문법 계열어 관련 논의

- 조사, 어미, 접사 표제어의 뜻풀이의 계열 관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 ‘정의항 마지막 단어의 일관성’, ‘부가 설명의 체계성’, ‘뜻풀이 내의 일관성’을 들 수 있음.
- 관련어 뜻풀이와의 일관성을 검토할 때, 다의어의 경우 일관된 뜻풀이가 필요함. 조사 ‘로6’은 다의어로 총 12가지의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5번의 뜻풀이에서만 가운데점(·)을 넣어 ‘수단·도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다른 다의어와 형식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처리를 보임.
- 이형태 관계의 어휘의 경우, 동일한 어휘이므로 뜻풀이를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해 줄 필요가 있음.

- 표제어들 간의 계열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은 형식의 일관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웹사전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 2. 공동 워크숍 개최

### 2.1. 워크숍 개최의 목적 및 취지

- 1) 국립국어원과 연구진 간의 소통 및 연구 내용 공유
- 2) 연구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검토 및 사업 방향성 논의(중간보고회 대체)
- 3) 《표준》 개편 사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4) 《표준》 개편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과 중장기적 사전 정책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2.2. 워크숍 개최 내용

- 1) 일시: 2023. 8. 17.(목) 13:20~17:20
- 2)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5층 31512호
- 3) 주최: 국립국어원,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4) 주관: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사업 팀, 성균관대학교 BK21 혁신·공유·정의 지향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단

<표 35> 워크숍 개최 내용

		사회: 이성우(한림대)
13:20~13:30	인사말	정희창(성균관대)
13:30~14:3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표제어	조남호(명지대)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계열어 정비	민지원(성균관대)
14:30~14:40	휴식	
14:40~15:40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형태 분석 정보 구축	곽유석(성균관대)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용례 현행화	유하라(성균관대)
15:40~16:00	휴식	

16:00~17:20	종합토론 한용운(동국대), 도원영(고려대), 최형용(이화여대), 봉미경(연세대)
-------------	---

## 2.3. 주요 논의 사항

### 1)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표제어

- 우리말샘에 매년 500개의 표제어를 새로 등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국어원에서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표준》은 규범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인명·지명 등과 같은 백과사전적 정보는 《말샘》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임.
- 이전에는 국어사전의 역할이 ‘백과사전’, 즉 각종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음. 다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전의 성격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인명·지명 등의 고유명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한계(정보 오류, 정보 변경 등)가 있음. 가령 백과사전마다 다른 정보를 제시할 때에는 《표준》에서 처리하기 어려움.
- 방언에 대한 정보는 《말샘》에서 제공하고 있음. 차후 방언사전이 만들어진 이후 《표준》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현재로서는 방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표준》에 담아내기 어려움.

### 2)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계열어 정비

- ‘문법 계열어’는 품사와 관련한 정보들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형태 계열어, 통사 계열어, 의미 계열어’로 나누는 것이 내년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더 좋을 듯함.
- 품사 계열어(대명사, 수사, 감탄사, 품사 통용 등)를 모아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참고 어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보완해야 함. 표제어 사이의 관계망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말샘》의 어휘 지도 역할을 《표준》의 참고 어휘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어휘들이 없는 것을 채워 넣는 작업을 통해 계열관계의 일관성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의미 범주 계열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앞으로 정비 대상이 커지면 《한국어 기초 사전》의 의미 범주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함. 신현숙의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에도 43개의 분류가 있음. 이런 것을 참고하여 《표준》의 계열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함.

### 3)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형태 분석 정보 구축

- 직접 성분 분석은 단어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임.
- 일반 사전 이용자들은 ‘투명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함. 즉 ‘좁쌀’을 ‘좁 + 쌀’로 분석하는 것이 사전 이용자 입장에서 투명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좁(조)+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투명성을 가지나 이렇게 되면 <고려대사전>과의 차이점이 없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을 구별해준다면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듯함.  
예) ‘좁쌀’-‘좁(<조)+쌀’, ‘물음’-‘물(<←물)+음’
- ‘직간접’은 직접+간접에서 동일 요소가 삭제된 것임. 그러나 ‘직접간접’으로 보게 되면 형태소 4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그러나 ‘직\*+간접’으로 분석하는 것 역시 분석과 형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석인지 모르겠음.
- 형태 분석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그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나 《표준》의 형태 분석에는 문제가 있음. 우선 한자어는 형태소를 분석하지 않음. 그러나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소설-가’와 같은 일부 한자어들은 형태소를 분석함. 이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또한 ‘별-이’와 ‘-잡이’ 역시 형태 구조가 같은데 어떤 것은 ‘-’을 넣고, 어떤 것은 넣지 않음. ‘죽-음’, ‘꿈’, ‘춤’과 같이 같은 구조이나 일음절인 것에도 ‘-’을 넣지 않음. 이는 복합어와 단일어로 나뉜다는 문제가 있음.
-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함.
- 종이사전은 지면의 제약이 있었으나 지금의 사전은 온라인 사전이기 때문에 잉여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함. 투명성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잉여적인 정보를 더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4) 《표준국어대사전》 개편과 용례 현행화

- 한자어의 경우 ‘실록’에 용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다만 ‘실록’에서 용례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음. 즉 ‘유령어’인 것인데, 이는 ‘표제어 제외 작업’과도 연관됨. 이후 어원사전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표준》은 ‘현대’사전임. 다시 말해 현대 언중의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실록’을 기준으로 용례를 제시하게 되면 현재 쓰는 단어로 인지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표준》은 ‘공시적인 사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 실록에 관한 것은 우리말샘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함.
- 부적절한 용례를 다듬는 것(신분 계급, 비속어,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어휘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내용상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 수정하는 것도 이후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함(성인지 감수성). 다만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작성례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 생각하여 용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3.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3.1. 자문 위원 구성 및 자문 설계

##### 가. 자문 위원 구성

자문 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문 위원 12인으로 구성되었다. 국어학자, (한)국어교육학자, 사전 편찬 전문가, 어문규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표준》의 개편 방향을 거시적으로 탐색하고 유의미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6〉 자문 위원 구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 분야
자문 위원 A	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국어사, 어문규범
자문 위원 B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음운론, 글쓰기
자문 위원 C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교수	국어학사, 한국어교육
자문 위원 D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음성학
자문 위원 E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사전, 국어교육
자문 위원 F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음운론
자문 위원 G	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음운론, 방언학
자문 위원 H	서울신문 어문부 전문기자	공공언어, 어문규범
자문 위원 I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사, 음운론
자문 위원 J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전산언어학
자문 위원 K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사, 어휘론
자문 위원 L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교육, 통사론

## 나. 자문 설계

사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방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과 자문위원회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자문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표제어 등재 기준, 추가 표제어 선정 결과, 제외 표제어 선정 결과, 향후 《표준》 개편 사업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 1) 1차 자문

- 자문 주제: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성을 확립하고 정보성·일관성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
- 자문 의견의 활용
  -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등급화 작업 기준의 수정·보완

(2) 《표준국어대사전》 계열어 정비 작업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

(3) 《표준국어대사전》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

- 자문 형식: 서면 자문
- 자문 시기: 2023년 8~9월
- 자문 의견서 질문 문항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등급화(4단계: 제외 확정,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하는 작업에서 어떤 기준과 가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등재 등급을 판단하는 작업에서 ‘말뭉치 빈도’,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용례 발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 1차로 완료된 등급 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빈도 표제어와 말뭉치 빈도 0인 표제어’와 ‘세부 전문분야 표제어’에 대하여 올해 작업한 등급 판정 결과를 2차 검토한 예정입니다. 이 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4. 계열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목록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5. 계열어 정비 작업 과정에서 ‘참고 어휘’의 제시 기준에 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참고 어휘’를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어휘’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별다른 상세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결정하고 기준을 수립하여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참고 어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6.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를 기본 표제어에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즉 기본

표제어는 ‘사돈집’, ‘사돈댁’이기 때문에 ‘사가8’과 ‘사가댁’은 단어 내부 구조상 관련이 있는 짝이지만 높임말 관계를 직접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임말(A)과 평어(B)의 경우, ‘B: 뜻풀이. 「높」 A.’로 풀이하고 ‘A: ‘B’의 높임말.’로 풀이한다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르면 ‘사가댁’, ‘사댁(A)’은 각각 “사돈집(B)’의 높임말.’로 풀이되어 있으므로 ‘사돈집’(B)에서 「높」 사돈댁, 사가댁, 사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표준 지침의 해당 부분을 위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사전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7. 본 사업에서 형태 분석 작업의 기본 원칙은 기존에 구축된 IC 분석의 결과를 따르고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를 밝힐 때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일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라도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8.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것은 별도로 밝혀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사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9. ‘직간접’류는 준말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응하는 본말을 상정하기 어렵다(‘?직접간접’)는 측면에서 준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서 ‘직간접’류는 [직\*+ 간접], [출\*+ 퇴근], [감\*+ 병영1] 등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는 ‘\*’ 기호 처리)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10. 그 밖의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2) 2차 자문

- 자문 주제: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
- 자문 의견의 활용

- (1)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설정
- (2) 《표준국어대사전》 계열어 정비 작업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
- (3) 《표준국어대사전》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
- 자문 형식: 대면 및 서면 자문
- 자문 시기: 2023년 11월
- 자문 의견서 질문 문항

1. 계열어 정비, 용례 현행화,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사전 원고 집필 등 올해 연구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대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수정과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수정·보완의 필요성과, 표준국어대사전을 개편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2. 계열어 정비 작업에서 수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동일 접사 파생어 및 구성성분을 공유하는 합성어’(형태 계열어)와 ‘의미 범주 계열어’ 유형입니다. 계열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유의미한 목록을 대량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록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3. 계열어 정비 작업 과정에서 ‘참고 어휘’의 제시 기준에 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참고 어휘’를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어휘’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별다른 상세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결정하고 기준을 수립하여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참고 어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4. 용례 현행화 작업 결과, 오늘날의 용례 집필 작업 방식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과 수필은 용례 자료 목록에 나온 것만 인용한다.’, ‘신문, 잡지, 교과서, 기타 문헌, 시는 인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현재 사전의 개편 방향과 괴리된 내용으로 지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5. 올해부터 형태 분석 정보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므로 형태 분석 정보에 대한 지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자어나 외래어와 같은 어종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후방(前後方)’은 전방(前方)과 후방(後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현재의 지침에 따르면 ‘전\*+ 후방1’으로 분석되나, 이때의 ‘전(前)’이 ‘전7(前)’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직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의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고, 각각에 맞는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6. 그 밖의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3.2. 자문 의견

### 3.2.1. 1차 자문

#### 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등급화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표준국어대사전》이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등급화하기에 앞서 《표준국어대사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책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사전은 사전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 언어를 보존하는 창고의 역할도 가지고 있음. 더구나 종이사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등재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을 최대한 담아두는 것이 필요함. 등재 어휘에 대하여 시대 정보 또는 사용 시기 정보 등을 더하여 사전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전제하에 등재 어휘에 대한 가치 부여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그 첫 번째는 시대성이어야 할 것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어야 한다는 것임. 두 번째는 표준어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에는 표준어

규정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표준어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어휘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어휘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 대상이 되어야겠으나 사전 수록에 비표준어의 반영 여부와 수록 방법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할 것임. 그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어나 전문어, 옛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함께 수용할 것인지, 별도의 사전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가 그것임.

- 그 과정에서 제외 확정 어휘를 판단하면서 행여 사용어휘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잘못이 행여라도 없기를 바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 목록은 사용어휘는 물론 이해어휘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이들이 모두 귀중한 언어 자료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말뭉치나 빈도 조사의 결과는 항상 참고할 수 있는 보조 자료일 뿐 그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뭉치라든가 빈도 조사의 결과 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을 대표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기초 자료를 생성한 이들의 출신 지역과 연령, 말뭉치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 또는 문종 그리고 언어생활에서의 비중이 구어가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자료는 주로 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 아울러 기존 사전에서의 등재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면 애초 작업에서 누락된 어휘들이 추가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등급 판정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는 ‘상정하고 있는 사전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언제나 첫 번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임. 《표준국어대사전》의 역할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전문 사전의 부재와 사전 생태계가 무너진 현실을 고려하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이들도 기억해야 할 것임. 옛 문헌을 살핀다든가, 근대의 소설을 읽어가다가 궁금한 단어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종교적인, 과학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타 등등의 전문적인 정보를 전공 서적에만 미루면서 사전이 지닌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사전 시대애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사전에서는 더 이상 유효성을 가지기 어려워 보임.

## 2) 자문 위원 B

-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등급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그 기준은 어휘 사용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등급 결정함.
- 《표준국어대사전》의 명칭을 고려할 때 표준이란 개념 설정이 문제임.
-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학자의 연구를 고려할 때 기존 어휘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용례 발견 여부 등 외에도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우리말 큰사전>의 등재 여부도 고려 대상으로 넣어야 함.
- ‘저빈도 표제어와 말뭉치 빈도 0인 표제어’와 ‘세부 전문분야 표제어’는 국어대사전이라는 특성상, 나아가서는 후에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도 어휘 설명에 따로 부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3) 자문 위원 C

-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모 축소와 규범사전의 성격 강화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했음. 등재 가치의 4등급 중 결국 ‘제외 확정’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줄어야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미 연구팀에서 마련한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의 기준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함.
- 다만 일차적으로 제외 확정이 필요한 표제어는 ‘고유명사’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고유명에는 인명, 지명, 책명 등이며, 해당 표제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적지 않게 등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표제어들은 규범사전에서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임. 그런 표제어는 백과사전이나 전문용어 사전 등에서 검색할 수 있으리라 봄.
- 또한 표제어 ‘유지’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독립된 ‘단어’ 표제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존형태소 부류나 ‘이형태’, 단어를 넘어서는 ‘구’ 표제어도 과감하게 ‘유지’를 보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함.

- 표제어의 등재 등급을 판단하는 작업에서 다른 기준은 동의가 되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 사전은 온전히 규범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나머지 기준에 따라 유의미한 특정한 표제어가 추출되면 그 표제어는 빠른 심의(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긴 함)를 통해서 오히려 4등급의 기준을 넘어 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함. 그런 유형의 후보 표제어는 주로 신어들이 될 터인데, 신어에 대한 규범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등재하면 더욱 사전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저빈도 표제어와 말뭉치 빈도 0인 표제어 중에서 ‘역사적으로’ 사어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제외 확정이지만, 말 그대로 빈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0인 경우를 제외로 확정하려면 조금은 구체적인 ‘제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세부 전문분야 표제어’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당 분야 전공자들에게 자문을 얻는 작업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4) 자문 위원 D

- 등재 가치의 등급화에서 빈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표제어들과의 계열적 의미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음.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 어휘 체계 내에서 어휘소 간의 의미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표제어가 필요하다면 빈도가 낮더라도 삭제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종이 사전을 지향하지도 않는데, 있는 단어를 제외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오히려 현재의 시도보다는 어휘 등급 제공 방향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보고자 함. 현재 대상이 된 12만 6천 개 정도의 표제어가 사전에 존재한다고 해도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임.
-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휘 등급에 대한 정

보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아울러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발주처의 연구 목적과 관련된 것임.

발주처의 연구 목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부 표제어를 제외(우리말샘에서만 유지)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
--

- 발주처의 연구 목적은 표준 사전의 일부 표제어를 제외하고 우리말샘에만 유지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규모의 축소가 규범사전의 성격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옥스퍼드 사전의 표제어가 많다고 규범적 성격이 약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임. 아울러 표준 사전에서 제외된 단어가 우리말샘에만 유지된다면 우리말샘 사전의 정체성에 맞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현재 반영하려는 빈도 조사 결과는 ‘말뭉치 빈도’,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 등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어, 그중에서도 코퍼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자료에서 관찰되는 한국어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대상 단어의 선정 기준이 기존의 사전 편찬 시의 등재 대상 단어 선정과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됨. 현재의 기준이라면 사용 빈도가 높은 신어 또는 유행어들이 빈도 면에서 등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전문가들이 다른 거름망(대상 단어 관찰 기간 등)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함.
- 그런데 표준 사전에 등재 대상 단어의 범위는 현재의 관점에서 사용의 예가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함. 앞서 말한 것처럼 종이 사전을 지향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등재된 단어를 내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음. 거듭 말하지만, 제외 등의 방향보다는 어휘 등급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방향이 어떨지 생각함.
- 2차 검토의 목표는 1차 작업을 통해 내린 등급 판정, 즉 ‘제외 확정, 제외 보류, 유지 보류, 유지 확정’의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임. 이때 더 고민이 되는 것은 제외 확정과 유지 확정의 판정

을 내리는 것이 아닐지 생각함. 특히 제외 확정 등급을 받은 단어는 표준 사전의 표제어에서 탈락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고 유지 확정 등급을 받은 단어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다시 표준 사전에 부담을 주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표준 사전과 우리말샘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운 후에 그 정체성에 맞는지를 질문하면서 등급 판정을 확인하는 방향임. 사전의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진 후라야 결정의 기준이 명료해질 것이기 때문임.

#### 5) 자문 위원 E

- 개편될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과 관련해 표제어 제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의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사전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는 데 제1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제1 주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것임. 지금까지의 작업처럼 말뭉치 대상의 빈도를 고려하여 표제어 제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와 더 긴밀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편될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 및 그것의 우선순위와 연동하여 표제어 제외 기준을 점검해 보아야 함.
- 말뭉치 대상의 빈도만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표제어 등재 여부를 등급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려해야 할 듯함. 빈도는 활용성(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뭉치 자체가 균형적인 존재임을 고려하더라도 역사성 등과 같은 그 밖의 등재 및 등급화 기준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음.
- 표제어의 등재 등급을 판단할 때 ‘말뭉치 빈도’,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용례 발견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현시점의 사용 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현 《표준국어대사전》이 현대국어임을 대상으로 표제어를 등재한다고 봤을 때 이는 현대국어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닐지 걱정됨.
- 국어사 시대 구분(20세기 이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1950년대 이후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 빈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음. 그러나 작업상 1950년대 이후의 언어 자료를 현시점의 언어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표적 성격을 띠는 언어 자료(교과서, 방송)를 대상으로 표제어 제외 후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의 자료만으로는 당시의 언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표제어 제외 후보에 대해서는 중장년층 대상의 직접 설문(직접 사용 및 타인 사용 인지 확인)도 얼마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빈도 표제어와 말뭉치 빈도 0인 표제어를 대상으로 표제어 제외의 등급화를 마련할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전문분야 표제어도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6) 자문 위원 F

- 표준어로 인정될 수 없는 말이나 잘못 분석(또는 등재)된 말들을 제외 확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일부 방언으로만 쓰이는 말들도 제외해야 할 것임. 다만, 이런 말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았을 때 표제항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우리말샘으로 잘 안내되도록 설계하여 언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표제어의 등재 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라고 생각함. 다만, 이 기준들 각각을 대등하게 놓고 판단할지 위계화를 시킬지, 또한 이 기준 중 몇 가지는 충족해야 ‘제외 확정’으로 분류할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특수 어휘나 특수한 한자어 등은 저빈도일 뿐만 아니라 말뭉치 빈도도 0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 확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지금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국어사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인지 판단이 어려움. 일반 국민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 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표준》의 표제어 등급화를 논하기에 앞서, 다수의 자문위원이 기존 어휘를 삭제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음. 특히, 앞으로의 《표준》이 더 이상 종이사전을 지향하지 않는 만큼, 기존 어휘를 보존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표제어 등급화의 그 근거로 말뭉치나 빈도 조사만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음. 이는 말뭉치를 구성하는 자료의 종류나 성격 등이 우리의 언어생활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음.

‘세부 전문 분야 표제어’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음.

#### 나. ‘《표준국어대사전》 계열어 정비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계열어 처리 방식과 기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오케스트라 구성 악기명이라든가, 그림물감의 색채명 등도 계열어 처리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기준은 검토해야 할 것임.
- 《표준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에 참고 어휘 집필 원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어 그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 함.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을 들어 됨.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에 제시된 참고 어휘 집필 원칙

1. 참고 어휘는 관련 어휘처럼 표제어와의 명시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나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어휘를 말한다. 참고 어휘에는 이형태,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어나 이칭어, 느낌이 다른 의성·의태어,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진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선행하는 어간의 종류에 따라 분화되는 어미, 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들이 포함된다.
2. 참고 어휘는 같은 품사의 단어뿐 아니라 품사가 없는 것도 제시할 수 있다. 전문어의 경우에는 같은 품사의 단어는 물론, 구 구성과 단어 또는 단어와 구 구성, 구 구성과 구 구성이 서로 참고 어휘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전문어의 영역이 같지 않더라도 표제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있다.

-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를 기본 표제어에만 제시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지침대로라면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설명을 담아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2) 자문 위원 B

- 특히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계열어의 경우(예: 웃놀이 관련어), 한국어의 어원적 연구를 고려할 때 단독형의 제시도 필요하나, 이들 관련어는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역할이 아닐까 함.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참고 어휘에 대한 지침 마련 시 유의해야 할 점

- ① 참고 어휘의 제시는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고 기준을 수립하여 지침을 제시해야 함.
  - ② 참고 어휘만 따로 묶어서 검토하는 것이 기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함.
  - ③ 기준과 범위는 사전 편찬 위원회나 사전 개편 위원회에서 따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를 기본 표제어에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라 ‘사가택’, ‘사택(A)’은 각각 ‘사돈집(B)’의 높임말.’로 풀이되어 있으므로 ‘사돈집’(B)에서 ‘「높」 사돈택, 사가택, 사택’으로 제시되어야 함. 표준 지침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자문 위원 C

- 계열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목록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각 계열어는 뜻풀이 형식이 동일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하면 ‘표제어(피정의항)= 뜻풀이+ 유개념(상위어)의 형식을 일관되게 갖출 필요가 있음. 유개념이 “~를 일컫는 말(이르는 말)” 등의 메타언어식으로 정보를 주어도 되지만, 계열어 사이의 뜻풀이 형식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초춘~초동’, ‘조춘~조동’, ‘만춘~만동’은 참고 어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 참고 어휘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조하-만하’ 등과 같이 아래위로 참고 어휘를 제시할 경우,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과잉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 경우에는 예컨대, ‘조하, 만하’는 ‘여름’ 상위어만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음.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참고 어휘는 일러두기에 아래와 같이 한정했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 어휘에 대한 기준을 더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에 제시된 참고 어휘 집필 원칙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이나 이칭,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어간이나 어미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 결론만 말하면, 높임말이 <관련 어휘> 정보이므로, 표제어 평어가 어떤 경우라도 높임말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음. 정보의 과잉보다는 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러함. 따라서 표제어 ‘사가8’의 관련 어휘에 ‘사가덱’을 높임말로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함.

### 4) 자문 위원 D

- 일관성과 기준을 가지고 참고어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지적인 바와 같이, 만하를 찾으면 조하가 참고 어휘로 되어 있지만 만춘을 찾으면 조춘은 참고 어휘로 나오지 않음. 이런 경우 참고 어휘로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은 것 사이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음. 그



래야 이용자로서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사전 기술의 정합성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 참고 어휘에 대한 사전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어떤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제어를 뜻풀이 제일 밑에 「참고 어휘」로 보여 주었다.

(2)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이나 이칭,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어간이나 어미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위의 (2)에 기술된 것을 보면 참고 어휘의 기준이 언뜻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이거나 명료하지 않아서 사전 기술 시 지침으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임. (2)의 내용을 반영하되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 액체에 대해서는 고체와 기체가 참고 어휘로 되어 있지만, 봄에 대해서는 여름, 가을, 겨울이 참고 어휘로 나와 있지 않음.
- 사전의 지침이 기본 표제어에 대해서만 높임말을 제시하게 한 이유는 풀이에 기본 표제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함.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표제어를 찾으면 기본 표제어들로 풀이가 되어 있고 그 풀이에 ~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표제어의 평어를 알 수 있게 됨. 참고 어휘나 관련 어휘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어휘 전체의 네트워크를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단어를 제시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관련 어휘를 제시하는 현재의 기술 태도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임. 단,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편찬 지침에 기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 5) 자문 위원 E

- 계열어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열 관계의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사용 빈도 및 의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문학 전문 용어로서

‘일인칭 시점’, ‘삼인칭 시점’은 가능하나 ‘이인칭 시점’은 불가능함. 그리고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은 계열어로 볼 수 있는 데 반해, ‘무인칭’은 형태적으로는 계열어이나 의미적으로는 계열어 여부가 불분명함. 따라서 ‘무인칭’은 계열어가 아닌 것으로 보아 표제어에서 아예 삭제할 수도 있고, 계열어로 보아 표제어로 등재할 경우에는 그 계열어의 논리적 관계를 뜻풀이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어야 함.

- 따라서 계열어 여부를 파악할 때는 계열어의 논리적 관계를 뜻풀이에서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고려해야 할 듯함.
- 대표적인 참고 어휘의 한 종류인 의성의태어의 표제어 선정이 체계적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감감’, ‘깜깜’, ‘캄캄’ 등은 참고 어휘로 제시돼 있으나 이로부터 파생된 ‘감감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등은 참고 어휘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깜깜하다’와 ‘캄캄하다’는 뜻풀이 상으로 참고 어휘임을 알 수 있으나 ‘감감하다’는 이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감감하다’는 뜻풀이(의미)만 보면 ‘깜깜하다’, ‘캄캄하다’와의 의미 관련성이 얼마간 동떨어져 보임. 그러나 ‘감감’, ‘깜깜’, ‘캄캄’ 등과 비교할 때 아무런 의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움. 그리고 ‘살짝’, ‘슬쩍’ 등은 ‘살금살금’, ‘슬금슬금’ 및 ‘살며시’, ‘슬며시’ 등과 비교하여 동일한 의미관계의 참고 어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어휘로는 제시돼 있으나 뜻풀이 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음. ‘살짝’과 ‘슬쩍’은 둘 다 기본 의미가 ‘남의 눈을 피하여 재빠르게’로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이들은 동의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고 어휘인 의성의태어는 체계적인 표제어 선정도 중요하지만, 의미관계 파악 및 그것의 정확한 뜻풀이 반영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 ‘사가8’, ‘사가덱’, ‘사덱’ 등이 개편될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될 정도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말인지 의문스러움.
- 표제어로 등재될 정도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말이라면 기계적인 제시 및 기술보다는 실제 용법에 근거하여야 함.
- 체계성에서 벗어난 용법을 보이는 표제어의 경우에는, 뜻풀이에서 그 특

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음.

-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의 하나로 ‘높임말’을 포함하는 것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말’, ‘너’ 등의 경우에는 높임말인 ‘말씀’, ‘자네’ 등을 제시하지 않고 ‘말씀’, ‘자네’ 등의 뜻풀이에서 높임의 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그 밖의 높임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모름.

#### 6) 자문 위원 F

- 이러한 계열어에 속하는 단어들은 엄청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우선은 이러한 계열어를 빠짐없이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임. 그런데 계열어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빈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음. 예컨대 ‘상/중/하X’의 경우 항상 세 쌍의 단어가 온전하게 있지는 않을 것임. 가령 ‘下X’ 자리가 비고 대신 그 역할을 ‘低X’가 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음.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계열어에 대한 정보를 표제어에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계열어의 경우 계열 관계에 있는 단어들만 참고어로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함. 그 이외의 관련어들은 동의어나 반의어 제시만으로도 충분히 보임. 동의어나 반의어를 찾으면 거기에 해당 동의어나 반의어의 계열 관계 단어들이 참고어로 제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임.
-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를 기본 표제어에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편찬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계열어 정비 작업’과 관련해서는 그 처리 방식·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열어의 논리적 관계가 뜻풀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더하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참고 어휘’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다. ‘《표준국어대사전》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라고 하더라도 기준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형태소의 관별 기준이 되는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등이 그것임.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임. 특이형태소라고 하더라도 생산성이라든가 의미소 추출 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사전이 문법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한다면 다양한 형태 분석 가능성에 대한 답을 사전이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음.
- 통시적인 변화나 어원 정보도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연구 결과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 단 모든 어휘의 어원을 알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사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일 것임.
- ‘본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정할 수 있는 본말이 현실 언어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같은 본말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에 동의함.

### 2) 자문 위원 B

- 사전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예를 들어 ‘동서남북’의 경우 [동(東)+서(西)+남(南)+북(北)]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고려할 만함.
-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것은 따로 밝혀서 분석하지 않았음.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사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봄. 허나 전문 연구자나 이 점에 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조>를 제시하여 해당 현상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봄.
- 독자에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는 ‘\*’ 기호 처리

한다는 기본 원칙만 제시해 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3) 자문 위원 C

-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의 형태 분석 문제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어깨번호를 넣어 동음이의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IC 분석에 어찌면 의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어깨번호를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음. IC 분석은 IC 분석이기 때문임. 그 의미는 표제어의 뜻풀이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임. 친절한 IC 분석 일 수는 있지만, IC 분석의 취지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임.
-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경우에도 어깨번호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수캐’의 경우, [수ㅎ+개]로 보여주는 것이 사전 사용자를 위해서나 통시적 ‘어원 정보’의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나머지 예들도 마찬가지임.
-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는 ‘\*’ 기호로 처리한다면, 그에 관한 내용을 개정된 <일러두기>나 <편찬 지침>에서 규정하면 될 것임. 다만, ‘직\* 출\* 감\*’과 같은 형태소가 한자어 형태소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등재된다면, ‘\*’ 기호가 불필요할 것임. 그리고 ‘\*’는 재구형 어형 기호와 유사한 점이 있긴 함.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구형 어형을 어원 정보에 표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구별만 된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함.

### 4) 자문 위원 D

- 표준 사전이 형태 분석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특히 IC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해 보임. 하지만 분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기술할 것인지 편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형태소 분석 결과만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함.
- 아울러 어근, 접사 정보도 포함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함.
-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

이 표면형에 반영된 것은 별도로 밝혀서 그 형태소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형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고려대 사전은 이형태에 대해, 이형태를 제시하고 해당 이형태에 기본형을 괄호 정보로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좁쌀’은 [+ 좁(조) + 쌀]과 같이 제시하는 방법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들이 ‘좁’과 ‘조’의 관계를 알기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음. 따라서 ‘좁(조1)+ 쌀’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이형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함. 표준 사전이 규범사전이고 규범사전은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대응하는 본말을 상정하기 어려운 준말의 경우,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과 제안한 바와 같이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음. 하지만 해당 유형의 단어에 대한 풀이를 보면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만큼, 특별히 형태소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음.

## 5) 자문 위원 E

- 표제어 상으로는 형태 분석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음.
- 형태 분석 정보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등과 같이 별도의 층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이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하다면 구성 요소들 사이의 계층 구조 및 구성 요소의 문법적 지위도 보여줄 필요도 있음. 그러나 일반인이 이용 대상자인 국어사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음.
- 형태 분석 정보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것을 별도로 밝혀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의 방침이 타당하고 봄. 즉, ‘좁쌀’, ‘수캐’ 등의 형태 분석 정보와 관련해 ‘좁쌀’, ‘수캐’로 제시하는 바람직함. 다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비슷하게 ‘좁(조)-쌀’, ‘수-캐(개)’ 정도로 제시할 수도 있을 듯함.

- 대응하는 본말을 상정하기 어려운 준말 부류의 말도 별도의 형태 분석 정보에서 ‘직-간접’, ‘출-퇴근’ 식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 등의 기호 사용 및 용법은 다른 기호의 사용 및 용법 등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할 문제임.
- 기호의 주된 기능이 기본적으로 복합어의 형태 경계를 보이기 위한 것인지는 아니면 선행(또는 후행) 형태의 문법적 지위를 보이기 위한 것인지 그것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 자문 위원 F

- 너무 복잡한 IC 분석은 곤란하지 않을까 함. 원칙적으로는 단어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두 부분으로만 나누어 주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IC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함. 예컨대 위의 ‘동서남북’은 둘로 나누기는 어려우므로 IC 분석을 하지 않고, ‘학자연하다’는 ‘학자연-하다’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함. 다만, ‘해돋이, 귀걸이’ 등과 같이 논란이 있는 단어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것은 별도로 밝혀서 분석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함. 분석하는 순간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는 형태의 이질성 때문에 오히려 언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뜻풀이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 결합했는지가 대충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함.
-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직간접’의 ‘직’이 국어사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직’이라는 표제항 자체는 여럿이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음.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라도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면 분석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분석에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음.

또한,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의 과정에서 통시적인 변화 혹은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것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원을 별도로 밝혀 적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직간접’류와 같이 준말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응하는 본말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 처리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다만, 찬성하는 견해에서도 사전에서의 ‘\*’ 표시가 본래 언어학계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음.

## 라.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방향’에 대한 종합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이 출현한 이후 국어사전을 비롯한 언어사전뿐만 아니라 전문 사전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음. 사전 생태계가 붕괴한 것임. 더구나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전들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하여, 거의 회복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음. 이는 시대적인 흐름이니만치 《표준국어대사전》만의 탓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그런 만큼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도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하겠음. 하지만 비난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책무까지 면하여지는 것은 아님. 수록 어휘의 보존과 주기적인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인 저장은 전자사전 시대의 《표준국어대사전》이 취해야 할 중요한 의무라고 하겠음.

### 2) 자문 위원 F

- 현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것을 일관되게 적용했으면 좋겠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침’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는 것 같음. 그리고 ‘문법 항



목'에 대한 사전 기술이 이번 또는 향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임.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이 단순한 뜻풀이를 넘어 개념어의 정의를 판단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곤 하는데, 사전의 문법 개념어 기술이 현재 학계에서 일반화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임.

### 3.2.2. 2차 자문

#### 3.2.2.1. 대면 자문

##### 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정비’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표준>의 제외 대상 어휘에 대한 2차 검토 기준 정립에 있어, '은어'는 사전 표제어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은어'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빈도어나 고어를 기준으로 삼고 그 예시로 은어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따위의 비속한 속담도 정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우리말샘》의 추가 표제어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말샘》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전이기에 연구진이 표제어를 추가하는 것은 일반인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2) 자문 위원 B

- 《우리말샘》의 추가 표제어 선정과 관련하여, <표준>과 <말샘>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전 개편의 내용이나 방향도 <표준>의 성격에 맞게 구성해야 함.

##### 나. ‘《표준국어대사전》 계열어 정비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B

- 의성의태어의 계열성을 맞추기 위해 언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공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 ‘《표준국어대사전》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형태 분석 정보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정보일지 의문스러움. 어깨번호가 계속 바뀌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함.

##### 2) 자문 위원 B

-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다만 분석 방식에 논란이 있는 단어들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정비안을 복수로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 라.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표준>의 기호 중 ‘→’는, 이용자들이 ‘참고하라’ 정도의 의미로 오해하기 쉬움. 따라서 ‘→’ 기호를 클릭했을 때 설명이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또한 민원 내용으로부터 표제어 정비 대상을 간추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빈도 검색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함.

##### 2) 자문 위원 B

- <표준>의 기호 중 ‘→’는, 이용자들이 ‘참고하라’ 정도의 의미로 오해하기 쉬움.

#### 3.2.2.2. 서면 자문

#### 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수정·보완’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사전에 등재되는 새로운 표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말뭉치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선별하게 되는 듯한데,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 중에서도 등재할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듯함. 본 사업에서 말뭉치에서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표제어 선정을 한 점은 일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수만을 가지고 표제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향후 사업에서는 빈도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단어 사이의 계열 관계, 단어의 지리적인 분포 또는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해 표제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음.
- 본 사업에서는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단어 선정’의 과업을 통하여 520개의 등재 후보 단어를 선별하였음.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말샘 등재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좋을 듯함. 또한 우리말샘 기준 ‘규범 표기 미확정 표제어’는 제외했는데, 그 결과 외래어나 혼종어로서 일상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제외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규범 표기를 선행적으로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등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 자문 위원 B

- 시대가 달라지고 사전의 독자가 달라졌음. 더 중요한 것은 종이사전이 아니라는 것임. 종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인터넷이라는 넓은 공간으로 옮겨 왔음. 정보를 알리는 데 공간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없어졌음. 부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것임. 뜻풀이가 ‘지나치게’ 간결하지 않아도 됨.
- 검색이 자유로운 시대임. 인명과 지명 정보를 얻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찾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임. 설사 꽤 있다 하더라도 빼고 가는 방향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게 좋음. 표준사전의 인명과 지명이 빠져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우리말샘도 있음. 이 자리에 새로운 말, 방언 등을 적극 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음. 필요하면 인명사전, 지명사전은 따로 만들어 제시하는 편이 나을 듯함.
- 독자들이 표준사전에 바라는 첫 번째 기대는 쉬운 설명일 것임. 뜻풀이

가 됐든, 규범에 관한 것이든 더 쉽고 편한 설명을 원함.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겠음. 이것만 꽤 만족시킨다면 더 많은 관심과 더 박수 받는 사전일 것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한눈에 알 수 있는 설명이 달린다면 용례도 필요 없겠음.

- 더 쉬운 사전이란 차원에서 뜻풀이의 문장이 더 쉬워졌으면 함. 뜻풀이의 문장에 대해 진단해 보는 것도 좋겠음. ‘사전의 언어처럼’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처럼’이 표준사전의 기준이 되는 게 이상적일 것임. 문장이 쉽고, 간결하고, 일상적이고, 대중적이고, 현재적인지 일반 독자 대상 설문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함.
- 세련된 문장보다 소박한 문장이 좋겠음. 진단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게 된다면 평소 문장이 괜찮은 작가, 기자들도 참여시키면 좋겠음. 직접 참여가 어렵다면 간접 참여라도 시키면 좋겠음. 신문사나 방송사의 논설위원이나 그에 준하는 경력의 기자들은 글을 쓰고 다듬는 일에 익숙함. 그들 가운데 괜찮은 문장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함.

### 3) 자문 위원 C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끝 자락인 2000년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의 백서 성격으로 펴낸 만큼,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함.
- 《표준국어대사전》을 개편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은 개편 방향의 정립이 될 것임. 그 하나는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인바, 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활용형의 제시, 오류형의 제시 및 규범형으로의 유도, 과거와는 달리 체계적인 말뭉치 구축을 통한 풍부하고도 정확한 용례의 제시 등이 될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지면의 제약을 벗어난 웹사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임. 이전의 종이사전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되어 제시되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지면의 제약 없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4) 자문 위원 D

-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 사전 편찬을 하면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완전히 새로운 사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전을 개편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작성된 부분과 기존의 사전 기술 사이에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수정·보완은 계열어 정비, 용례 현행화, 형태 분석 정보 구축 등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임.
-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개편하는 작업이 계속된다면 문형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 정보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명]이 [명]을 [명]에 가두다'와 같이 품사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연세한국어사전》(인쇄본)에서는 선택제약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참고하여 유용한 문형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표준》이 웹사전이 되면서 지면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전 종이 사전에서 간결히 제시되었던 정보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이를 테면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활용형의 제시, 오류형의 제시 및 규범형으로의 유도, 말뭉치 구축을 통한 정확한 용례의 제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이와 더불어 문형 정보에 주어를 포함하거나 품사 정보와 선택 제약 정보 추가 등을 통해 문형 정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그리고 뜻풀이가 지나치게 간결하지 않아도 되나, 뜻풀이의 문장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음.

또한 표제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여러 번 언급되었음. 등재되는 표제어를 선정할 때 말뭉치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표제어의 여부를 결정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어 사이의 계열 관계, 단어의 지리적인 분포나 역사적인 측면 등 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표제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리고 《말샘》의 등재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나. ‘《표준국어대사전》 계열어 정비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본 사업에서는 기존 계열어들의 정비를 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사업에서는 기존 계열어들의 정비뿐 아니라 기존의 표제어들에 관련되는 새로운 계열어들 또한 적극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말뭉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열어들의 목록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 본 사업에서의 계열어 정비는 기존 계열어들의 뜻풀이 방식을 통일하고 문형 등에서 일관성을 갖추는 것에 집중한 듯함. 이러한 형식상의 일관성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뜻풀이 작성에 있어 전문가 집필진의 자유로운 사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향후 사업에서는 형식상의 일관성보다는 집필진의 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를 진행하면 어떨까 함.
- 사전의 ‘참고 어휘’는 의미 관계에 있는 계열어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동의어/유의어, 상위어/하위어 등 의미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표제어들이 ‘참고 어휘’로 제시되면 좋을 듯함. 반대말이나 높임말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 어휘’에는 그 외의 계열어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예를 들어 본 사업에서의 계열어 정비 내용을 보면 ‘우의정’의 참고 어휘로 ‘영의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좌의정’의 참고 어휘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영의정’은 ‘우의정’ 및 ‘좌의정’의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있는 단어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친족 계열어, 시간 계열어 등 일정한 계열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참고 어휘’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이모’의 ‘참고 어휘’로 ‘고모’가 들어 있지만 ‘외삼촌’이 들어 있지 않은 까닭이 명확하지 않음. 아울러 ‘어제’의 참고 어휘로 ‘내일’만이 들어 있고 ‘그제’, ‘그끄제’ 등이 들어 있지 않은 까닭도 명확하지 않음. 또한 ‘작년’이나 ‘내년’에는 어떤 참고 어휘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통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참고 어휘의 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제어마다 참고 어휘의 수를 제한하는 등, 지침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2) 자문 위원 B

- 계열어 정비와 구축의 목적은 결국 설명의 일관성에 있고 쉬운 뜻풀이에 있을 것임. 이런 차원에서 계열어 관계에 있는 목록을 더 많이 구축하는 건 사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겠음. 그렇지만 하나의 계열을 새로이 발견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아 보임. 이것을 위한 과제를 누군가 따로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선 기존 계열어 목록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정비 내지 삭제하고, 정보통신 분야 등 새로운 목록도 찾아야 함. 경찰의 날, 과학의 날 같은 기념일도 목록에 올라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로 적절한 것인지 의심이 듦. 정보통신 분야는 외래어가 많으며 다듬은 말들도 있음. 다듬은 말 가운데는 현실에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많이 쓰이지는 않아도 덮어 두기 아까운 것들도 있음. 이에 대한 지침도 필요해 보임.
- ‘참고 어휘’는 표제어와 뭔가 연결 고리가 있는 어휘, 달리 찾아볼 만한 어휘, 표제어와 그 뜻풀이를 보충해 줄 만한 어휘, 비교해 볼 만한 어휘 정도로 이해됨. 어휘를 이해하는 데 직간접 도움이 되는 어휘로 들림. 표준사전은 북한어라고 별도로 알리고 있기도 함. 그렇다면 참고 어휘 목록에서 북쪽에서 쓰는 말을 일부러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임. 기준은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함.

## 3) 자문 위원 C

- 계열어 정비 작업을 위한 유의미한 목록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업에 임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태도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계열어 관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분석 결과로 ‘동일 접사 파생어 및 구성성분을 공유하는 합성어’(형태 계열어)에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동시에 ‘의미 범주 계열어’에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계열어에는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말,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하는 말, 같은 묶음으로 인식되는 의성의태어, 조사와 어미, 접사, 기타 묶음 단위 검토가 필요한 표제어의 집합 등이 있는데, 계열어 정비 작업의 방식과 일반 원칙은 계열어 목록 보완, 계열어 세부 지침 마련, 유형별 계열어 정비 순으로 이어져야 함.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은 계열어 목록 보완 일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목록 DB를 바탕으로 계열어상 빈 자리를 찾는 작업, 뜻풀이상의 불균형 내지 불일치를 찾는 작업, 사회 변화 및 인식 변화에 따른 빈자리 찾기 등의 작업이 주어진 시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임.
- 《표준국어대사전》의 참고 어휘에 대한 정의 및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음.

(9) 『표준』의 참고어휘 정의

참고 어휘는 관련 어휘처럼 표제어와의 명시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나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어휘를 말한다.

(10) 『표준』의 참고어휘 유형

①이형태, ②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③상위 범주어, ④하위 범주어, ⑤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⑥별칭어나 이칭어, ⑦느낌이 다른 의성·의태어, ⑧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진 말, ⑨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⑩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⑪구별해야 하는 말, ⑫선행하는 어간의 종류에 따라 분화되는 어미, ⑬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

- 위의 정의 및 유형 분류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으나, 사전의 실재에 있어서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 그 중에서도 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전문어 표제어의 뜻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표제어들을 찾아보아야 하는, 이른바 “사전 뽕뽕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



의 참고 어휘 유형 중 ⑩을 해당 표제어 아래에서 한자 어원 정보를 제시하면서 간략한 뜻풀이를 제시해주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예) 당근: 산형과의 두해살이 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나고 우상 복엽이다. 여름에 흰 꽃이 줄기 끝에 복산형 화서로 피고, 원뿔 모양의 불그레한 뿌리를 식용한다. [참고 어휘] 산형과(繖形科: 우산모양과), 우상(羽狀: 새의 깃 모양), 복산형(複繖形) ※표제어 미수록, 화서(花序: 꽃차례) 등.

- 위의 예시와 같이 참고 어휘 제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잃은 사례들은 최대한 수집해서 균형잡힌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4) 자문 위원 D

- 동일 접사 파생어나 구성성분을 공유하는 합성어 등의 계열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같이 붙임표(-)의 앞 요소 혹은 뒷 요소에 동일한 문자열을 포함한 표제어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야 할 것임. 또한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과 같은 계열어들의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제어의 붙임표를 무시하고 앞에서부터 혹은 뒤에서부터 정렬한 뒤 인접한 표제어끼리 비교하여 동일한 문자열을 공유하는 표제어들을 추출해야 할 것임. 이때 원어 정보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 의미 범주 계열어는 형태 계열어에 비해 계열어 목록을 확보하기 어려울 터인데 뜻풀이 첫 번째 문장은 대개 종차와 유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뜻풀이 첫 문장을 뒤에서부터 비교하면 뜻풀이가 유사한 표제어들의 목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사실 이 과업에서 계열어의 뜻풀이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 개의 계열어가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유효하지 않겠지만, 셋 이상의 계열어 중 일부만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위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품사, 전문용어 등에서도 일치도를 비교한다면 여러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계열어 관계에 있는 표제어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에는 참고 어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고 있음.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이나 이칭,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어간이나 어미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참고 어휘는 동위어, 상위어, 하위어 등으로 어떤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말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계열어 정비가 완료되면 많은 어휘들을 동위어 관계에 있는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먼저 기존 계열어 관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계열어 목록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비하고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계열어 목록의 보완을 위해 《표준》의 표제어 목록 DB를 바탕으로 계열어상 빈자리를 찾거나, 뜻풀이상의 불균형 내지 불일치를 찾는 작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기존 계열어 목록 정비와 더불어, 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계열어들의 목록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음. 다만 새로운 계열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계열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과제를 따로 수행해야 할 사람의 필요성 또한 제시된 바 있음.

‘참고 어휘’의 제시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어/유의어, 상위어/하위어 등의 의미 관계에 있는 계열어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전문어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어휘의 한자 어원 정보와 간략한 뜻풀이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함. 이와 더불어 참고 어휘의 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제어마다 참고 어휘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지침이 명확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다. ‘《표준국어대사전》 사전 용례 현행화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용례 현행화 작업에 있어 기존에는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용례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신문, 잡지, 교과서, 기타 문헌’에서의 쓰임도 적극적으로 용례에 인정해야 하고 구어에 가까운 뉴스, 드라마, 라디오 대담 자료 등에서의 용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소설, 수필, 시 등의 문학작품은 시기적으로 과거의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쓰임과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오히려 그로부터의 용례 활용을 다소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례들을 사전에서 활용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함. 이미 본 사업에서 활용한 우리말샘의 경우 우리말샘으로부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는 새로운 어휘들은 ‘인터넷 용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록 이를 참고하여 집필진이 작성하신 용례이기는 할 것이지만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함. 따라서 용례 현행화 작업에서는 각 출전 문헌의 비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도, 보다 일상적인 용례를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음.

## 2) 자문 위원 B

- 용례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 줌. 그렇지만 인용한 예의 출처가 이전 문학 작품인 경우 설명을 적절하게 보완해 주지 못할 수 있음. 너무 이전 작품은 제한하는 게 좋겠음. 물론 널리 알려진 작품이고 뜻풀이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작품은 제외임. 용례를 세 개 이하로 제시하라는 지침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2~3개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함. 다른 건 몰라도 ‘시’는 더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문체로 새롭고 달라 보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한 문장이 아니라 적어도 한 연 이상을 제시해도 좋을 듯함.
- 용례 출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제어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용례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음.

- ‘용례집에 예가 없고 실제 생활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작성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지침은 불필요해 보임. 용례를 제시할 수 없다면 표제어도 빼는 게 상식이겠음.
- 기본형이 아니라 활용형이 다양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도 지침에 넣으면 좋겠음. 일부 단어들의 경우 활용형 문제로 혼란을 겪기도 함. 용례에 넣기 어렵다면 별도 해설을 통해 보여 주는 것도 좋겠음.
- 문자에 관해서도 지침을 두는 게 좋겠음. “‘TV’처럼 영문자가 인용례에 나오는 경우는 그대로 인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 다른 예도 허용하게 됨. 예를 들어 신문에서는 로마자로 된 국제기구 약칭을 흔하게 사용하나,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음. 표준국어대사전이니 이럴 때도 로마자 약칭보다는 본래 이름을 표기하는 방향이 낫겠음. 한국어로 된 약칭을 제시할 수도 있음. 아니면 같은 단어를 사용한 다른 인용례를 찾는 게 적절해 보임.

### 3) 자문 위원 C

- 용례 현행화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의 말뭉치 구축 사업이 필요함. 소설과 수필의 용례 자료 목록도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특정 회곡 작품이 반복 제시됨으로써 독자들의 불만을 산 부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용례 자료 목록이 풍부화되어야 함. 신문, 잡지, 시 등의 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수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일상어에 잘 쓰이지 않는 “즈믄해” 등의 용례는 신문, 잡지, 시 등에 나타날 확률이 높는데, 이들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표제어를 신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용례 집필 작업을 위한 지침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

### 4) 자문 위원 D

- 용례 현행화를 위해서는 기구축된 말뭉치를 활용하거나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 용례를 보충해야 할 것임. 다만, 인용례의 경우 출전을 밝혀야 하므로 용례의 출처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작성례의 경우 말뭉치나 웹 검색을 이용하여 문장을 뽑은 뒤 다듬어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임. 단, 이때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2>에 용례 작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라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새롭게 작성된 예들을 보면 지나치게 긴 용례도 보이는데 표제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할 것임.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용례의 현행화를 위해 용례 자료 목록이 풍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음. 구체적으로는 각 출전 문헌의 비율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보다 일상적 용례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며, 문어 자료 이외에도 신문, 잡지, 교과서 등의 자료, 그리고 구어에 가까운 뉴스 및 드라마 등에서의 용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또한 말뭉치 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여러 번 언급되었음.

용례 출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다만 문학 작품의 경우 과거의 자료들이 많고 일상적 쓰임과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제외하고는 이로부터의 용례 활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함.

덧붙여 단어의 기본형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형이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음.

### 라. ‘《표준국어대사전》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단어의 어종 판단이나 형태 분석은 한국어 화자의 직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형태 분석의 경우, ‘공권력’을 예로 들면 사전에는 ‘공권-력’으로 형태 분석 정보가 들어 있으나, 대다수의 한국어 화자들은 ‘공-권력’으로 형태 분석을 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예시들을 수집하여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를 사전에 기록하는 편이 좋을 듯함.
-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할 때, 합성어 또는 파생어와 같은 단어 유형의

정보도 제공되는 것인지 궁금함.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왕에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단어 유형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보다 유용할 듯함.

- (형태 분석 정보 구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형의 형태 분석 정보를 사전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와 구별되는 유용성이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또한 형태 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기호들에 보다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눈에 띄는 곳에 제공할 필요도 있겠음.

## 2) 자문 위원 B

- 평소 관심 있게 들여다보거나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답할 수밖에 없음. 현재 사전에 실린 어휘 가운데 이런 예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부류로 나눌 수 있는지, 비슷하게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를 이미 살펴보고 계획하고 있으실 수도 있겠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들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음.
- 형태의 구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의 뜻풀이를 더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듯도 함.

## 3) 자문 위원 C

- 형태 분석 정보 제시에 있어서 기존의 IC 분석이 불가능한 복합어들에 대하여 내부 구조 정보를 제시하는 방향은 좋은 것으로 판단됨.
- IC 분석을 표제어에 하이픈(-)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요일어 “목-요일”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음. “목-요일”인데도 표준 발음이 [모교일]인 것을 표준발음법과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이 경우 [몽뇨일]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더구나 “목요-복싱”, “목요-국악”, “목요언론인클럽” 등의 어휘의 존재는 그 형태 분석을 “목-요일/목요-일” 정도의 복수형 제시도 가능하도록 수정하면 어떨까 제안해봄.
- 이밖에 어종(한자어, 외래어 등)이나 단어 구성 방식(두음절어, 혼성어

등)에 따른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4) 자문 위원 D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임. 그러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전후방'도 관점에 따라서는 '전+후+방'과 같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임.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를 표시하는 것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큼. <고려대한국어사전>과 같이 층위를 구별하지 않고 구성요소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임. 최종보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구성요소에 어깨번호를 달고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에는 \*표를 달고 있는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과한 정보라고 생각됨.

#### [자문 의견 종합 정리]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음. 특히 IC 분석이 불가능한 기존의 복합어들에 대해 내부 구조 정보를 제시하는 것의 유용성이 언급되기도 함. 형태 분석 정보와 더불어 합성어, 파생어 같은 단어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자는 입장도 있었음.

다만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에 있어서 단어의 어종 판단이나 형태 분석이 한국어 화자의 직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지적되었음. 따라서 형태 분석에 대한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를 사전에 기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어종이나 단어 구성 방식(두음절어, 혼성어)에 따른 분석 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 또한 언급됨.

또한 형태 분석 정보의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구성 요소에 어깨번호를 달고 그렇지 않은 요소에는 \*표를 다는 것이 가독성이 떨어지면서도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과한 정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마.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B

- 동사의 쓰임 형식을 문장에서 쓰이는 형태를 제시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것과 아울러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밝혀 주는 게 좋을 듯함. 자동인지, 타동인지를 바로 알고 싶어 하는 독자도 많음. 동사에 관한 정보를 바로 알게 하는 방편이기도 함. 특히 사전을 많이 이용하는 출판 편집자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됨.
- 표준사전에서 ‘감사-하다’를 찾아보면 ‘【…에게 …에】 【…에게 …을】 【…에게 -음을】 ((‘…에’나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라고 네 가지 형태의 문장 형식이 풀이말 앞에 제시되어 있음. 그렇지만 용례는 세 개가 제시되어 있음. 하나의 형태에 대해선 굳이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음. 그렇지 않고 각각의 형태를 모두 제시해 주는 게 좋겠음.
- 차별적 표현은 용례를 제시할 때 넣지 않는 게 원칙이어야 함. 성차별, 지역차별, 인종차별 등의 문제는 예민함. 일상에서 익숙한 표현들은 얼른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음. 그래서 더욱이 이것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만드는 게 좋겠음. 차별어 목록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북한어를 제시할 때 ‘북’이라고 하지 말고 뜻풀이에 북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나아 보임. 북한어라고 먼저 표시를 해 놓으면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음. 남과 북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보게 하는 오해를 낳게 할 우려도 있어 보임.

## 2) 자문 위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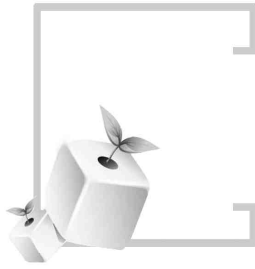
- 《표준국어대사전》을 개편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의 하나는 독자들이 원하는 바(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방향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 ①최다 표제어 집착에서 온 한자어, 외래어, 전문어들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면서 무성의한 뜻풀이를 남발한 것에 대한 반성, ②“자궁”의 뜻풀이에 등장한 “정관”의 오류를 비롯하여 뜻풀이에서의 오류에 대한 시정, ③앞서 든 “당근” 뜻풀이에서 보이는 이른바 “사전 뽕뽕이”에 대한 반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④용례 집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들을



온전한 말뭉치로 구축하는 작업, ⑤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활용형의 제시, 오류형의 제시 및 규범형으로의 유도 등의 과업 수행, ⑥지면의 제약을 벗어난 웹사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이전의 종이사전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되어 제시되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지면의 제약 없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편을 진행하기를 바람.

### 3) 자문 위원 D

- 표제어 등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외 대상 어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 그러나 기대한 표제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자들은 당혹감을 느끼게 됨. 예를 들어 국가명만 남기고 도시명을 삭제하기로 했으면 모든 도시명을 삭제하는 것이 일관성을 위해서는 옳은 일이지만, '서울, 부산'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일관성과 편의성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제 6 장

#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 제6장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 1. 조사 목적 및 취지

《표준》의 사회적 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행정, 언론, 법률 등 각 분야에서 《표준》이 어떻게 인용·활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다. 이때 국어사전 및 어문규범 정책 발전을 위해 어떤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국어사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및 홍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2.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 2.1. 조사 대상

《표준》의 이용자 집단을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문가’는 교육, 행정, 언론,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표준》 이용자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20~60대까지 고루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성별은 남녀 성비 1:1로 설정하였다. 설문 인원은 일반 국민 100명, 전문가 52명의 규모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중 ‘교육’ 분야로는 현직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언론’ 분야로는 어문기자협회 소속 현직 어문 기자, ‘행정’ 분야로는 행정 기관에 재직 중인 현직 공무원, ‘법률’ 분야로는 법학과 소속 현직 교수 및 법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야별 1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37> 응답자 특성표 - 일반 국민

		사례수(명)	비율(%)
■ 전 체 ■		(100)	100.0
성별	남성	(356)	50.9
	여성	(344)	49.1
연령	20대	(94)	13.4
	30대	(116)	16.6
	40대	(112)	16.0
	50대	(128)	18.3
	60대	(128)	18.3

<표 38> 응답자 특성표 - 전문가

		사례수(명)	비율(%)
■ 전 체 ■		(52)	100.0
성별	남성	(50)	50.0
	여성	(50)	50.0
연령	20대	(20)	20.0
	30대	(20)	20.0
	40대	(20)	20.0
	50대	(20)	20.0
	60대	(20)	20.0
전문 분야	교육	(20)	20.0
	행정	(20)	20.0
	법률	(20)	20.0
	언론	(20)	20.0

## 2.2. 조사 내용

이 연구에서는 《표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의 사회적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목적에 맞게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 도구는 크게 참여자 기본 사항, 《표준》의 활용도, 《표준》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 52명 중 20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위주의 심층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39> 조사 설문 문항 - 일반 국민

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거주지</li> </ul>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빈도</li> <li>■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경로</li> <li>■ 《표준국어대사전》 주된 이용 목적</li> <li>■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활용하는 부분</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일상 생활에 도움 된 정도와 그 이유</li> <li>■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 활용 경험 여부</li> <li>■ 《표준국어대사전》이 업무 수행에 도움 된 부분</li> <li>■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정도와 그 이유</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li> <li>■ 《우리말샘》 사전 이용 여부</li> <li>■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 이용하는 경우</li> <li>■ 《우리말샘》 사전의 일상 생활 도움 정도와 그 이유</li> </ul>
《표준국어대사전》이용자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식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li> <li>■ 신문 기사 예시를 통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효과 평가</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그 이유</li> <li>■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이용 경험 여부</li> <li>■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편리성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li> <li>■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편리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그 이유</li> <li>■ 사전에 대해 지지하는 견해</li> <li>■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li> <li>■ 응답자의 일상생활과 사전에 대한 질문</li> </ul>

전문가 일반 설문지와 심층 설문지의 다른 점은 아래 문항 중 밑줄로 표기된 문항으로, 해당 문항의 경우 심층 설문지는 주관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표 40> 조사 설문 문항 - 전문가

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거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li> </ul>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빈도</li> <li>■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경로</li> <li>■ <b>《표준국어대사전》 주된 이용 목적</b></li> <li>■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활용하는 부분</li> <li>■ 《표준국어대사전》이 업무 수행에 도움 된 정도와 도움 된 부분</li> <li>■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경험 여부</li> <li>■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인용하는 부분</li> <li>■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주된 목적</li> <li>■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정도와 <b>그 이유</b></li> <li>■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li> <li>■ 《우리말샘》 사전 이용 여부</li> <li>■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 이용하는 경우</li> <li>■ 《우리말샘》 사전의 업무 수행에 도움 된 정도와 그 이유</li> </ul>
《표준국어대사전》이용자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b>그 이유</b></li> <li>■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신하여 참조하는 자료</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li> <li>■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그 이유</li> <li>■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이용 경험 여부</li> <li>■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편리성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li> <li>■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편리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b>그 이유</b></li> <li>■ 사전에 대해 지지하는 견해</li> <li>■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li> <li>■ 응답자의 일상생활과 사전에 대한 질문</li> </ul>

## 2.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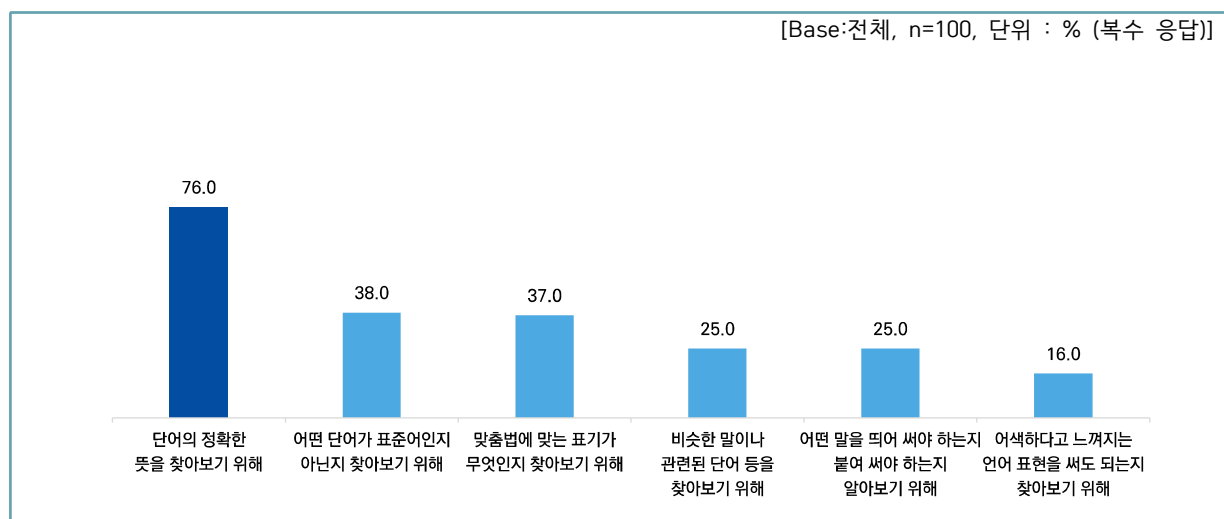
### 1)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 조사

#### (1) 일반 국민의 《표준국어대사전》 활용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이용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주일에 1~2회’가 4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개월에 1~2회(35.0%)’, ‘6개월에 1~2회(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이 41.0%로 일반 국민 중 대다수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이용 경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통해 이용’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13.0%)’, ‘종이 사전으로 이용(6.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 분류에 상관없이 모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통해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가 7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38.0%)’,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3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 분류에 상관없이 모두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주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뜻풀이’가 5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표기(51.0%)’, ‘원어(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복수 응답)

《표준국어대사전》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 결과, ‘도움 되지 않는다’ 4.0%, ‘보통이다’ 14.0%, ‘도움 된다’ 57.0%, ‘매우 도움 된다’ 25.0%로 5점 평균 4.0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이 일상에 도

움 된다(보통이다+도움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n=96)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일상에 도움 된 부분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표준국어대사전》이 일상에 도움 된 부분

번호	내용	의견 수
1	뜻풀이 및 단어 어원에 활용	20
2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활용	13
3	헛갈리거나 모르는 단어 및 표현, 발음에 도움	13
4	올바른 언어력 구사와 이해	10
5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기 용이함	7
6	체대로 된 글쓰기 및 문서 작업에 도움	5
7	기타	15
합계		83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활용한 적 있다’ 75.0%, ‘활용한 적 없다’ 25.0%로 나타났다.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n=75)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표준국어대사전》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 부분

번호	내용	의견 수
1	문서 작성 시 활용	10
2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활용	9
3	단어 찾기 및 단어 뜻풀이에 활용	8
4	정확한 이해 및 표현에 도움	4
5	보고서 검수	3
6	정보력 향상	3
7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기가 용이함	3
8	의사전달 및 뜻 전달 가능	2
9	기타	20
합계		62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으로 얻게 되는 효과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작다’ 2.0%, ‘보통이다’ 16.0%, ‘크다’ 62.0%, ‘매우 크다’ 20.0%로 5점 평균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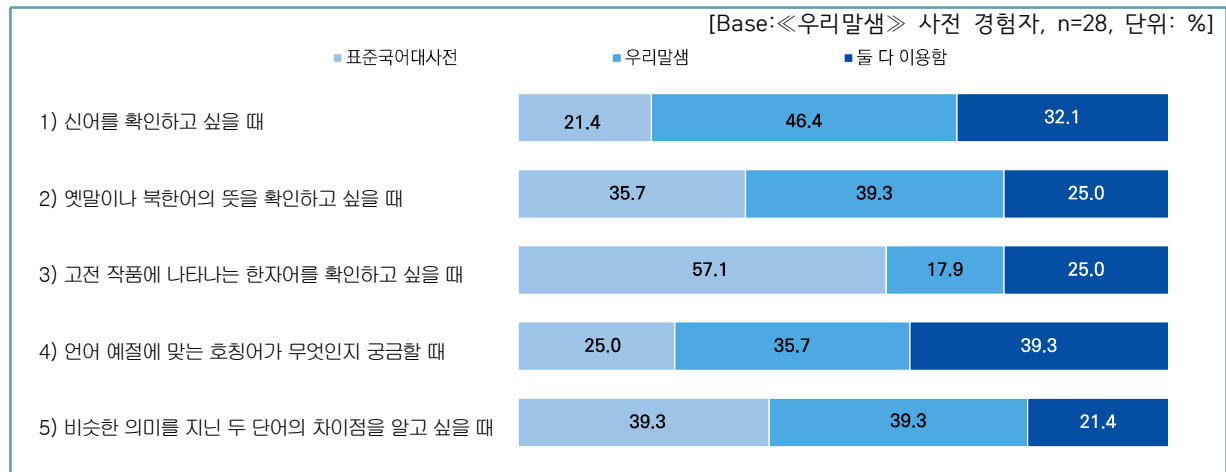


점으로 나타났다. 전체(n=100)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3>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번호	내용	의견 수
1	홍보 및 접근성 강화	18
2	현실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문 및 단어 풀이 제공	6
3	간편성 및 편리성 향상	4
4	대중성 단어의 표준어 등록 및 업데이트 필요	3
5	맞춤법 사전을 통한 실시간 교정	2
6	온라인에서의 활용도 강화(앱 개발)	2
7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추려서 사전 두께 축소	2
8	기타	14
합계		51

《우리말샘》 사전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해본 적 있다’ 28.0%, ‘이용해본 적 없다’ 72.0%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중 대다수의 이용자가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사전 경험자(n=28)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물어본 결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는 경우는 ‘고전 작품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39.3%)’, ‘옛말이나 북한어의 뜻을 확인하고 싶을 때(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옛말이나 북한어처럼 《우리말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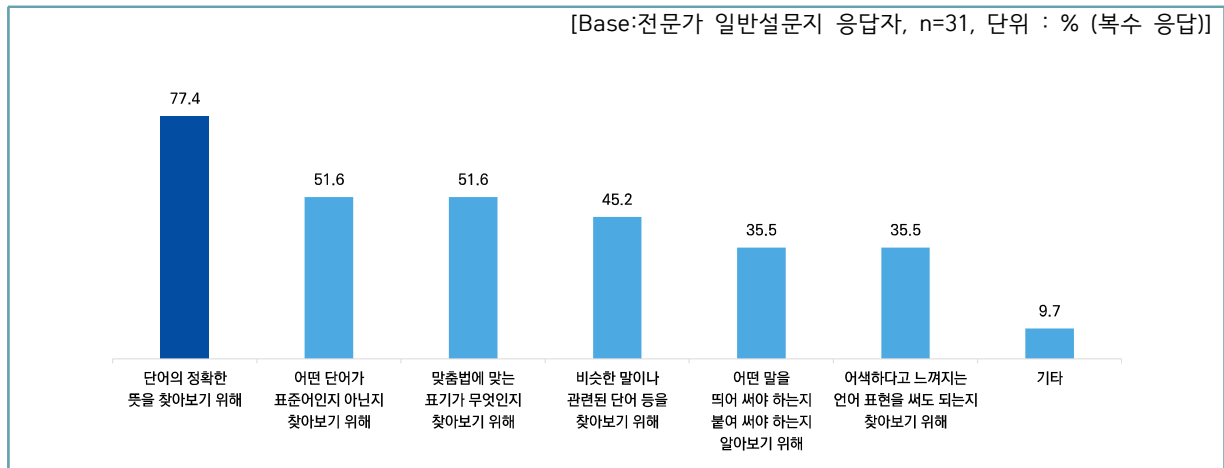
<그림 18>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

## (2) 전문가의 《표준국어대사전》 활용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주일에 3회 이상’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주일에 1~2회(26.9%)’, ‘1개월에 1~2회(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분야는 ‘1주일에 1~2회’가 53.8%, 법률 분야는 ‘1개월에 1~2회’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는 ‘1주일에 3회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경로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통해 이용’ 63.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36.5%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 분야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는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통해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에 대해 객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51.6%)’,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5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 분야는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심층설문지 응답자(n=21)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주된 이

용 목적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뜻풀이’가 7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용례(61.5%)’, ‘표기(53.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용례’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는 ‘뜻풀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9>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객관식, 복수 응답)

<표 44> 《표준국어대사전》의 주된 이용 목적(주관식)

번호	내용	사례 수
1	단어의 정확한 뜻풀이, 의미, 용례 및 어원 파악	7
2	맞춤법과 표현법 확인 및 사자성어 검색	7
3	문서 작성 시 활용	5
4	학교 수업 및 시험 출제 시 활용	4
5	표준어 여부 확인	3
6	표기법과 띄어쓰기 확인	2
7	기타	8
합계		36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통이다’ 9.6%, ‘도움이 된다’ 30.8%, ‘매우 도움이 된다’ 59.6%로 5점 평균 4.50점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이 ‘도움 된다’(‘보통이다’+‘도움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n=52)를 대상으로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이 도움 된 부분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5>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이 도움 된 부분

번호	내용	사례 수
1	단어의 뜻과 의미 및 활용례 참고	14
2	문서 작성 및 교정에 활용	13
3	단어의 정확한 쓰임과 적절한 표기 확인	10
4	맞춤법과 문법 및 띄어쓰기에 활용	6
5	수업 연구 및 시험 문제 출제 시 활용	6
6	표준어 여부 확인 및 오류 교정	5
7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어의 기준이 됨	3
8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생활 및 정확한 정보 제공	2
9	해석이 필요할 때 활용하여 문법 지식을 학습함	2
10	어문 및 표준어 규범 정보 확인	2
11	잘못 남용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 활용	2
12	신문 교열에 활용	2
13	동의어 및 유의어, 대체어 찾기	2
14	기타	13
합계		82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인용한 적 있다’ 59.6%, ‘인용한 적 없다’ 40.4%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가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뜻풀이’가 8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표기(38.7%)’, ‘용례(35.5%)’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주된 목적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6>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주된 목적

번호	내용	사례 수
1	교육 자료 제작 및 시험 문항 출제 시 활용	7
2	단어 뜻풀이와 의미 및 활용례 참고	4
3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어의 표준 및 기준, 근거가 됨	4
4	수업 내용의 정교화 및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	3
5	법률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밝히거나 법률상의 용법을 규명할 때 활용	2
6	문서 작성 시 활용	2
7	유의어 및 반의어 검색하여 어휘력 확장	2
8	단어가 잘못 남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 활용	2
9	독자들에게 법률 용어 및 단어의 정보를 제공할 때 활용	2
10	신문 기사를 수정하거나 설명 자료를 넣을 때 활용	2
11	기타	6
합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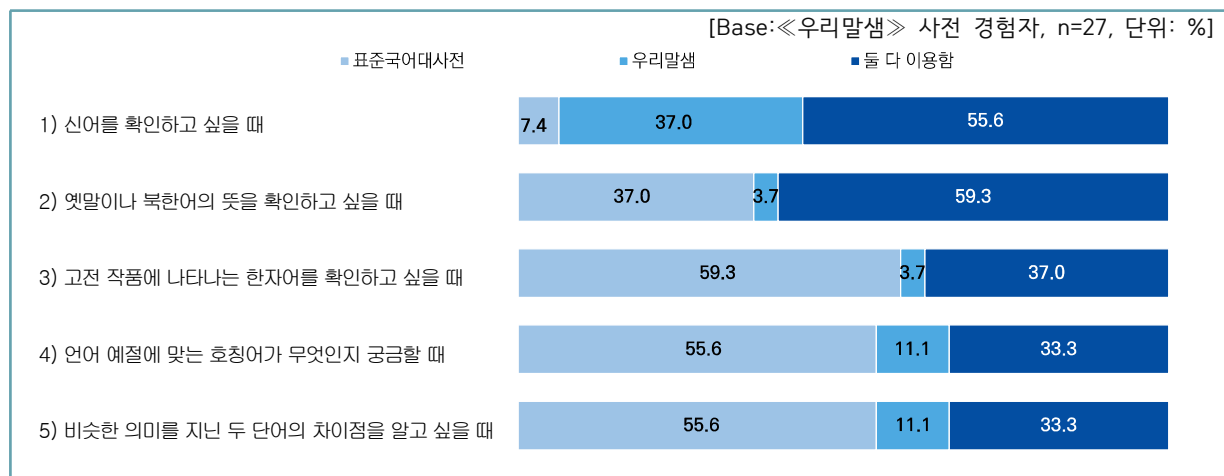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 활용으로 얻게 되는 효과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통이다’ 13.5%, ‘크다’ 32.7%, ‘매우 크다’ 53.8%로 5점 평균 4.4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n=52)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7>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번호	내용	사례 수
1	현 세대에 맞는 다양한 예문 및 풍부한 용례 제공	13
2	최근의 언어 활용 세태를 반영하여 빠른 업데이트	7
3	외국어, 일본어 및 한문이 있는 경우 순화어를 병기	4
4	단어의 어원과 관련한 정보 및 용례 제시	4
5	유의어 및 반의어, 동의어에 대한 직관적 제시 및 정보 다양화	3
6	특화된 전공 용어의 뜻의 낮은 정확도 및 사전에 미반영	3
7	《표준국어대사전》 접근성 개선 및 홍보 필요	3
8	단어에 대한 설명 및 뜻풀이가 구체적이고 쉬웠으면 좋겠음	3
9	유사어 및 반의어 용례의 다양성	2
10	시의성 있는 표제어 추가	2
11	기타	16
합계		60

《우리말샘》 사전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해본 적 있다’

51.9%, ‘이용해본 적 없다’ 48.1%로 나타났으며,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 분야가 92.9%, 교육 분야가 83.3%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사전 경험자(n=27)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우리말샘》을 이용하는 경우는 ‘신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 예절에 맞는 호칭어가 무엇일지 궁금할 때(11.1%)’,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비해 《우리말샘》 사전을 적게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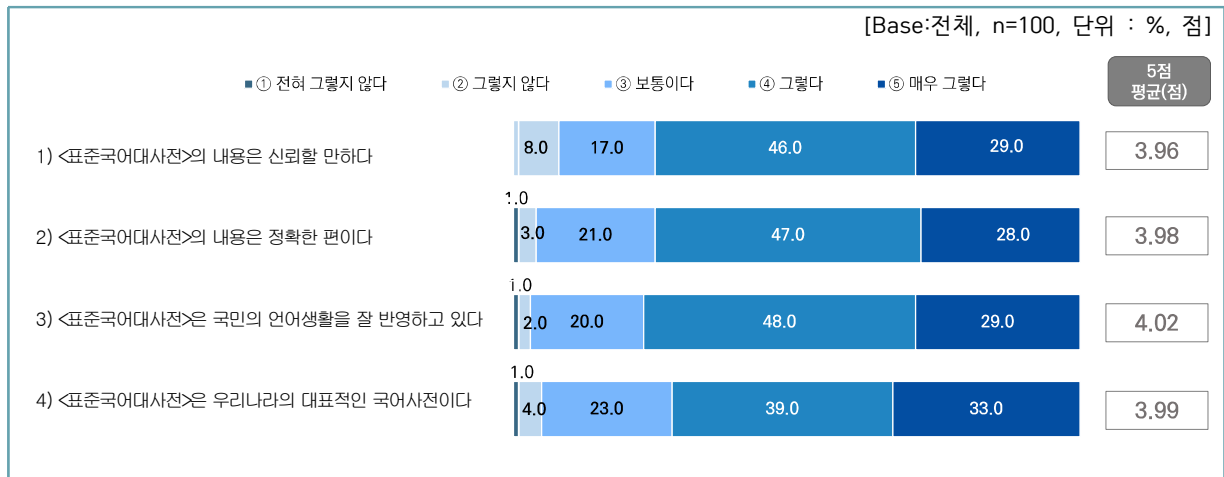
<그림 20>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

## 2)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 (1) 일반 국민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인식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식에 대해 각 항목별로 물어본 결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정확한 편이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각각 75.0%,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77.0%,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72.0%로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3.9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인식 평가

(가)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복 범죄'가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복(報復)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보복 범죄'란 단어가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다.

(나)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복 범죄'가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는 비판도 나온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복(報復)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보복 범죄'란 단어가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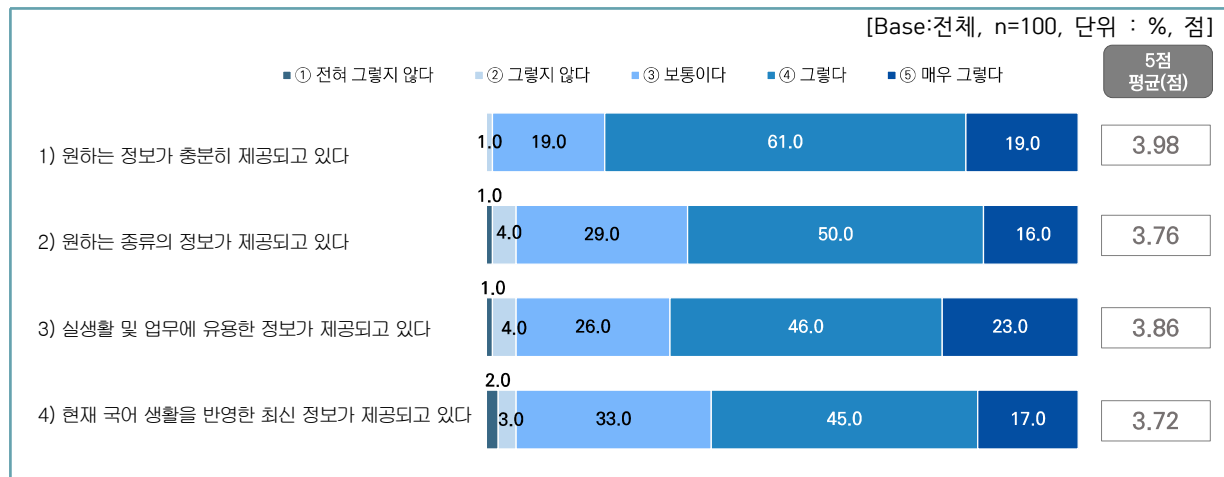
(가)의 신문기사를 (나)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보다 (나)의 신뢰성이 높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4.0%, “(가)보다 (나)의 정확성이 높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9.0%, “(가)보다 (나)의 전문성이 높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71.0%로 나타났다. 또한 “(가)보다 (나)의 신뢰성/정확성/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8> “(가)보다 (나)의 신뢰성/정확성/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한 이유

번호	내용	의견 수
신뢰성 부문		
1	표준국어사전이라는 근거 및 자료에 대한 출처가 명확함	33
2	단어의 표현 및 풀이, 의미, 내용이 정확함	8
3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가 생김	7
4	단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이해하기 쉬움	4
5	전문가 답변이라서 전문적으로 느껴짐	2
6	기타	17
정확성 부문		
1	표준사전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감	31
2	자료조사에 대한 출처 제공	8
3	단어 및 의미, 해석이 정확함	7
4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	5
5	기타	18
전문성 부문		
1	표준국어사전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전문성이 높음	30
2	자료조사에 대한 출처 제공	7
3	단어 및 의미, 해석이 전문적이고 정확함	6
4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	5
5	둘 다 비슷함	5
6	기타	18
합계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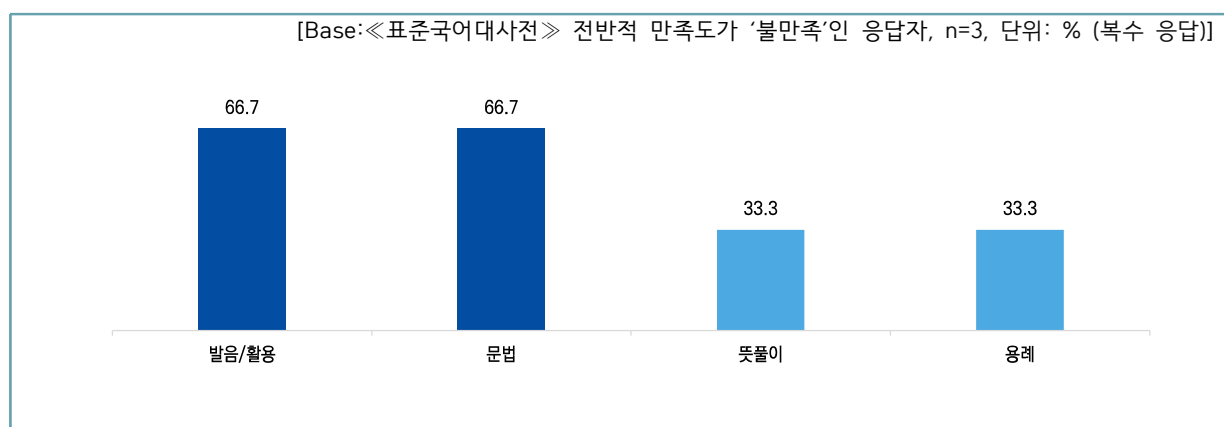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양, 질, 유용성 등)에 대해 각 항목별 물어본 결과,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80.0%, “원하는 종류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6.0%, “실생활 및 업무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9.0%, “현재 국어 생활을 반영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2.0%로 나타났다.





<그림 22>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및 내용 충실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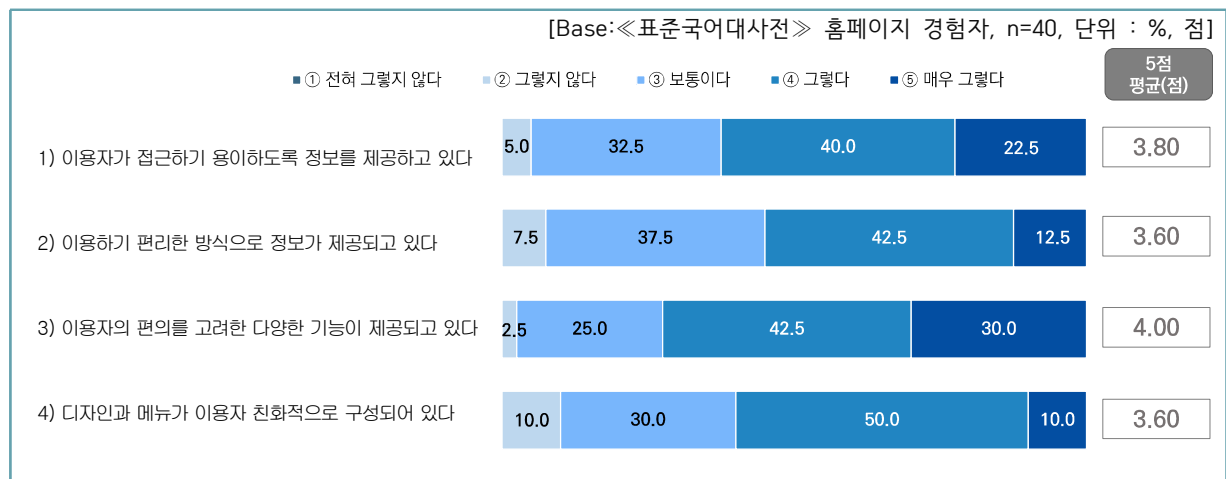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불만족’인 응답자(n=3)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발음/활용’, ‘문법’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복수 응답)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이용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해본 적 있다’ 40.0%, ‘이용해본 적 없다’ 60.0%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경험자(n=40)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편리성에 대해 각 항목별 물어본 결과,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2.5%,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55.0%,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72.5%, “디자인과 메뉴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0.0%로 나타났다.



<그림 24>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 사전)’,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 사전)’,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세 가지 견해 중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 사전)(39.0%)’,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 사전)(16.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견해를 지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9>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1) 기술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n=16)

번호	내용	의견 수
1	현실적 예시문 풍부화	2
2	기타	4
합계		6

<표 50>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2) 규범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n=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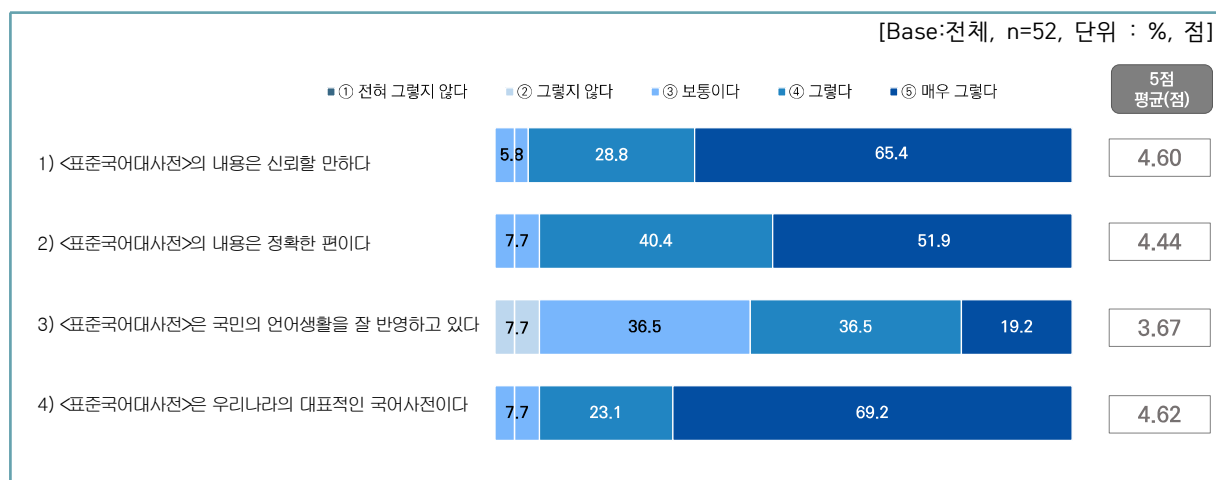
번호	내용	의견 수
1	현 시대에 맞는 단어 제공 및 추가	3
2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3
3	정확한 의미 전달	2
4	현 생활에 맞도록 휴대성 및 편리성 강화	3
5	기타	4
합계		15

<표 51>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3) 두 사전 모두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n=45)

번호	내용	의견 수
1	검색 범위 확장 및 화면 구성	2
2	편리성 및 실용성 강화	2
3	시대에 따른 언어 카테고리 추가 및 반영	5
4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문장 제공	2
5	기타	2
합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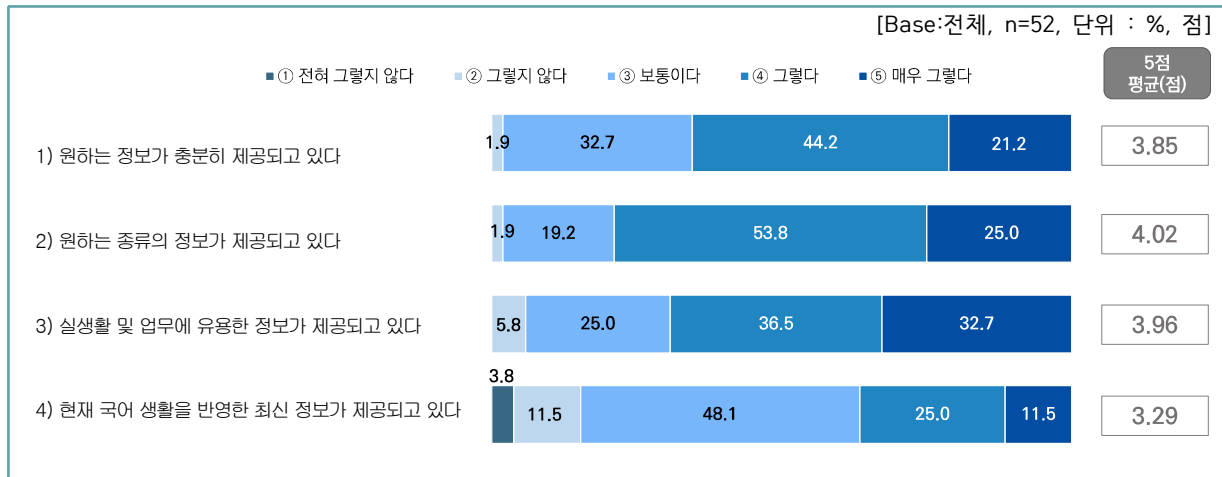
## (2) 전문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인식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에 대해 각 항목별로 물어본 결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94.2%,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정확한 편이다”와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92.3%,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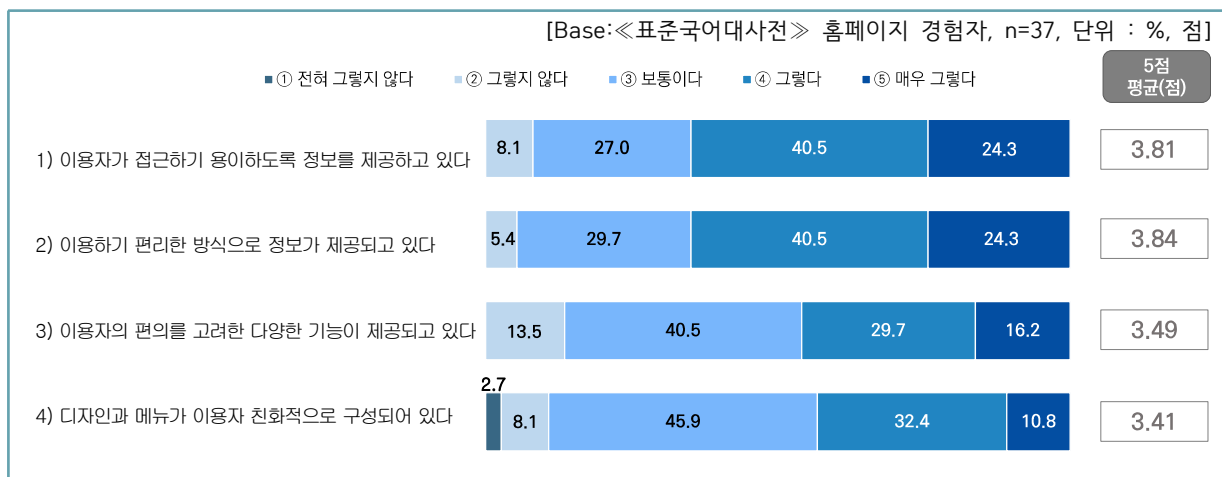
<그림 25>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 평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양, 질, 유용성 등)에 대해 각 항목별로 물어본 결과,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5.4%, “원하는 종류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78.8%, “실생활 및 업무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9.2%, “현재 국어 생활을 반영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그림 26>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 충실성 평가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해본 적 있다’가 71.2%, ‘이용해본 적 없다’가 28.8%로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경험자(n=37)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편리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와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4.9%,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5.9%, “디자인과 메뉴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3.2%로 나타났다.



<그림 27>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편리성 평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 사전)’,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 사전)’,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세 가지 견해 중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사전)’(28.8%),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사전)’(15.4%)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분야는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사전)’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견해를 지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2>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1) 기술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n=8)

번호	내용	사례수
1	현행 언어 사용에 대한 양적/질적인 업데이트 및 설명 필요	6
2	구체적이고 쉬운 뜻풀이와 그에 맞는 용례 필요	2
3	외래어 표기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	1
4	지명은 별도의 사전을 만들어 옮겼으면 함	1
합계		10

<표 53>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2) 규범 사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n=15)

번호	내용	사례수
1	시의성을 고려하여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및 내용 반영, 수정	4
2	표준국어대사전 접속 속도 개선 및 어플 업그레이드 고려	1
3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순화어 작업 및 홍보,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1
4	외래어 표기 방식 개선	1
5	복수 표준어 및 복수 발음 폭넓게 인정해야 함	1
6	지나친 복수 표준어를 지양해야 함	1
7	사이시옷과 표제어의 풍부화	1
합계		10

<표 54>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3) 두 사전 모두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n=29)

번호	내용	사례 수
1	언중들의 언어생활(단어 의미, 형태, 용례, 예문)을 빠르게 반영	11
2	신조어와 지역어 대한 뜻풀이 및 용례 최신화, 다양화	6
3	단어 및 현상의 의미와 개선 방향을 모두 기술 (정확한 언어 생활 방향 제시)	4
4	적절한 규범적 안내 및 규범 파트 추가	2
5	표제어와 활용 문장 및 의성어, 의태어 등재 확대	2
6	기타	9
합계		34



## 제 7 장

### 추후 사업 방향 제언





## 제7장 추후 사업 방향 제언

### 1. 계열어 정비

#### 1.1. 참고 어휘 상세 지침 필요

‘계열어’는 개별 단어가 아니라 단어 사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때 단어 사이의 관계는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이다. 또한 계열어는 두 표제어 이상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표제어와 쌍방의 관계를 맺는 표제어가 여러 개일 수 있다. 따라서 계열어 정비에서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 정보는 중점 검토 항목이 된다. 그런데 현행 표제어 정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비일관성의 문제가 있고, 이를 현재 《표준》 편찬 지침의 내용만 보아서 는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계열어 정보 수정 작업에서 이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참고 어휘 제시 기준이 필요하다.

<표 55> 현행 《표준》 참고 어휘 제시 현황

현행 《표준》에서 참고 어휘 미제시	현행 《표준》에서 참고 어휘 제시
게이름, 음이름, 요일명 <오감(五感)>(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 <모춘(暮春)/모하(暮夏)/모추(暮秋)/모동(暮冬)>	<도, 개, 걸, 옷, 모> <사신(四神)>(청룡, 백호, 주작, 현무) <두팔식/미팔식/양팔식/중팔식> <맹춘(孟春)/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

#### 1.2. 기타 《표준》 편찬 지침 수정 보완: 웹사전의 동의어 처리 방식 변경과 관련된 문제 등

- (1) 《표준》(웹)의 개편을 통해 기존의 기본 표제어로 돌리던 방식의 풀이는 의미를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전에는 ‘사가8 「명」 =사돈집.’이었던 동의어 풀이도 아래와 같이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sup>16)</sup> 이제 표제어의 뜻풀이 및 여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 표제

16) 물론 ‘≡’과 ‘=’ 기호를 통해 무엇이 기본 표제어인지는 여전히 구별된다. 그런데 이 기호의 차이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워, 일반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유의어와 동의어의 차이로 오인할 수도 있다.

어를 찾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가 아니다. 동의어의 풀이를 보여주는 방식이 수정되었는데도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 정보는 기본 표제어에만 제시하는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다.

<표 56> 현행 《표준》 동의어 풀이 제시 사례

<p>사돈-집(查頓집)「명사」 서로 사돈이 되는 집.≡사가. 「높임말」 사돈택(查頓宅)</p> <p>사돈-택(查頓宅)「명사」 「1」 ‘사돈집’의 높임말.≡사가택, 사택.</p>
<p>사가8(査家)「명사」 서로 사돈이 되는 집.=사돈집.</p> <p>사가-택(査家宅)「명사」 ‘사돈집’의 높임말.=사돈택</p> <p>사택(査宅)「명사」 ‘사돈집’의 높임말.=사돈택.</p>

위에서 기본 표제어는 ‘사돈집’, ‘사돈택’이기 때문에, ‘사가8’과 ‘사가택’은 단어 내부 구조상의 관련이 있는 짝이지만 높임말 관계를 직접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높임말(A)과 평어(B)의 경우, ‘B: 뜻풀이.「높」 A‘로 풀이하고, ‘A: ‘B’의 높임말.‘로 풀이”한다는 원칙<sup>17)</sup>에 따르면 ‘사가택’, ‘사택’(A)은 각각 “사돈집’(B)의 높임말.‘로 풀이되어 있으므로 ‘사돈집’(B)에서 ‘「높」 사돈택, 사가택, 사택’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표준》 지침의 해당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 (2) ‘뜻풀이에 사용된 말은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없다.’는 《표준》 편찬 지침 내용의 재고가 필요하다.<sup>18)</sup> 사전 이용자들은 뜻풀이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참고 어휘 정보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뜻풀이에 사용된 용어이더라도 참고 어휘로 보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계열어에 속한 표제어들의 정보 제시 형식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서 ‘뜻풀이에 사용된 말’이라도 참고 어휘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7) 《표준》 편찬 지침Ⅱ:530 참조

18) 《표준》 편찬 지침의 해당 내용을 적용한 예로 앞 절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예 참조

(3) 능동사와 피동사, 주동사와 사동사의 경우, 현재는 ‘피동사/사동사’에만 해당 정보가 있다. 즉 ‘잡-히다3「동사」 「1」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게 하다. ‘잡다’의 사동사.‘와 같이 뜻풀이의 부가 설명으로 해당 정보를 보인다. 그러나 짝이 되는 ‘능동사/주동사’ 표제어에는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다. 정보는 상호 표시되어야 하므로 한쪽에만 표시된 경우 이를 보충하여야 상호 참조 기능이라는 사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능동사/주동사’ 쪽에도 피동사와 사동사 정보를 추가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표준》 편찬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

### 1.3. 계열어 정비 후속 작업 방향 제안

#### 1.3.1. 계열어 유형별 성격의 상이에 따른 과업 분리 및 정비 범위 제한

이번 사업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계열어를 추출 및 목록화하여 계열어 정비 작업의 성격과 방향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형태를 공유하거나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한 어휘 이외에 의성 의태어, 낮춤말 및 높임말, 조사, 어미, 접사 등도 각각 계열어의 유형으로 다루어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들 어휘 부류들은 묶음으로 다루어 일관성 있는 정보 처리가 필요한 부류이지만 굳이 계열어의 하나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의성 의태어’나 ‘조사, 어미, 접사’(문법 형태) 등은 해당 유형이 하나의 분과 사업이 되어도 될 만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유형에 맞는 작업 방식도 다르다. 성격이 상이한 유형들을 ‘계열어 정비’라는 하나의 분과 사업으로 묶어 작업하는 것은 작업 계획 수립이나 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작업에서는 ‘계열어 정비’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범위를 좀 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계열어’의 의미도 재정의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실제 작업을 통하여 ‘동일 접사 파생어, 구성성분을 공유하는 합성어’(형태 계열어)와 ‘의미 범주 계열어’의 경우 그 성격과 작업 방식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정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계열어는 형태를 공유하는 것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계열어 안에 공존하기도 하고(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동일 접사 파생어를 하위 분류할 때 표제어의

의미 자질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권(券): 지폐, 승차권, 자격, 문서).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유형(의미형태 계열어)으로 보되, 다만 목록 구축 시 형태적 접근과 의미적 접근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3.2. 후속 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계열어 정비 대상

- (1) 의성 의태어(<ㄱ, ㄴ, ㅋ>, <ㄴ> 이외 자모)
- (2) 폐쇄 부류 품사들 (대명사, 수사, 의존명사 등)
- (3) ‘~높여/낮추어 이르는 말’(올해 작업한 낮춤말, 높임말 작업 관련)
- (4) ‘~의 줄어든 말.’, ‘~을 줄여 이르는 말.’ (올해 작업한 준말, 본말 작업 관련)
- (5) 상호 관련성이 있는 관련 어휘 계열어 (반대말 정보가 있는 표제어, 비슷한말 정보가 있는 표제어, 참고어 정보가 있는 표제어, 그 밖의 참조적 뜻풀이가 있는 말들인 주동사와 사동사, 능동사와 피동사, 원말과 변환말 등)
- (6) 국립국어원 요청 범위인 ‘이/그/저’, ‘요/고/조’ 결합형
- (7) 친족 어휘 등

작업의 효용을 위해 정비 목록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폐쇄 부류 품사의 정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올해 검토한 관련 어휘 계열어 중 ‘높임말, 낮춤말, 본말, 준말’과 관련하여 ‘~을 높여/낮추어 이르는 말.’, ‘~을 줄여 이르는 말.’, ‘~의 줄어든 말’로 풀이되는 표제어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어휘 정보가 있는 계열어 중에는 반대말 정보가 있는 표제어(6,167개)가 같은 뜻풀이 형식으로 풀이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이/그/저’, ‘요/고/조’ 결합형이나 친족 어휘 등 의미형태 계열어들을 계열어 정비 작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1.3.3. 의미형태 계열어의 목록 구축: 장기적인 구축 필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수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동일 접사 파생어 및 구성성분

을 공유하는 합성어'(형태 계열어)와 '의미 범주 계열어' 유형의 경우, 유의미한 목록을 대량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록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즉 이 유형은 목록 구축 자체가 선결 사업이 될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록의 추출과 선정에 좀 더 공을 들인 이후에 계열어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표제어를 먼저 정비해야 더욱 의미가 있다.

사전의 모든 표제어를 계열어 정비의 방법으로 교열할 수는 없다. 체계적인 어휘 분류 목록을 이용한다고 해도, 계열어 정비의 목적이 어휘의 정교한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뜻풀이 및 정보 제시의 일관성과 관련성, 사용자의 실용성, 작업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유형의 목록 구축은 어느 정도 채집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 사전 용례 현행화

### 2.1. 지침의 검토 및 보완 필요

#### ○ 오늘날의 용례 집필 작업 방식을 고려한 지침 필요

- '소설과 수필은 용례 자료 목록에 나온 것만 인용한다.', '신문, 잡지, 교과서, 기타 문헌, 시는 인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19)</sup> 등 현재 사전의 개편 방향과 괴리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 ○ 중간 보고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 결정 필요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인용례의 추가 보류: 그렇다면 현재 《조선왕조실록》의 인용례가 포함되어 있는 표제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90년대 이후 소설 인용례의 추가 보류: 90년대 이후의 소설 인용례만 추가하지 않을 것인지, 인용례로 제시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19)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485쪽.

-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기존 용례의 처리 방안: 현재 몇몇 단어로 검색해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항목을 선정했으나 해당 단어로 검색이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2. 현행화 사업의 범위 설정 필요

- 용례 추가가 필요한 표제어의 우선 순위 검토 필요
  - 오래된 소설을 용례로 활용한 고빈도 표제어와 무용례 표제어 중 용례 현행화의 우선 순위 검토 필요
- 부적절한 용례의 처리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
  - 인용례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인용례를 삭제할 것인지, 인용례를 작성례로 전환해 제시할 것인지(인용례 삭제)에 대한 처리 기준이 필요함.

## 2.3. 용례의 전체 검토 및 수정 필요

- 빈도에 따른 용례의 전체 검수 필요
  - 현 용례 현행화 사업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은 표제어(특히 빈도수가 높은 표제어)에 대한 용례 검토가 필요함.
  - 구 용례나 작성례가 빈약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말샘》과 중복되는 용례가 있는 경우 등은 기계적으로 항목을 선별할 수 없으므로 표제어 전반에 대한 용례 검토가 필요하며, 그 과정 후에 수정 항목 선정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형태 분석 정보 구축

2023년 사업에서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은 5천여 개의 복합어 표제어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형태 분석 정보를 어떠한

원칙에 따라 구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사업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3.1. 형태 분석 정보 구축 지침의 수정·보완

여러 가지 유형의 표제어들을 분석하면서 지침을 수정·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한자어나 외래어와 같은 어종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어는 한자·한문의 지식으로서의 한자어와 국어의 지식으로서의 한자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된다. 예컨대 ‘학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학(學)’과 ‘수학(數學), 약학(藥學), 철학(哲學)’ 등에서의 ‘학(學)’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 《표준》의 IC 분석에도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다만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게 된다.



‘전후방(前後方)’은 전방(前方)과 후방(後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현재의 지침에 따르면 ‘전\*+ 후방<sup>1</sup>’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때의 ‘전(前)’이 ‘전<sup>7</sup>(前)’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직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고, 각각에 맞는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전후방(前後方)’의 ‘전(前)’은 공간의 의미인 반면에 ‘전<sup>7</sup>(前)’은 대체로 시간의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이들이 모두 선행하는 무엇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상정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두루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2. 형태 분석 정보의 지속적인 구축

2023년 사업에서는 《표준》에 등재된 복합어들 중 5천여 개만을 대상으로 형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시범 사업으로서는 충분한 수량이라고 생각되나, 《표준》이 정합적이고 정보성 높은 사전이 되기 위해 형태 분석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는 더 많은 수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 분석 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복합어들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기존의 형태 분석 지침이 더욱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규범 정보 보완

2022년, 2023년 사업에서 규범 정보 보완 작업은 1단계 정비 방안 중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을 근거로 한 표기 제시’와 ‘표준어 규정을 근거로 한 표준어형 제시’, ‘표준어 규정에서 적시되지 않은 어휘의 표준어형 제시’, ‘표준 발음 제시 및 필요한 상세 정보 해설’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에서는 1단계 정비 방안 중 ‘규범 문법 정보 제시’ 등 활용 정보와 관련된 규범 정보와 2단계 정비 방안 중 ‘어휘의 표준적 뜻풀이 제시’, ‘유의 관계의 단어들 사이의 차이점 기술’ 등 뜻풀이와 관련된 규범 정보를 보완하고자 한다.

### <1단계 정비 방안>

-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을 근거로 한 표기 제시.
- 표준어 규정을 근거로 한 표준어형 제시.
- 표준어 규정에서 적시되지 않은 어휘의 표준어형 제시.
- 표준 발음 제시 및 필요한 상세 정보 해설.
- 문법 정보: 활용형, 문형 정보 등 규범 문법 정보 제시.

### <2단계 정비 방안>

- 어휘의 표준적 뜻풀이 제시.
- 유의 관계의 단어들 사이의 차이점 기술
- 언어 현실의 쓰임 및 기능 제시.
- 화용 정보: 특정 상황의 구체적 사용 정보 제시.
- 원어 정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등 원어 정보 제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표준》의 규범 정보를 보완하고자 한다.

### 4.1. 활용 정보 관련 규범 정보 보완

- 푸르르다/푸르다

<p><b>푸르르다</b></p> <p>발음 [푸르르다]</p> <p>활용 푸르러[푸르러] 푸르르니[푸르르니]</p> <p>「형용사」</p> <p>‘푸르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p>	<p><b>푸르다</b></p> <p>발음 [푸르다]</p> <p>활용 푸르러[푸르러] 푸르니[푸르니]</p> <p>「형용사」</p> <p>「1」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p>	<p><b>푸르르다</b></p> <p>발음 [푸르르다]</p> <p>활용 푸르러[푸르러] 푸르르니[푸르르니]</p> <p>「형용사」</p> <p>「(자음 어미와 결합하여)」</p> <p>‘푸르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p>
---	--	--

현재 《표준》에서 ‘푸르르다’, ‘푸르다’가 ‘-어’와 결합할 경우 모두 ‘푸르러’가 된다는 중복이 발생한다. 이는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푸르르다’는 자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기본형을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활용 제약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 ◦ 여쭙다/여쭈다

<p><b>여쭙다</b></p> <p>발음 [여:쭙다]</p> <p>활용 여쭙어[여:쭙어], 여쭙으니[여:쭙으니], 여쭙는[여:쭙는]</p> <p>「동사」</p> <p>【…에게 …을】</p> <p>「1」【…에게 -고】 물어본에게 말씀을 올린다. =여쭙다.</p> <p>「2」 물어본에게 인사를 드린다. =여쭙다.</p>	<p><b>여쭈다</b></p> <p>발음 [여:쭈다]</p> <p>활용 여쭈어[여:쭈어] (여쭈[여:쭈]), 여쭈니[여:쭈니]</p> <p>「동사」</p> <p>【…에게 …을】</p> <p>「1」【…에게 -고】 물어본에게 말씀을 올린다. =여쭈다.</p> <p>「2」 물어본에게 인사를 드린다. =여쭈다.</p>
<p><b>여쭙다</b></p> <p>발음 [여:쭙다]</p> <p>활용 여쭙는[여:쭙는]</p> <p>「동사」</p> <p>【…에게 …을】</p> <p>「1」【…에게 -고】 물어본에게 말씀을 올린다. =여쭙다.</p> <p>「2」 물어본에게 인사를 드린다. =여쭙다.</p>	<p><b>여쭈다</b></p> <p>발음 [여:쭈다]</p> <p>활용 여쭈어[여:쭈어] (여쭈[여:쭈]), 여쭈니[여:쭈니]</p> <p>「동사」</p> <p>【…에게 …을】</p> <p>「1」【…에게 -고】 물어본에게 말씀을 올린다. =여쭈다.</p> <p>「2」 물어본에게 인사를 드린다. =여쭈다.</p>

현재 《표준》의 ‘여쭙다’, ‘여쭈다’ 기술은 언어 현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쭙다’는 자음 어미와 결합하고 ‘여쭈다’는 모음 어미/매개 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언어 현실을 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음 어미와 결합하여))’, ‘((모음 어미와 결합하여))’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 4.2. 뜻풀이 관련 규범 정보 보완

### ◦ 엄청

엄청	→	엄청
발음 [엄청]		발음 [엄청]
「부사」		「부사」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		양이나 정도가 <u>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이 엄청 크다.</li> <li>• 값이 엄청 비싸다.</li> <li>• 음식이 엄청 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이 엄청 크다.</li> <li>• 값이 엄청 비싸다.</li> <li>• 음식이 엄청 짜다.</li> </ul>

《표준》에서 ‘엄청’의 뜻풀이는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로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 언어 생활에서 ‘엄청’은 긍정과 부정의 문맥에서 모두 사용된다. 따라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뜻풀이를 수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 ◦ 임/님

임 <sup>1</sup>	님 <sup>5</sup>
발음 [임]	
「명사」	「명사」
사모하는 사람.	<u>「(일부 속담에 쓰여)」 ‘임’을 이르는 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을 그리는 마음.</li> <li>• 임을 기다리다.</li> <li>• 임을 못 잊다.</li> <li>• 임과 이별하다.</li> </ul>	<p>① 뜻풀이와 용례 등의 정보를 보완하시려면 <a href="#">우리말샘</a>에서 작</p>

《표준》에서 ‘님’의 사용 환경은 ‘일부 속담’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 현실에서 ‘님’이 일부 속담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과 ‘님’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 우연찮다/우연-하다

우연찮다 (偶然찮다)	우연-하다 (偶然하다)
<p>발음 [우연찬타]</p> <p>활용 우연찮아 [우연차나], 우연찮으니 [우연차느니], 우연찮소 [우연찬쏘]</p>	<p>발음 [우연하다]</p> <p>활용 우연하여 [우연하여] (우연해 [우연해]), 우연하니 [우연하니]</p> <p>주표제어 우연<sup>2</sup></p> <p>편집 이력</p>
<p>「형용사」</p> <p>꼭 우연한 것은 아니나 뜻하지도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이번 사건에 우연찮게 연루되었다.</li> <li>* 그토록 찾던 그 친구를 오늘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다.</li> <li>* 탈출 사고는 실상 새 원장에 대한 우연찮은 부임 선물이었다. &lt;이청준, 당선들의 천국&gt;</li> </ul>	<p>「형용사」</p> <p>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del>느우연하다</d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연한 계기.</li> <li>* 우연한 발견.</li> <li>* 우연한 기회를 갖다.</li> </ul>

↓

우연찮다 (偶然찮다)	우연-하다 (偶然하다)
<p>발음 [우연찬타]</p> <p>활용 우연찮아 [우연차나], 우연찮으니 [우연차느니], 우연찮소 [우연찬쏘]</p>	<p>발음 [우연하다]</p> <p>활용 우연하여 [우연하여] (우연해 [우연해]), 우연하니 [우연하니]</p> <p>주표제어 우연<sup>2</sup></p> <p>편집 이력</p>
<p>「형용사」</p> <p>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del>느우연하다</d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이번 사건에 우연찮게 연루되었다.</li> <li>* 그토록 찾던 그 친구를 오늘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다.</li> <li>* 탈출 사고는 실상 새 원장에 대한 우연찮은 부임 선물이었다. &lt;이청준, 당선들의 천국&gt;</li> </ul>	<p>「형용사」</p> <p>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우연찮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연한 계기.</li> <li>* 우연한 발견.</li> <li>* 우연한 기회를 갖다.</li> </ul>

현재 《표준》에서 ‘우연찮다’와 ‘우연하다’는 변별하기가 어려워 언어 직관으로는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어적인 구별과 함께 규범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우연찮다’와 ‘우연하다’를 동의어로 처리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 참고 문헌

### <사전류>

- 경남방언연구보존회(2017), 《경남방언사전 상》, 경상남도.  
경남방언연구보존회(2017), 《경남방언사전 하》, 경상남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국립국어원.(<https://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웹 사전, 국립국어원.(<https://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웹 사전, 국립국어원.(<https://kr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웹 사전, 국립국어원(<https://sldict.korean.go.kr>)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남영신(1997), 《우리말분류사전》, 성안당.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2), 《한국한자어사전》, 단국대학교출판부.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백문식(2010), 《개정판 우리말부사사전》, 박이정.  
백문식(2022), 《우리말의존명사사전》, 그레출판사.  
신기철, 신용철(1958), 《표준국어사전》, 을유문화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I ~IX》,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실.  
한글학회(1947), 《큰사전》, 을유문화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 <논저류>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날개를 달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교육용 규범 정보(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교육용 규범 정보(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어원.

- 국립국어원(2017),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표제어 정비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8), <한글 맞춤법·표준어 해설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1ㄱ),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1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1ㄷ), <모두의 말뭉치>,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ㄱ),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ㄴ),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ㄷ),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원.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9), ≪한국어 문법 총론II≫, 집문당.
- 강범모(2016), ≪한국어 화제관련어≫, 한국문화사.
- 곽충구(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193-219.
- 구본관 외(2019), ≪한국어 문법 총론II≫, 집문당.
- 김양진·이현희(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5-118.
- 김준기(1999), <국어 미각어 고찰>, ≪한국어의미학≫ 5, 한국어의미학회, 249-269.
- 김지혜(2022),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4, 국제어문학회, 109-136.
- 김지혜(2022),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 분석>, ≪반교어문연구≫ 61, 반교어문학회, 71-104.
- 김한샘(2000), <한국어 명사의 어휘망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 - 《연세한국어사전》의 분석을 중심으로 ->, ≪언어사실과 관점≫ 1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61-185.
- 김해미(2014), <‘맵다’ 계열 어휘의 확장 의미 연구>,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5-48.
- 남기심·김한샘(2017), <말뭉치 활용 한국어사전 편찬의 실제 - 『연세 한국어사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7-36.
- 도원영(2015), <국어사전 수정 작업에 대한 검토>, ≪한국어학≫ 67, 한국어학회, 1-27.
- 도원영·차준경(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5.
-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351-381.
- 박미영·정경제(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관련어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54.
- 박용찬(2022), <국어사전의 형태론적 정보 -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55, 한말연구학회, 129-165.
- 박일환(2015), ≪미친 국어사전≫, 뿌리와이파리.

- 박일환(2019), 《국어사전 혼내는 책: 우리말의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하여》, 유유.
- 박일환(2021), 《국어사전이 품지 못한 말들》, 달아실.
- 박일환(2022), 《국어사전 독립선언》, 섬앤섬.
- 박성호·신문숙·강호진·서단비(2021), 《[표준국어대사전 오류]-문헌 용례1》, 양성원.
- 백우진(2022), <사전도 혼동하는 ‘로서’와 ‘로써’>, 《말과 글》 173, 한국어문기자협회.
- 봉미경(2020), <국어사전 용례 기술의 비판적 검토: 용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5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5-55.
- 손용주(1992), <감각형용사의 분류 체계>, 《우리말글》 10, 우리말글학회, 127-154.
- 송재영(2008), <국어사전에서의 조어 정보 기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주·남길임(2013), “《우리말샘》 관련어 유형 및 정비 구축의 실제”,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160-191.
- 유현경·김상민·이종혁(2022), <차별·비하 표현의 국어사전 뜻풀이 메타언어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170-208.
-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이근열(2020), <국어 사전의 한자 어명(魚名) 오류 연구>, 《어문론총》 83, 한국문학언어학회, 9-37.
- 이선웅(2004), <명사구 사전의 통사 정보 기술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4, 한국사전학회, 153-184.
- 이윤옥(2013), 《오염된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을 비판한다》, 인물과사상사.
- 이정복(2017),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배달말》 61, 배달말학회, 199-245.
- 이준환(2015), <방언사전의 방언 어휘 수록 및 기술 현황, 성과와 한계>, 《코키토》 7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70-109.
- 이준환(2017), <국어사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국어 능력의 향상>, 《사립어문연구》 26, 사립어문학회, 179-211.
- 이준환(2022), <국어대사전 속의 방언 기술 현황과 분석적 이해-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5-47.
- 이지수(2022), <신어의 규범성과 사전 처리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어학》 103, 국어학회, 315-343.
- 이태영(2016), <국어사전과 방언의 정보화>, 《국어문학》 61, 국어문학회, 51-75.
- 장선우·도원영(2017), “《한중학습사전》 대역 작업의 난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107-131.
- 정희창·이운영(2008),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국립국어원.
- 정희창(200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의 원칙과 실제>,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제15회 전국학술대회, 128-146.
- 정희창(2014), <국어사전의 문법적 해석>,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5-28.
- 정희창·김한샘(2016), <국어사전의 구어와 규범 정보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제28회 전국학술대회, 25-34.
- 정희창(2022),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규범 체계와 의미>, 《한국사전학》 39, 한국사전학회, 165-180.
- 조남호(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5-24.
- 조남호(2003), <말뭉치를 활용한 어휘 빈도 조사말뭉치를 활용한 어휘 빈도 조사>, 《텍스트언어학》 1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3-52.
- 조남호(2014), <방언사전의 편찬 방향 - 표제어 선정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3, 한국사전학회, 263-290.
- 조남호(2017), <의성의태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개선점 - 《한국어 시늉말 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191-222.
- 조남호(2022), <국어사전 편찬의 어제와 오늘>,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제40회 전국학술대회, 25-36.
- 최형용(2018),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역락.
- 최형용(2020), <계열 관계에서 본 《표준국어대사전》의 추가 표제어>, 《한중인문학연구》 68, 한중인문학회, 361-389.
- 최형용(2022), <국어사전과 학술 연구, 그 간극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46-106.
- 한용운(2004), <국어 사전의 조사 표제어 문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189-210.
- 한용운(2019), <현대 국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그 특징 - 《큰사전》을 중심으로>, 《한글》 80, 한글학회, 659-686.
- 한유석(2014), <한국어 유의어사전 구축에 관한 연구>, 《언어학》 22, 대한언어학회, 169-182.
- 홍재성(2003),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와 용례>,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제3회 전국학술대회, 35-39.
- 홍종선(2015),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뜻풀이 -뜻풀이의 원칙과 실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3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29.
-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누리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https://riks.korea.ac.kr>)

Japanknowledge(<https://japanknowledge.com>)



## 부 록

부록 목차
-------

「부록 4」 계열어 정비 작업 지침 .....	178
「부록 6」 한자 원어 검토 작업 지침 .....	189
「부록 7」 [23표준개편] 형태 정보 구축 지침 .....	191
「부록 9」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설문지 .....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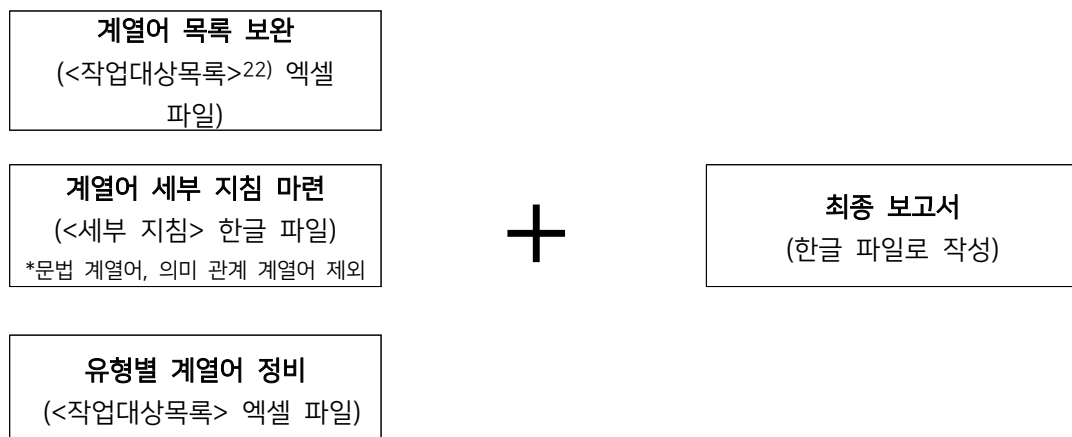
## 「부록 4」

### 계열어 정비 작업 지침

#### ■ 작업 배분<sup>20)</sup>

유형	
의미 및 형태 계열어	① 기존 편찬 지침 목록 <sup>21)</sup>
	② 의미 범주 계열어 (상하위어 등)
	③ 의미 관계 계열어 (높임말, 낮춤말, 본말, 준말)
	④ 동일 접사 파생어, 구성성분 공유 합성어 (형태 계열어)
	⑤ 의성의태어 (ㄱ, ㄴ, ㅋ, ㄴ)
문법 계열어	⑥ 조사, 어미
	⑦ 접사

#### ■ 작업 개요



20) 하나의 계열어 유형은 한 명의 작업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①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유형과 ‘② 의미 범주 계열어’ 유형은 작업량을 고려하여 각각 2인에게 분배하였다.

21) 《표준》 편찬 지침에 없으나 이와 관련성이 밀접하여 함께 작업해야 할 표제어(174개)의 목록이 더 있다. 이를 <기존 편찬지침 목록 (1-1 관련 추가)>이라 하여 관련된 표제어를 검토하는 작업자가 추가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22) 배분 시 엑셀 파일명은 ‘작업대상목록’이나 작업 결과 제출 시에는 ‘작업결과’로 변경 요망.

□ **계열어 목록 보완 + 유형별 계열어 정비<sup>23)</sup>** (<작업대상목록> 엑셀 파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	계열어 작업 유형	계열어 대분류	계열어 중분류	계열어 소분류	ID	성정보	표제어	원어	해당 뜻갈래 번호	원어	종사	전문어 영역	뜻풀이	성	단	사	통원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	검토 완료	목록 추가/제외/변경	표제어 추가/삭제	메모	사전 수정 항목
2	형태 계열어	<~교+자>			289124	일교-자	일교자	日較差	명사				기온, 습도, 단어					#N/A					
3	형태 계열어	<~교+자>			245682	연교-자	연교자	年較差	명사				1년 동안 4단어					#N/A			(추가)필교자		
4	형태 계열어	<~만+장자>			142629	백만-장자	백만장자	百萬長者	명사				재산이 매우					#N/A					
5	형태 계열어	<~만+장자>			239732	억만-장자	억만장자	億萬長者	명사				헤아리기 (단어)					#N/A					
6	형태 계열어	<~만+장자>			350663	천만-장자	천만장자	千萬長者	명사				돈이나 재 (단어)					#N/A					
7	형태 계열어	<~만+금(金)>			14005	거만-금	거만금	巨萬金	명사				많은 액수 (단어)					#N/A					
8	형태 계열어	<~만+금(金)>			75817	누만-금	누만금	累萬金	명사				아주 많은 단어					#N/A					
9	형태 계열어	<~만+금(金)>			142627	백만-금	백만금	百萬金	명사				매우 많은 단어					#N/A					
10	형태 계열어	<~만+금(金)>			239728	억만-금	억만금	億萬金	명사				아주 많은 단어					#N/A					
11	형태 계열어	<~만+금(金)>			350640	천만-금	천만금	千萬金	명사				아주 많은 단어					#N/A					
12	형태 계열어	<~만+금(金)>			204860	수만-금	수만금	數萬金	명사				매우 많은 단어					#N/A					
13	형태 계열어	<○○○금+탄(炭)>			40128	구공-탄	구공탄	九孔炭	명사				「1」구멍이 단어					#N/A					
14	형태 계열어	<○○○금+탄(炭)>			40972	구멍-탄	구멍탄	-炭	명사				구멍이 많이					#N/A					
15	형태 계열어	<○○○금+탄(炭)>			173289	사십구공-탄	사십구공탄	四十九孔炭	명사				49개의 구멍이					삭제					

○ 네이버 마이박스(<http://naver.me/5eTcqch3>) > 02\_업무배분 > 작업자명 폴더 > ‘2023표준사업\_계열어\_(작업유형)\_작업대상목록(00개)\_작업자명’

○ 해당 엑셀 목록은 다음과 같은 작업과 관련된다.

- ① 작업 유형 및 대상 확인
- ② 검토 여부 기록
- ③ 작업 대상 목록 보완 및 재분류
- ④ 작업 내용 기록
  - 표제어 추가 및 삭제 의견 기록
  - 해당 표제어에서 작업자가 수정한 항목이 무엇인지 기재
  - 당초 예정이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상의 작업은 보류하고 <작업대상목록>(=작업결과) 엑셀 파일에 수정 내용 기록(“수정 내용(뜻)”, “수정 내용(전문)”, “수정 내용(관련)”, “수정 내용(문법)” 열)

- “계열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해당 뜻갈래 번호”, “전문어 영역”, “검토 완료”, “목록 추가/제외/변경”, “표제어 추가/삭제”, “메모”, “사전 수정 항목”, “수정 내용(뜻)”, “수정 내용(전문)”, “수정 내용(관련)”, “수정 내용(문법)” 등 녹색 열만 작업자가 작성하는 열이다.
- 색이 없는 열은 작업을 위해 참고 가능한 정보이다.
- “계열어 작업 유형”, “ID”, “표제어(구성정보)+동형어번호” 열은 변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 **작업 유형 및 대상 확인**

- “계열어 작업 유형”은 배분받은 목록의 유형을 의미한다.
- “표제어 분과 검토 결과” 열을 필터링하여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표제어를 작업 대상으로 한다. (\* 예외로, ‘의성의태어’는 필터링 없이 주어진 목록 전체를 작업 대상으로 한다.)

23) 당초 ‘유형별 계열어 정비’의 작업 방식으로 제안되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상의 작업은 시스템 문제로 보류하고 <작업대상목록>(=작업결과) 엑셀 파일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검토 작업을 마친 표제어는 “검토 완료” 옆에 ‘○’ 표시를 한다.
- 목록 추가 후 작업한 표제어는 “검토 완료” 옆에 ‘○’ 표시를 한다.
- 목록 제외, 표제어 삭제 등이어서 작업하지 않은 경우는 ‘○’ 표시를 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 해당 계열어 묶음의 분류 명칭을 기록한다. 하위 분류가 필요한 경우, 중분류, 소분류까지 나눌 수 있다. 분류명이 특정 형태인 경우에는 < > 기호 안에 기록한다.<sup>24) 25)</sup>

- 180 -

: 제공된 1차 목록의 대분류를 재분류하는 경우

➔ ‘**변경**’이라고 적는다.

중분류, 소분류 등을 수정하거나 기존에 없던 하위 분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적지 않는다.

#### - “해당 뜻갈래 번호”, “전문어 영역” 열 보완

: 해당 계열어의 뜻갈래 번호와 전문어 영역을 적는다.

➔ 하나의 뜻갈래만 있으면 비워 둔다.

➔ 뜻갈래 번호는 ‘2」’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 계열어는 뜻갈래별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 정보 수정도 뜻갈래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행의 모든 수정 내용은 “해당 뜻갈래 번호” 열에 적은 뜻갈래에 관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뜻갈래가 여러 개여도 전체 뜻갈래를 하나의 계열어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뜻갈래 번호를 적지 않는다.

<예> 결1「명사」28)

「1」『민속』 옷놀이에서, 옷짝의 세 개는 젖혀지고 한 개는 얹어진 경우를 이르는 말. 낫수는 세 낫으로 친다.

「2」『민속』 옷판의 세 번째 자리. 옷놀이를 시작하여 ‘1」이 나왔을 때 말을 놓는 자리이다. ≡결발.

### ○ 작업 내용 기록

ID	구성정보	표제어	뜻갈래	원	품	전문어	뜻풀이	구성 단	대분과	검토 안	가/	표제어 추가/삭제	메모	전 수정
392585	틀러스-되다	틀러스되다			동사		이익이나, 단어		#N/A			(추가)마이너스되다		
126286	목찌빠	목찌빠			명사		가위바위! 단어		#N/A			(추검)목, 찌, 빠		
149763	보(16)	보	16 「2」	棉	명사		「1」를건을단어		#N/A			(뜻추)보자기(02)		
356655	소-아흐렛난	소아흐렛난		初-	명사		매달 소하! 단어		#N/A			(뜻삭)소구(01)「2」		
243398	여름-밤	여름밤			명사		여름철의 '단어		#N/A			(삭제)여름낮		

#### - “표제어 추가/삭제” 열

계열어 체계상 추가, 삭제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된 표제어 행의 “표제어 추가/삭제” 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미등재된 표제어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 (추가)○○○
- 표준국어대사전에 미등재된 표제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나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 ➔ (추검)○○○
-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존 표제어에 뜻갈래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뜻추)○○○
-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존 표제어의 뜻갈래를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뜻삭)○○○「」
-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존 표제어를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29) ➔ (삭제)○○○

28) 이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가 연관되므로 하나의 계열어로 다룬다. 형식 풀이는 다음과 같다.: <「1」 옷놀이에서, 옷짝의 ~한 경우를 이르는 말. 낫수는 ○ 낫으로 친다. 「2」 옷판의 … 번째 자리. 옷놀이를 시작하여 ‘「1」’이 나왔을 때 말을 놓는 자리이다.>와 같이 풀이한다.

29) “목록 추가/제외/변경”열의 “제외”와 구별하기 위해 “표제어 추가/삭제”열에서는 “삭제”로 적었다.

전자는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작업하는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에 관한 처리 의견으로, 현재 작업 목록에 대한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 ※ “표제어 추가/삭제”열에 기록한 표제어는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정리하여 적는다,  
(추후 표제어분과에 전달 예정)
- ※ “표제어 추가/삭제”열에 기록한 표제어는 계열어 정비 대상이 아니다.

## - “메모” 열

작업 시 메모 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한다.

ID	구성정보)+동작어	관련어 명	뜻풀이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	검토 완료	추가/제외제어 추가/삭제	메모	사전 수정 항목	수정 내용(뜻)	수정 내용(전문)	수정 내용(관련)
1	ㄱ		「언어」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기 일반		O			뜻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기억'이라 이르며, '가'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역'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쓰인다. 목젢으로 콧길을 막고 혀뿌리를 높여 연구개를 막았다가 뱉을 때는 무성음이다. 초성일 때는 무성이나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이 되며, 종성일 때는 혀뿌리를 떼지 않고 발음한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05296	수부-회	「1」 「불교」 「1」음력 사월 초파일 관등보류			O			뜻, 전문	사월 초파일 관등절 때에 아이들이 뒤편에 바가지나 들이의 하나, 책을 펴 놓고 거기에 있는 글자를 골라 맞추어 고을의 이름을	「민속」	
27772	고을-모듬	「민속」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유지			O			뜻, 전문			
87195	인도-양	「지명」 오대양의 하나. 아시아, 오 유지			O			전문			
97370	한식(02)	2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동지	#N/A		O			전문			「해양」 「민속」
79211	다섯무-날		조수의 간만과 관련하여, 지	#N/A	O		표제어의 ic 분석 재 검토	뜻, 관련(참고)	별물과 밀물의 차이로 볼 때, 음력 13, 14, 28, 29일을 이르는 말.		「참고 어휘」 삭제

## -“사전 수정 항목” 열

수정한 항목을 기록한다.

이는 다음 단계의 검토자가 이전 작업에서 수정한 미시 항목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뜻풀이를 수정한 경우 ➡ 뜻
- 전문어 영역을 수정한 경우 ➡ 전문
- 관련어를 수정한 경우 ➡ 관련어의 종류를 밝혀 기입한다.

<예> 관련(준말), 관련(본말), 관련(높임), 관련(낮춤), 관련(참고)

- 문법 정보를 수정한 경우 ➡ 문법
- 여러 가지 항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것을 쉽표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예> 뜻, 전문, 관련(참고), 문법

## -“수정 내용(뜻)”<sup>30)</sup>

뜻풀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이후의 뜻풀이 전체를 기입하되, 수정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뜻풀이를 삭제하여 빨간색을 표시할 곳이 없으면 그대로 둠.)

<예> '수정 내용(뜻)' 작성 예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기억'이라 이르며, '가'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역'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쓰인다. 목젢으로 콧길을 막고 혀뿌리를 높여 연구개를 막았다가 뱉을 때는 무성음이다. 초성일 때는 무성이나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이 되며, 종성일 때는 혀뿌리를 떼지 않고 발음한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 표제어 'ㄱ'의 뜻풀이 중 '기억이라' 부분만 수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뜻갈래의 전체를 제시. 현재 사전의 것은 제시할 필요 없음. 수정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

30) 수정 내용 기록과 관련된 엑셀에서의 작업 예시는 별도 파일(<작업대상목록\_엑셀수정양식\_샘플.xlsx>)을 더 참조할 수 있다.

#### -“수정 내용(전문)”

전문 영역을 수정한 경우, 수정 이후의 전문 영역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전문 영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이후의 전문 영역명 기입

<예> 『지명』 전문어를 『해양』 전문어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양』

<예> 일반어를 『민속』 전문어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민속』

- 전문어를 일반어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일반'이라고 기입

<예> 『민속』 전문어를 일반어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일반

#### -“수정 내용(관련)”

관련 어휘를 수정한 경우, 수정 이후의 관련 어휘 유형 전체를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수정 내용(관련)' 열에는 관련어 종류명까지 함께 기입

<예> 「높임말」 도련님

- 기존의 관련어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어 종류명을 쓴 후 '삭제'라고 기입

<예> 「참고 어휘」 삭제

#### -“수정 내용(문법)”

문법 정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이후의 문법 정보 전체를 기입하되, 수정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예> 수정 내용(문법):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으리-’ 뒤에 붙어

### ◇ 유의점

- 1) 계열어 정비 작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표제어분과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계열어를 정비하는 작업에서는 표제어분과의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작업한다. 2022년과 2023년의 검토 결과가 확정이 아니며,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원고에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 ‘먹도미(도밋과의 바닷물고기.~=감성돔.)’: 삭제 / ‘먹돔’(‘먹도미’의 준말.): ‘유지’

➡ 이를 계열어 정비에 반영한다면, ‘먹돔’의 풀이를 분석적 풀이로 수정하고, ‘감성돔’과의 관계도 다시 설정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 2) ‘의미 관계 계열어’ 작업 유형의 경우 다음에 특히 유의하여 작업한다.

- (1) 실제 쓰임을 고려하여 표제어 삭제/추가 제안을 한다.

<예> 마음고생, 마음고생하다, 마음먹다, 마음잡다

맘고생, (            ), 맘먹다, 맘잡다

➡ ‘맘고생하다’도 실제 쓰임이 있으므로 표제어 추가를 제안할 수 있다.

- (2) 작업 대상 목록의 표제어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말, 본말, 높임말, 낮춤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3) 관련어 정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예> 마음-가짐 「명사」 마음의 자세. 「준말」 맘가짐

- (4) ‘높임말, 낮춤말’의 경우, 지칭과 호칭의 변화 등에 유의하여 교열한다. 필요시, ‘~을 높여 이르는/ 부르는 말.’ 등으로 수정할 가능성을 고려한다.<sup>31)</sup> 반대로 검토 과정에서 ‘~낮추어 이르는 말.’,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등으로 풀이된 것이 ‘~높임말.’, ‘~낮춤말.’로 고쳐야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 목록에 추가하여 정비한다.

<예> 어머니1 「명사」 「1」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낮춤말」 어미  
어미1 「명사」 「1」 ‘어머니’의 낮춤말. (?)

- (5) ‘높임말, 낮춤말’의 경우, 친족어가 많으므로, 계열어 정비 시 ‘남(男)/여(女)’, ‘외(外)-/친(親)-’ 관계 등을 고려한다.

## □ 계열어 세부 지침 마련 (<세부 지침> 한글 파일)

- 네이버 마이박스(<http://naver.me/5eTcqch3>) > 02\_업무배분 > 작업자명 폴더에서 <2023 표준사업\_계열어\_(작업유형)\_세부지침\_(작업자명)> 파일을 다운 받아 형식 확인 가능

## ◇ 해당 작업 유형: 형태 계열어, 의미 범주 계열어,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세부 지침 예시>

### ◎ 요일

#### 1) <월/화...+요일>

- ① 형식 풀이: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째 날.>과 같이 풀이한다.
- ② 대표 풀이: 금-요일 (金曜日) 「명사」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다섯째 날.  
\* 예외: 월-요일(月曜日) 「명사」 한 주(週)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 ③ 해당 표제어: 월-요일(月曜日), 화-요일(火曜日), 수-요일(水曜日), 목-요일(木曜日), 금-요일(金曜日), 토-요일(土曜日), 일-요일(日曜日).

#### 2) <월/화...+요>

- ① 형식 풀이: <‘○요일’을 뜻하는 말.>과 같이 풀이한다.
- ② 대표 풀이: 월요(月曜) 「명사」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월요일’을 뜻하는 말.
- ③ 해당 표제어: 월요(月曜), 화요(火曜), 수요(01)(水曜), 목요(木曜), 금요(01)(金曜), 토요(土曜), 일요(日曜).

#### 3) <월/화... >

- ① 형식 풀이: <‘○요일’을 이르는 말.>과 같이 풀이한다.
- ② 대표 풀이: 월3(月) 「명사」 ((주로 요일을 열거할 때 쓰여)) ‘월요일’을 이르는 말.
- ③ 해당 표제어: 월(03)(月), 화(06)(火), 수(05)(水), 목(06)(木), 금(03)(金), 토(04)(土) 「1」, 일(04)(日).

-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sup>32)</sup> 등 층위에 따라 작성하되, 계열어를 이루는 특정 형태 범주나 특정 의미

31) 장모1(丈母) 「명사」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장모-님(丈母님) 「명사」 ‘장모’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32) 기호는 대분류(◎) 중분류( 1 ), 소분류( 1-1 )와 같이 한다.



범주 등의 부류별 명칭을 분류명으로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來)’로 시작하는 말	육십갑자(六十甲子)
‘~장사’로 끝나는 말	요일(曜日)
‘지지(地志)’에 속하는 말로 시작하는 말	절기(節氣)

☞ 분류명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는 공통 형태를 묶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 > 기호를 사용한다.

<동/서/남/북+변(邊)>

<-가(街)>

## 2) 형식 풀이: 공통된 풀이를 형식화하여 보인다.

(1) 계열어의 정의항은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부가 설명을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2) 유개념의 기술 방식은 여러 기술 방식을 검토하여 단일화하되, 단일화가 곤란한 경우 최소의 유형으로 제한하여 체계화한다.

<예> -체 : ‘...로 둘러싸인 입체.’ 또는 ‘... 생긴 입체.’와 같이 풀이한다.

오면-체 「명」『수학』 다섯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원환-체 「명」『수학』 원을 원 밖의 일직선 주위로 회전하여 생긴 입체.

<예> 운동의 동작, 기술, 자세, 반칙 따위의 정의에서는 ‘...하는 동작/기술/자세/반칙.’으로 구분하여 풀이한다.

다리^굽혀^펴기 「명」『운동』 맨손 체조에서, 다리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다리^벌려^내리기 「명」『운동』 기계 체조에서, 두 다리를 곧게 펴서 옆으로 벌리고 내리는 기술.

채죽-뒤 「명」『운동』 양궁에서, 팔꿈치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손회목으로만 당기는 자세.

(3) 전문어에 해당한다면, 전문 영역 정보를 보인다.

(4) 관련 어휘(참고 어휘 포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정보를 보인다.

(5) 기타 형식 풀이에 사용되는 기호나 용어는 아래 예시를 참조한다.

<예> 1) 사신(四神)

① 형식 풀이

가) <사신(四神)의 하나. ○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른다.>와 같이 **풀이하고, 부가 설명**을 제시한다.

나) 『민속』 전문어로 처리한다.

다) 「참고 어휘」에 나머지 사신(四神)을 제시한다.

## 3) 대표 풀이: 형식 풀이를 대표 표제어에 적용한 예시를 보인다.

(1) 표제어, 동형어 번호, 원어, 품사, 뜻풀이 번호, 전문어 영역, 문법 정보, 뜻풀이, 관련어 정보를 보이고, 계열어와 관련된 항목이 더 있다면 추가로 보인다.

(2) 동형어 번호: 대표 풀이에서 동형어 번호는 위 첨자로 고치지 않는다.<sup>33)</sup>

<예> ② 대표 풀이: 파8(fa)「명사」『음악』 서양 음악의 칠음 체계에서, 네 번째 게이름.

- (3) 관련 어휘: 표제어분과 삭제 어휘이더라도, 정비 작업에는 표제어분과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대표 풀이’에서 예로 보일 때는 그대로 둔다. (단, 세부 지침의 ‘해당 표제어’에서는 <작업대상목록>(엑셀 목록)의 표제어(삭제 제외)와 일치해야 한다.)

<예> ② 대표 풀이: 좌-의정(左議政)「명사」『역사』 ~. ≡좌규, 좌금, 좌대신, 좌상, 좌승상, 좌정승, 좌태, 좌합.

③ 해당 표제어: ...좌-의정(左議政)[좌상(01)(左相), 좌-승상(左丞相), 좌-정승(左政丞)]....<sup>34)</sup>

- (4) 참고 어휘: 참고 어휘는 계열어와 관련된 것만을 다루고, 대표 풀이의 마지막에서 보인다.

<예> ② 대표 풀이: 현명-악기(絃鳴樂器)「명사」『음악』 ~. 「참고 어휘」기명악기(氣鳴樂器), 막명악기(膜鳴樂器), 체명악기(體鳴樂器).

<예> ② 대표 풀이: 개-띠「명사」『민속』 개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 「참고 어휘」술생(戌生).

#### 4) 해당 표제어: 해당 계열어 부류에 속하는 표제어의 목록을 보인다.

- (1) 세부 지침의 ‘해당 표제어’는 <작업대상목록>(엑셀 파일)의 표제어와 일치해야 한다.

- (2) 표제어(구성정보), 동형어 번호, 원어, 뜻풀이 번호를 포함한다. 원어명(독일어, 라틴어 등)은 보이지 않는다

- (3) 자모순으로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순서를 이루는 계열어는 그에 따라 보인다.

<예> 도(13)(do), 레(02)(re), 미(10)(mi), 파(08)(fa), 솔(07)(sol), 라(03)(la), 시(18)(si).

- (4) 동형어 번호는 ‘(02)’, 뜻갈래 번호는 ‘2」와 같이 보이며, 동의어는 [ ] 기호 안에 보인다.<sup>35)</sup>

<예> 영-의정(領議政)[상상(02)(上相), 수규(02)(首揆), 수상(09)(首相) 2」, 영규(02)(領揆), 영상(04)(領相), 영합(02)(領閣), 원보(02)(元輔)], 좌-의정(左議政)[좌상(01)(左相), 좌-승상(左丞相), 좌-정승(左政丞)], 우-의정(右議政)[우상(01)(右相) 2」, 우-승상(右丞相), 우-정승(右政丞)].

- (5) 필요시, 계열어 부류 명칭(묶음말)에 해당하는 상위어도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 계열어 정비를 통해 상위어의 정보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 사신(05)(四神), 청룡(靑龍) 2」, 백호(02)(白虎) 1」, 주작(02)(朱雀) 2」, 현무(01)(玄武) 1」.

- (6) 계열어 관계를 따졌을 때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추가 등재를 제안하는 표제어

(= <작업대상목록>(엑셀 파일)에 ‘표제어 추가/삭제’열에 ‘(추가)~’로 기록하는 표제어)

☞ 세부 지침의 ‘해당 표제어’는 <작업대상목록>(엑셀 파일)의 표제어와 일치해야 하는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단어이므로 ‘해당 표제어’에 보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각주’로 처리한다.

<예> 1) <천간(天干)+년(年)>

① 형식 풀이: 가) <천간(天干)이 ~(~)로 된 해.>와 같이 풀이한다.

나) 『민속』 전문어로 처리한다.

② 대표 풀이: 갑년(甲年)「명사」 2」『민속』 천간(天干)이 갑(甲)으로 된 해.

33) 대표 풀이의 모든 기호는 《표준》에 있는 그대로 보인다. 전문어 영역, 뜻갈래 번호 기호 등

34) ‘좌규, 좌금, 좌대신, 좌태, 좌합’은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 ‘삭제’이나 ‘대표 풀이’에서는 현재 《표준》에 있는 관련어 그대로 모두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당 표제어’에서는 엑셀 목록의 작업 결과와 일치시켜 보이므로 표제어분과 검토 결과가 ‘삭제’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35) 영-의정(領議政)「명사」 ~. ≡상상.

상상2(上相)「명사」 ~. =영의정. => ‘≡’ 기호의 좌측에 오는 말이 기본 표제어이다.

- ③ 해당 표제어: 갑년(甲年)「2」, 을년(乙年), 병년(丙年), 정년(02)(丁年), 무년(戊年), 기년(01)(己年), 경년(01)(庚年), 임년(壬年), 계년(01)(癸年).<sup>각주</sup>

**각주 내용:** <신년(辛年)>을 《표준》에 표제어로 추가해야 한다.

- 5) 해당 계열어 부류에 속하지만 뜻풀이나 다른 정보 항목에서 같은 계열의 다른 단어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예외로 기술한다.
- 6) ‘기존 편찬 지침 목록’ 유형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있는 풀이 형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지침을 작성한다.
- (1) 표제어 목록만 있고 뜻풀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표제어를 검토하여 공통된 풀이 형식을 세부 지침으로 작성한다.
- (2) 표제어 개별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계열어의 공통된 풀이 형식(형식 풀이)를 세부 지침에서 제안한다.
- (3) 기존에 제시된 풀이 형식도 재검토하여 더 나은 풀이 형식을 세부 지침에서 제안할 수 있다.
- (4) 해당 표제어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관련된 표제어 목록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
- 7) 다른 작업 유형의 경우에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의 전문어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지침을 반영한다.

#### ◇ 해당 작업 유형: 의성의태어

: ‘의성의태어’ 세부 지침은 자모음의 교체 양상을 정리하여 어휘군마다 하나의 표를 보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의성의태어 세부 지침 예시>

◎ <살긔>								
<살긔> 계열어 : 46개	작은말				큰말		복합	
	여린말	센말	여린말	센말	여린말	센말	여린말	센말
어근 또는 부사	살긔	쌀긔	셀긔	썰긔	실긔	썰긔	실긔 셀긔	썰긔 썰긔
어근+-거리다 (=어근+-대다)	살긔거리다 살긔대다	쌀긔거리다 쌀긔대다	셀긔거리다 셀긔대다	썰긔거리다 썰긔대다	실긔거리다 실긔대다	썰긔거리다 썰긔대다		
어근+-하다	살긔하다	쌀긔하다	셀긔하다	썰긔하다	실긔하다	썰긔하다	실긔 셀긔 긔하다	썰긔 썰긔 긔하다
어근+-히 /-이	살긔히	쌀긔히	셀긔히	썰긔히	실긔히	썰긔히		
어근+-이다								
반복형 어근 또는	살긔살긔	쌀긔쌀긔	셀긔셀긔	썰긔썰긔	실긔실긔	썰긔썰긔		

는 부사								
반복형어	살긔살긔하	쌀긔쌀긔하	셀긔셀긔하	쁠긔쁠긔하	실긔실긔하	썰긔썰긔하		
근+-하다	다	다	다	다	다	다		

- 1) 의성의태어의 대분류어는 작은말-여린말 중에서 자모순으로 가장 앞서는 어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표 왼쪽 위 칸에 대분류어와 해당 계열어에 속하는 표제어의 개수를 함께 적는다.  
이때 대분류어는 동형어 번호와 뜻갈래 번호를 포함한다.
- 3) 해당 어휘군에 속하는 표제어를 정리하여 표로 보인다. 표의 항목은 표제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 4) <작업대상목록>(엑셀 파일)은 가나다순임에 유의한다. 참고어 정보 등을 더 이용하여 <작업대상목록>을 보충하고 세부 지침을 작성한다.
- 5) 세부 지침의 표에 속하는 표제어는 <작업대상목록>(엑셀 파일)의 표제어와 일치해야 한다.

◇ 해당 작업 유형: 의미 관계 계열어, 문법 계열어

: 세부 지침을 작성하지 않고 특이사항 등은 별도의 보고서(한글 파일, 자유 형식)에 상세히 기재한다.

□ 최종 보고서 작성

- 작업 개수 및 수정 항목별 개수 정리
- “표제어 추가/삭제” 개수 및 목록 정리
- 해당 작업 유형의 계열어 정비 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 유형
- 기타 논의사항 및 의견 기술

## 「부록 6」

### 한자 원어 검토 작업 지침

2023. 5. 22.

#### 1. 한자 표기 검토

##### 1) 검토 대상

- 국립국어원 사전의 ‘원어 정보’란에 ‘▽’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한자어 중 국편의 『검색엔진용한자음가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한글 독음을 가진 표제어를 추출한 목록
- 176개

##### 2) 검토 내용

- 『우리말샘』 표제어의 표기가 한자어 원어의 독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표기로 수정한다.

##### 3) 검토 방법

- (1) 엑셀(‘한자 표기 검토’ 시트)의 A열 ‘원어’를 참고하여 C열 ‘우리말샘 표제어’가 한자어 원어의 독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① C열 ‘우리말샘 표제어’ 표기에 오류가 없는 경우
  - ㉠ 해당 표제어의 행에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는다.
- ② C열 ‘우리말샘 표제어’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D열 ‘표제어 오류 유무’에 동그라미(대문자 알파벳 O)를 입력한다.
  - ㉡ E열 ‘수정 표제어’에 오류를 바로잡은 올바른 한글 표기를 입력한다.

- (2) 엑셀(‘한자 표기 검토’ 시트)의 A열 ‘원어’의 한자 표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① A열 ‘원어’의 한자 표기에 오류가 없는 경우
  - ㉠ 해당 표제어의 행에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는다.
- ② A열 ‘원어’의 한자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F열 ‘원어 오류 유무’에 동그라미(대문자 알파벳 O)를 입력한다.
  - ㉡ G열 ‘수정 원어’에 오류를 바로잡은 올바른 한자어 표기를 입력한다.

- (3) 검토 중 메모가 필요한 사항은 H열 ‘메모’란에 자유롭게 작성한다.

- (4) 엑셀의 표기를 기본으로 두고 작업하되, 수정 표기를 작성하거나 수정 의견을 남길 때에는 표제어와 원어의 표기를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에 등재된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미 웹사전에서 수정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우리말샘에 수정 완료되어 있음’, ‘우리말샘에 수정되어 있으나, 그 표기에도 오류가 있음. OO으로 원어 수정 필요’ 등과 같이 메모를 남긴다.

## 2. 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 1) 검토 대상

- 동일한 한자 원어로 원어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표제어의 쌍을 추출한 목록
- 370개

### 2) 검토 내용

- 한자 원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한자 표기로 수정한다.
- 표제어의 표기가 각각 정확한지 확인하여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한글 표기로 수정한다.

### 3) 검토 방법

(1) 엑셀('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시트)의 B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어휘'를 참고하여 A열 '원어'의 한자어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① A열 '원어'의 표기에 오류가 없는 경우

㉠ 해당 표제어의 행에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는다.

② A열 '원어'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C열 '원어 오류 유무'에 동그라미(대문자 알파벳 O)를 입력한다.

㉢ D열 '수정 원어 1'에 오류를 바로잡은 올바른 한자어 표기를 입력한다.

㉣ 만일 두 표제어의 원어가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 원어를 D열 '수정 원어 1'과 E열 '수정 원어 2'에 각각 입력한다.

(2) 엑셀('중의적 한자 어휘 검토' 시트)의 B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어휘'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① B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어휘'의 표기에 오류가 없는 경우

㉠ 해당 표제어의 행에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는다.

② B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어휘'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F열 '표제어 오류 유무'에 동그라미(대문자 알파벳 O)를 입력한다.

㉢ G열 '수정 표제어 1'과 H열 '수정 표제어 2'에 오류를 바로잡은 올바른 한글 표기를 차례대로 각각 입력한다.

(3) 검토 중 메모가 필요한 사항은 I열 '메모'란에 자유롭게 작성한다.

(4) 엑셀의 표기를 기본으로 두고 작업하되, 수정 표기를 작성하거나 수정 의견을 남길 때에는 표제어와 원어의 표기를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에 등재된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미 웹사전에서 수정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표준에 수정 완료되어 있음', '표준에 수정되어 있으나, 그 표기에도 오류가 있음. OO으로 원어 수정 필요' 등과 같이 메모를 남긴다.

## 「부록 7」

### [23표준개편] 형태 정보 구축 지침

#### 1. 형태 정보 표시

##### 1.1. 특수 기호

- 1) 형태 분석의 결과는 ‘+’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2)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는 ‘[]’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3) 의존 형식을 제시할 때 ‘-’ 기호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 4) 표면형에서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이를 ‘()’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5) 형태 정보를 제시할 때 구성 요소 및 특수 기호의 좌우에 공백을 두지 아니한다.
- 6) 구성 요소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어깨번호를 밝힌다.
  - (1)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는 ‘\*’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2) 어깨번호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네이버가 아닌 <표준> 온라인판을 활용한다.

헛소리-하다      [[[[헛2+소리1]+하2]+다6]  
가나-오나      [[가1+나10]+[오+나10]]  
때려-눅히다      [[[[때리1+어6]+[눅1+히2]]+다6]

##### 1.2. 제출 양식

- 1) 아래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형태 정보를 구축한다.
  - (1) ‘비고’란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논의점 혹은 특이사항 등을 정리한다.
  - (2) 구축된 형태 정보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 2) 임의로 양식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D	표제어(원본)	형태 정보	작업자	비고
404637	헛-소리	[헛2+소리1]	곽유석	
404639	헛소리-하다	[[[[헛2+소리1]+하2]+다6]	곽유석	

#### 2. 형태 분석 방식

##### 2.1. 기본 원칙

- 1) 표제어를 구성하고 있는 공시적인 형태소들을 밝혀 분석한다.
  - (1) 국어 문법 체계의 한 단위가 아닌 요소라도 이것이 형태소와 결합하였다면 그 경계를 밝혀 분석한다.

강낭-콩      [강낭\*\*콩1]  
아름-답다      [[아름\*\*답1]+다6]  
감쪽-갈다      [[감쪽\*\*갈]+다6]
  - (2) 표면형에서 공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① 표면형에서 소리가 덧나는 것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② 표면형에서 소리가 변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 2) 기존에 구축된 직접 구성 성분(IC) 분석의 결과를 따른다.

- (1) 특히 구성 요소들 간의 계층 구조를 밝힐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2) 다만 IC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라도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면 분석할 수 있다.

## 2.2. 개별 사례

### 1) 형태소 경계와 자소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1) 표제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들을 기저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다.
- (2) 불규칙한 음운 현상이 표면형에 반영된 표제어 중에서 소리가 덧나는 것은 이를 밝혀 분석한 뒤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① 화석형

좁쌀	[조1+(ㅂ)+쌀]
법씨	[벼+(ㅂ)+씨1]
접때	[저4+(ㅂ)+때1]

#### ② ㅎ 종성체언

수캐	[수29+(ㅎ)+개3]
암돼지	[암9+(ㅎ)+돼지]
살고기	[살1+(ㅎ)+고기1]

#### ③ 불규칙 용언

더워	[덥+이27]
굴리다	[[구르1+이29]+다6]
물음1	[묻3+음9]

#### ④ 사이시옷

나룻-배	[나루1+(ㅅ)+배2]
순댓-국	[순대+(ㅅ)+국1]
나뭇-잎	[나무1+(ㅅ)+잎1]

#### ⑤ 기타

소-나무	[술3+나무1]
보배로이	[[보배+롭]+이30]

### 2) 준말

- (1) 준말은 이에 대응하는 본말로 환원하여 분석한다.

- ① 표제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준말일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는 본말로 환원하여 분석한다.

갈-앉다	[[가라**앉]+다6]
샬-심	[[새3+알1]+심2]
낫-살	[나이1+살1]

- ② 다만 준말이 형태소이고, 이것이 별도의 표제어로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말로 환원하여 분석하지 아니한다.

갈-바람	[갈2+바람1]
넬모레	[넬+모레]
개름-뱅이	[개름1+뱅이]

- (2) ‘직-간접(直間接)’류는 준말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응하는 본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구 축된 IC 분석에 따라 분석한다.

직-간접	[직**간접]
출-퇴근	[출**퇴근]



### 3. 기타 논의 사항

#### 3.1. ‘-다’의 처리

- 1) 용언 표제어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다’는 종결 어미 ‘-다6’에 준하여 처리한다.
- 2) 따라서 표제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계층 구조를 보일 때 항상 맨 마지막에 결합한다.

#### 3.2. 외래어의 처리

- 1) 외래어 역시 기본적으로는 형태 분석의 원칙에 따라 형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 2) 다만, 시범 분석 과정에서는 외래어 표제어는 가급적 작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록 9」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설문지

### [일반 설문지(일반 국민)]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내용은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ID

##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 행정, 법률,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인용·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어사전과 어문 규범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확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모두 2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기관 : 국립국어원  
조사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I.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5.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일상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1. [5번의 응답 값이 ③, ④, ⑤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5-2. [5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6.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활용한 적 있다.                      ② 활용한 적 없다.

6-1. [6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7.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작다	←	보통이다	→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7-1. [7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 효과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어서  
② 뜻풀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 ③ 용례가 최근 세태를 반영하지 않아서  
 ④ 어문 규범이 어렵게 제시되어 있어서  
 ⑤ 기타( )

8.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9.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외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으로 《우리말샘》 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해본 적 있다.                      ② 이용해본 적 없다.

9-1. [9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십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 주십시오.

상황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둘 다 이용함
1) 신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2) 옛말이나 북한어의 뜻을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3) 고전 작품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4) 언어 예절에 맞는 호칭어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①	②	③
5)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	①	②	③

9-2. [9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는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일상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2-1. [9-2번에서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9-2-2. [9-2번에서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 Ⅲ.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10.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정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래 (가)의 신문 기사를 (나)로 바꾸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 항목을 평가해 주십시오.

(가)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복 범죄'가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복(報復)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보복 범죄'란 단어가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다.

(나)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복 범죄'가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는 비판도 나온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복(報復)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보복 범죄'란 단어가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가)보다 (나)의 신뢰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가)보다 (나)의 정확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가)보다 (나)의 전문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1-1. 위의 문항에서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뢰성, 정확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12.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양, 질,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원하는 종류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생활 및 업무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국어 생활을 반영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양, 질, 유용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1. [13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느 부분에서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표제어                      ② 발음/활용                      ③ 문법  
 ④ 뜻풀이                      ⑤ 용례  
 ⑥ 기타(                      )

14. 귀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 외에,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이용해본 적 있다.                      ② 이용해본 적 없다.

14-1. [14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다음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편리성(접근의 용이성, 기능의 다양화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디자인과 메뉴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2. 귀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편리성(접근의 용이성, 기능의 다양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2-1. [14-2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어느 부분에서 편리성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접근성 부족
- ②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 부족
- ③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부족(검색 기능 제외)
- ④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디자인과 메뉴
- ⑤ 기타 ( )

15.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서는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 사전)와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 사전)가 있습니다.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하십니까?

- ① 국어사전은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 (→ 기술 사전)
- ② 바른 국어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 (→ 규범 사전)
- ③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

15-1. [15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2. [15번의 응답 값이 ②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3. [15번의 응답 값이 ③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16.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상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른다
1) 평소 책이나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든 뜻을 알아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확한 단어나 문장을 써야 하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단어를 검색하다가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전의 '자세히 찾기'나 '단어장' 기능을 활용해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검색한 단어의 결과를 국어사전별로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포털사이트에서 국어사전, 백과사전을 구별하여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국어사전은 새로운 어휘가 제때 반영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전이 없다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전을 친근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일반 설문지(전문가)]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내용은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ID

##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 행정, 법률,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인용·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어사전과 어문 규범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확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모두 2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MEGAresearch

주관기관 : 국립국어원  
조사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I.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전문 분야	① 교육    ② 행정    ③ 법률    ④ 언론    ⑤ 기타(    )		

### II.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 조사

1.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도 «표준국어대사전»에 포함됩니다.)

- ① 1주일에 3회 이상                      ② 1주일에 1~2회                      ③ 1개월에 1~2회

④ 6개월에 1~2회

⑤ 1년에 1~2회

2. 귀하는 어떤 경로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십니까?

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②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통해 이용

③ 종이 사전을 통해 이용

④ 기타(입력: )

3. 귀하께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

②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

③ 비슷한 말이나 관련된 단어 등을 찾아보기 위해

④ 맞춤법(띄어쓰기 제외)에 맞는 표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⑤ 어떤 말을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⑥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언어 표현을 써도 되는지 찾아보기 위해

⑦ 기타(입력: )

4.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떤 부분을 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표기

② 원어

예) 이어폰(earphone), 맥락(脈絡)

③ 발음

예) 맥락[맹락]

④ 활용 정보

예) ‘주다’〔주어(줘), 주니〕

⑤ 품사

⑥ 문형 정보

예) ‘주다’【…에/에게 …을】

⑦ 뜻풀이

⑧ 용례

⑨ 참고 어휘(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본말, 준말 등)

⑩ 어원

⑪ 관용구, 속담

⑫ 규범 정보(한 걸음 더)

5.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1. [5번의 응답 값이 ③, ④, ⑤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5-2. [5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6.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직접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인용한 적 있다.                      ② 인용한 적 없다.

6-1. [6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떤 부분을 주로 인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표기                             |                          |
| ② 원어                             | 예) 이어폰(earphone), 맥락(脈絡) |
| ③ 발음                             | 예) 맥락[맹락]                |
| ④ 활용 정보                          | 예) ‘주다’〔주어(줘), 주니〕       |
| ⑤ 품사                             |                          |
| ⑥ 문형 정보                          | 예) ‘주다’【…에/에게 …을】        |
| ⑦ 뜻풀이                            |                          |
| ⑧ 용례                             |                          |
| ⑨ 참고 어휘(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본말, 준말 등) |                          |
| ⑩ 어원                             |                          |
| ⑪ 관용구, 속담                        |                          |
| ⑫ 규범 정보(한 걸음 더)                  |                          |

6-2. [6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7.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작다	←	보통이다	→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7-1. [7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 효과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어서  
 ② 뜻풀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③ 용례가 최근 세태를 반영하지 않아서  
 ④ 어문 규범이 어렵게 제시되어 있어서  
 ⑤ 기타( )

8. 귀하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9.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외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으로 《우리말샘》 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해본 적 있다.
- ② 이용해본 적 없다.

9-1. [9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십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 주십시오.

상황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둘 다 이용함
1) 신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2) 옛말이나 북한어의 뜻을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3) 고전 작품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4) 언어 예절에 맞는 호칭어가 무엇일지 궁금할 때	①	②	③
5)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	①	②	③

9-2. [9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는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2-1. [9-2번에서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9-2-2. [9-2번에서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Ⅲ.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10.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내용의 정확성, 언어생활의 반영, 대표성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정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내용의 정확성, 언어생활의 반영, 대표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11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찾는 어휘가 없다.
- ② 어휘의 뜻풀이가 정확하지 않다.
- ③ 용례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다.
- ④ 내용 오류, 표기 오류 등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
- ⑤ 어문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 ⑥ 기타 ( )

11-2. [11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신하여 어떤 자료를 주로 참조하십니까?

- ① 백과사전을 찾는다.
- ② 다른 발행 기관의 국어사전을 찾는다.
- ③ 해당 분야의 전문어 사전을 찾는다.
- ④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의 설명을 참조한다.
- ⑤ 포털사이트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 ⑥ 기타 ( )

12.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 및 내용의 충실성(정보의 양, 질,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 ①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접근성 부족
- ②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 부족
- ③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부족(검색 기능 제외)
- ④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디자인과 메뉴
- ⑤ 기타 ( )

15.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서는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 사전)와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 사전)가 있습니다.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하십니까?

- ① 국어사전은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 (→ 기술 사전)
- ② 바른 국어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 (→ 규범 사전)
- ③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

15-1. [15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2. [15번의 응답 값이 ②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3. [15번의 응답 값이 ③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6.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상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른다
1) 평소 책이나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든 뜻을 알아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확한 단어나 문장을 써야 하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단어를 검색하다가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전의 '자세히 찾기'나 '단어장' 기능을 활용해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검색한 단어의 결과를 국어사전별로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포털사이트에서 국어사전, 백과사전을 구별하여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국어사전은 새로운 어휘가 제때 반영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전이 없다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전을 친근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심층 설문지(전문가)]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내용은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ID

##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회적 활용도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 행정, 법률,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인용·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어사전과 어문 규범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확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모두 2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MEGAresearch

주관기관 : 국립국어원  
조사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I.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전문 분야	① 교육    ② 행정    ③ 법률    ④ 언론    ⑤ 기타(        )		

## II.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도 조사

1.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도 《표준국어대사전》에 포함됩니다.)

- ① 1주일에 3회 이상      ② 1주일에 1~2회      ③ 1개월에 1~2회  
④ 6개월에 1~2회      ⑤ 1년에 1~2회

2. 귀하는 어떤 경로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십니까?

- 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 ②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통해 이용
- ③ 종이 사전을 통해 이용
- ④ 기타(입력: )

3. 귀하께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illegible]

4.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떤 부분을 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표기                             |                          |
| ② 원어                             | 예) 이어폰(earphone), 맥락(脈絡) |
| ③ 발음                             | 예) 맥락[맹락]                |
| ④ 활용 정보                          | 예) ‘주다’〔주어(집), 주니〕       |
| ⑤ 품사                             |                          |
| ⑥ 문형 정보                          | 예) ‘주다’【…에/에게 …을】        |
| ⑦ 뜻풀이                            |                          |
| ⑧ 용례                             |                          |
| ⑨ 참고 어휘(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본말, 준말 등) |                          |
| ⑩ 어원                             |                          |
| ⑪ 관용구, 속담                        |                          |
| ⑫ 규범 정보(한 걸음 더)                  |                          |

5.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1. [5번의 응답 값이 ③, ④, ⑤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5-2. [5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6.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직접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인용한 적 있다.                      ② 인용한 적 없다.

6-1. [6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는 업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떤 부분을 주로 인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표기                             |                          |
| ② 원어                             | 예) 이어폰(earphone), 맥락(脈絡) |
| ③ 발음                             | 예) 맥락[맹락]                |
| ④ 활용 정보                          | 예) ‘주다’〔주어(줘), 주니〕       |
| ⑤ 품사                             |                          |
| ⑥ 문형 정보                          | 예) ‘주다’【…에/에게 …을】        |
| ⑦ 뜻풀이                            |                          |
| ⑧ 용례                             |                          |
| ⑨ 참고 어휘(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본말, 준말 등) |                          |
| ⑩ 어원                             |                          |
| ⑪ 관용구, 속담                        |                          |
| ⑫ 규범 정보(한 걸음 더)                  |                          |

6-1. [6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7.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작다	←	보통이다	→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7-1. [7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 효과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8. 귀하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9.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외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으로 《우리말샘》 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이용해본 적 있다.                      ② 이용해본 적 없다.

9-1. [9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을 이용하십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 주십시오.

상황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둘 다 이용함
1) 신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2) 옛말이나 북한어의 뜻을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3) 고전 작품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①	②	③
4) 언어 예절에 맞는 호칭어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①	②	③
5)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	①	②	③

9-2. [9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귀하는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2-1. [9-2번에서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9-2-2. [9-2번에서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우리말샘》 사전이 귀하의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Ⅲ.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10.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내용의 정확성, 언어생활의 반영, 대표성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정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내용의 정확성, 언어생활의 반영, 대표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11번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원하는 종류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생활 및 업무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국어 생활을 반영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표제어                      ② 발음/활용                      ③ 문법  
④ 뜻풀이                      ⑤ 용례  
⑥ 기타(                      )

① 이용해보는 적 있다.                      ② 이용해보는 적 없다.

세부 측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디자인과 메뉴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2.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편리성(접근의 용이성, 기능의 다양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2-1. [14-2의 응답 값이 ①, ②인 경우] 귀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느 부분에서 편리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서는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기술 사전)와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규범 사전)가 있습니다.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하십니까?

- ① 국어사전은 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해야 한다. (→ 기술 사전)
- ② 바른 국어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 (→ 규범 사전)
- ③ 둘 다 부족함 없이 추구해야 한다.

15-1. [15번의 응답 값이 ①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2. [15번의 응답 값이 ②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5-3. [15번의 응답 값이 ③인 경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6.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상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른다
1) 평소 책이나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든 뜻을 알아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확한 단어나 문장을 써야 하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단어를 검색하다가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전의 '자세히 찾기'나 '단어장' 기능을 활용해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검색한 단어의 결과를 국어사전별로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포털사이트에서 국어사전, 백과사전을 구별하여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국어사전은 새로운 어휘가 제때 반영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전이 없다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전을 친근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이대성 사전팀장  
국립국어원 남미정 학예연구사

<연구 참여자>

연구책임자 정희창(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지혜(한신대학교)      광유석(성균관대학교)  
민지원(성균관대학교)      이성우(한림대학교)  
김강은(성균관대학교)      조남호(명지대학교)  
박선영(연세대학교)      한용운(동국대학교)  
유하라(성균관대학교)      강범일(연세대학교)  
김영덕(전 겨레말큰사전)      노석은(고려대학교)  
박재희(충남대학교)      방영심(상명대학교)  
손지은(고려대학교)      안혜지(성균관대학교)  
이수연(국민대학교)      황지현(성균관대학교)  
봉미경(연세대학교)      박헌순(고전번역교육원)  
고대영(겨레말큰사전)      신유리(연세대학교)  
이선웅(경희대학교)      이준환(전남대학교)  
이지하(성균관대학교)      황호덕(성균관대학교)  
김한샘(연세대학교)      도원영(고려대학교)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이지수(교육과정평가원)  
최형용(이화여자대학교)      강남옥(성균관대학교)  
박지순(경희대학교)  
연구보조원 김지윤(성균관대학교)      김종희(성균관대학교)  
이준희(동국대학교)      정량량(성균관대학교)  
조교현(성균관대학교)      김정원(성균관대학교)  
박도리(성균관대학교)      신현규(성균관대학교)  
이소미(성균관대학교)      한예림(성균관대학교)  
윤시현(성균관대학교)      윤지솔(성균관대학교)  
홍상기(성균관대학교)      진예솔(성균관대학교)  
구지선(성균관대학교)      박우진(성균관대학교)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3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